

울산형 뉴딜을 통한 여성 일자리 창출 및 취·창업 지원방안

A Study on the Creation of Women's Jobs and Support for Getting Jobs and Starting a Business through Ulsan-type New Deal

권안나



재울산여성가족개발원
ULSAN WOMEN & FAMILY DEVELOPMENT INSTITUTE



발 간 사

지난해 4월 울산시는 전국 최초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재도약을 위해 '울산형 뉴딜'을 발표하였습니다. 전 산업분야에서 사업이 추진되어 대규모 일자리창출 효과가 기대되어 지역 내 여성들이 진입 가능한 일자리 분야를 면밀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기존 여성 일자리 연구와 달리 '울산형 뉴딜'에서 변화하는 산업과 맞물려 즉각적으로 진입 가능한 분야를 파악하였습니다. '디지털경제, 사회적경제, 반려동물산업 분야' 등에서 여성 일자리 확대가 가능 할 것으로 보이며, 경험의 기회를 통해 경력을 쌓고 지속가능한 일자리로 연결되기 위한 여성친화 일자리 창출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울산형 뉴딜'은 2030년까지 총 58조원을 투입하여 최대 57만 명의 고용이 창출 되는 등 사업은 보다 확장될 것입니다. 이에, 여성이 일자리에 진입하고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들의 특성을 반영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 동안 울산은 산업 도시 및 제조업 등 남성 일자리 중심의 도시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여성의 특성을 반영한 일자리를 만들어 나간다면 여성과 남성이 함께 일할 수 있는 성평등 노동도시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연구 수행에 많은 도움을 주신 울산광역시와 관련분야 전문가 분들, 유관기관 담당자 분들, 자문과 평가를 담당해주신 연구평가위원님, 마지막으로 면접조사에 응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21년 8월

(재)울산여성가족개발원장 이 미 영



울산형 뉴딜을 통한 여성 일자리 창출 및 취·창업 지원방안

A Study on the Creation of Women's Jobs and Support for
Getting Jobs and Starting a Business through Ulsan-type
New Deal

■ ■ ■

책임연구 : 권안나(울산여성가족개발원 연구원)

연구지원 : 꾸엔(울산여성가족개발원 위촉연구원)



연구요약

- I. 서론
- II. 울산시 여성 고용 및 뉴딜정책 현황
- III. 울산형 뉴딜과 여성 일자리
- IV. 울산형 뉴딜을 통한 여성 일자리 창출 관련 조사
- V. 울산형 뉴딜을 통한 여성 일자리 정책과제

I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여성인력활용 필수적이거나, 울산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전국 최하위
- 코로나19로 울산여성의 고용 위축 보다 심각
- 여성의 특성을 반영한 일자리 체질 개선 필요
- 울산의 제조업 중심의 산업에서 4차산업 혁명에 대처할 일자리 방안 모색 급선무
- ‘울산형 뉴딜’에서 일자리 창출 방안 모색

2. 연구 내용 및 방법

- 문헌연구
 - 뉴딜정책과 여성 일자리의 관계, 여성의 특성을 반영한 지속가능한 일자리 등에 대한 이론적 검토 및 근거 제시
- 통계 분석
 - 울산시 여성 고용 실태 분석(연령별, 산업별, 직종별 취업자 분포 등)에 관한 기 통계자료에 대한 분석 실시
- 전문가 자문
 - 연구방향 및 쟁점, 연구 결과 도출 방향 및 제언 등에 있어 전문가 자문 활용
- 면접조사
 - 울산형 뉴딜(디지털경제, 사회적경제, 반려동물산업 분야)의 정책전문가(담당공무원), 학계 및 현장 전문가, 사업 참여자, 취·창업자 등을 대상으로 면접조사 실시

3. 연구의 기대효과

- 울산형 뉴딜을 통한 여성 일자리 창출 및 취·창업 관련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
- 울산지역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통한 울산형 뉴딜의 성공적 추진 및 도시 경쟁력 제고

II 울산시 여성 고용 및 뉴딜정책 현황

1. 울산여성의 고용 실태 및 산업 동향

- 울산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및 고용률은 남성 대비 현저히 낮으며, 코로나 19의 확산으로 인해 울산시 경제활동에 영향을 받았으나,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울산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및 고용률은 남성 대비 현저히 낮음. 이를 통해 일자리를 논함에 있어, 여성이 보다 취약한 상황임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음.
- 또한 울산은 제조업 중심의 산업이나, 여성은 사회복지서비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도매 및 소매업 등의 분포가 높게 나타남. 향후 제조업과 ICT 분야와의 융합에 따른 고용시장의 변화가 예측되나, 여성은 상대적으로 주력산업에서 배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사료됨.
- 울산시 경력단절 여성의 경력단절 사유(2020)를 살펴보면, ‘결혼준비’가 가장 높았으나 2015년 대비 점차 감소하여 2020년은 33.8%로 2순위로 내려갔으며, ‘육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0년 35.0%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음.
- 이처럼 여성이 경제활동을 지속함에 있어, 결혼과 육아는 주요한 요인으로 볼 수 있음. 또한 과거와 달리 결혼과 동시에 경제활동을 그만두는 것이 아닌, 출산과 양육으로 인해 돌봄 문제가 발생하면서 경력을 유지하는 것이 다소 어려운 것으로 유추할 수 있음.

2. 울산형 뉴딜정책 현황

-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울산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사회·경제적 생태계 변화에 선제적인 대응을 하고자 ‘울산형 뉴딜 총3대 분야(휴먼, 스마트, 그린) 30개 과제를 발표함.
- 전 산업에서 다양한 사업추진이 계획되어 있으며, 2030년까지 총 58조원을 투입하여 최대 57만 명의 고용창출과 48조원 이상의 생산유발효과를 예측하고 있음.

III 울산형 뉴딜과 여성 일자리

1. 뉴딜정책과 여성 일자리

-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대공황 이후 전례 없는 경기침체에 직면하였으며,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뉴딜정책의 필요성이 다시금 대두되고 있음.
-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충격이 여성에게 보다 큰 타격으로 다가 온 것은 대면 서비스산업에 종사하는 성별업종분리, 여성 일자리의 열악한 근로여건 등의 노동 시장 내 성별 격차가 주된 원인으로 분석(여성가족부, 2021)되고 있음.
- 이처럼 코로나19는 장기화로 인해 경제생활 기반이 붕괴되는 등 일자리가 크게 감소하고 있어 경제 위기와 고용 충격에 신속히 대처하고, 국민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
- 따라서 과거 뉴딜정책과 같은 맥락에서 지금의 경제위기를 극복함에 있어 일자리가 중심이 되어야 하며,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충격은 노동시장에서의 취약계층인 '여성'에게 보다 주목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코로나19 확산 전·후로 비교해보면, 휴교·휴원 상태가 장기화 되면서 돌봄 공백의 문제가 여성에게 전가되는 등 여성의 경력단절 원인이 '가족돌봄'과 '육아'가 상승하고 있음.
- 여전히 가족돌봄은 여성의 영역이자, 뒤편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여성이 일을 포기하게 되는 등 코로나19가 야기한 노동 위기는 남성보다 노동취약 계층인 여성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음.
- 여성은 노동시장에서 이미 불안정한 고용 지위(비정규직, 임시근로 등)에 처해(전기택 외, 2020).있으며, 대면서비스업종 위주에서 전문 기술기반 업종으로 여성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한 핵심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근본적인 여성 일자리 체질개선 및 점검이 필요한 시점임.
- 이에, 경제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인 '뉴딜정책'에서 지금까지 폄하된 여성일자리 영역을 바로 잡고 여성을 필요로 하고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2. 울산형 뉴딜에서의 여성 일자리 분야

- 울산형 뉴딜사업에서 여성일자리 창출가능 분야에 대한 분석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2021년 6월 21일~30일까지 정책전문가(공무원)를 대상으로 사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음.
- 조사 결과, 직접 고용(채용) 보다는 한시적으로 이뤄지는 건설, 공사, 용역 등의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전기차, 원전해체 에너지 복합단지 조성, 산재 공공병원 등 전문성 갖춰야 진입할 수 있는 분야로 즉각적 진입이 어려운 상황임.
- 이에 4차산업 등 변화에 따라 여성이 즉각적으로 진입하여 고용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를 우선적으로 살펴보고, 경제·사회구조의 전환으로 고용시장 변화에 대비하여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분야 등을 예측하면 다음과 같음.

〈표 1〉 울산형 뉴딜에서의 여성 일자리 창출 가능 분야

연번	사업명	고용유발 (명)	내용	비고
1	디지털 인력양성 및 첨단산업 육성	1,151	- 디지털 경제 전환 가속화에 따른 전 산업 AI 융합 확산을 위해 주요 지역에 AI·SW 인재양성 거점 구축 - 정보소외계층을 위한 체계적인 양질의 SW교육 제공 - SW 교육환경 조성 및 강사 육성을 통한 고용 창출	그린 뉴딜
2	울산형 마을뉴딜 추진	3,200	-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마을기업·사회적기업을 육성하여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발전 및 지역 일자리 창출 기반 마련 - 마을 자원 활용한 소득·일자리 창출 기반 조성	휴먼 뉴딜
3	문화관광· 생활 등 반려친화 인프라 구축	552	- 반려동물 양육 가구수 증가로 관련 산업 규모 및 시장 확대 - 연관 산업 육성을 통한 산업 분야 취·창업 수요 확대 및 전문 인력 육성	휴먼 뉴딜

3. 시사점

- 디지털경제 분야는 4차산업 혁명시대에 따라 새로운 산업 생태계 조성 및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정보통신기술(ICT) 분야가 확대될 것으로 예측됨. 특히, 울산은 제조업과 ICT와의 면밀한 융합에 따른 고용시장의 변화가 예측되는 등 지역 여성에게는 새로운 기회로 작용될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해당 분야에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함.
- 사회적경제 분야는 경쟁과 효율 중심에서 벗어나 협력과 연대를 지향함으로써 불평등 문제를 해소(울산광역시, 2019)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및 일자리 창출의 시각(김명화 외, 2014)을 갖고 있음.
- 고용조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여성들에게 일자리 제공과 더불어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적 형태로 자리매김 할 것임.
- 마지막으로 반려동물산업 분야는 반려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관련 시장 규모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며, 이에 따라 울산은 전국 최초로 반려동물 친화도시를 선언하는 등 올바른 반려문화 확산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관광 등 다양한 사업을 선제적으로 실시함에 따라 관련 일자리가 창출 될 것으로 보임.
- 울산형 뉴딜에서의 여성 일자리는 활성화될 산업에 대해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기존 일자리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고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이를테면 여성은 그 동안 노동시장에서 돌봄노동으로 인해 쉽게 배제되었으나, 이제는 유연한 근무가 가능한 디지털경제 분야 등에서의 전략적인 접근을 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즉, 기존의 고정관념을 깨고, 여성의 강점이자 단점으로 여겨지고 있는 특성을 살려 대응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IV 울산형 뉴딜을 통한 여성 일자리 관련 조사

1. 조사개요

- 전국 최초로 실시하고 있는 ‘울산형 뉴딜’의 사업 특성 및 일자리 현황 등에 대해 파악하여, 향후 울산 여성의 일자리 창출 또는 취·창업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울산형 뉴딜에서 여성 일자리 창출 가능 분야를 확인하기 위해 행정 전문가(공무원)를 대상으로 해당 사업에 대한 설명 및 고용유발 등을 조사함.
- 이를 토대로 디지털경제, 사회적경제, 반려동물산업 분야 등 관련 전문가 총 16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음.
- 해당 분야의 담당 공무원, 사업 참여자 등 관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으며, 뉴딜정책 사업현황, 사업 추진 시 문제점 및 한계점, 애로사항, 사업과 연계된 일자리 분야, 정책 요구사항 등을 조사함.

〈표 2〉 면접조사 개요

구분	주요내용
조사대상	울산형 뉴딜(디지털경제, 사회적경제, 반려동물산업 분야)의 정책전문가(담당공무원), 학계 및 현장 전문가, 사업 참여자, 취·창업자 등
유효표본	16명
조사방법	심층 인터뷰(In-depth Interview)
조사기간	2021. 7. 5. ~ 2021. 7. 27.
조사내용	울산형 뉴딜 현황, 사업 추진 시 문제 및 한계점, 요구 및 애로사항, 사업과 연계된 일자리 분야, 정책 요구사항 등

2. 조사결과

○ 울산형 뉴딜에서 여성이 진입 가능한 분야는 ‘디지털경제, 사회적경제, 반려동물산업’이며, 면접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음.

〈표 3〉 면접조사 결과

구분	디지털경제	사회적경제	반려동물산업
사업의 내용 및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석·박사급 핵심인력양성, 산업 현장 인력양성, 디지털 꿈나무 양성 등 디지털 인력양성 실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주민 주도의 공동체 활성화, 생활자치 실현,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마을기업 및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여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발전과 지역 일자리 창출의 기반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반려동물 양육 가구수 증가로, 지역 연관 산업과의 상생 협력 및 취·창업 수요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사업의 문제 및 한계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업현장에 보다 적합한 교육 대상자 발굴의 어려움 교육수요 파악의 어려움 지속적인 고용 보장의 어려움 창업생태계 구축의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을뉴딜 사업에 대한 이해 및 운영역량 부족 주체적 사업운영 및 지속가능성의 어려움 여성의 대표성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취·창업을 위한 실무 기회 부족 지역 내 강사 풀 부족 취·창업 관리 및 인프라 체계 부족
일자리 창출 및 취·창업 지원을 위한 활성화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과학기술인 데이터베이스 구축 취·창업과 연계할 수 있는 수요 조사 실시 창업 기초교육 및 역량강화 등 원스톱 지원 체계 구축 고용 유지를 위한 여성친화적인 조직문화 조성 정책수요를 기반으로 한 공공시장 개척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및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을 특성에 기반한 운영방안 모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 : 마을에 대한 이해 및 사업의 선순환 생태계 구축 - 사업 참여자 : 주민참여 활성화 및 전문성 강화 - 총괄 관리자 : 유사기능의 직접화 여성 대표성 제고 방안 모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자체 차원의 비용 지원 지역 내 강사 양성 및 역량 강화 취·창업 연계 시스템 구축
사업과 연계된 일자리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SW교육 전문 강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친화적 ‘일거리’ 확대 (가칭) 마을연구소 운영 : 마을 연구자 마을별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반려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 강사 반려동물 동반 관광 전문 가이드 반려동물 관련 전문가 : 의료, 미용, 훈련 등 기타분야 : 돌봄, 장애, 반려동물 구조대 등

3.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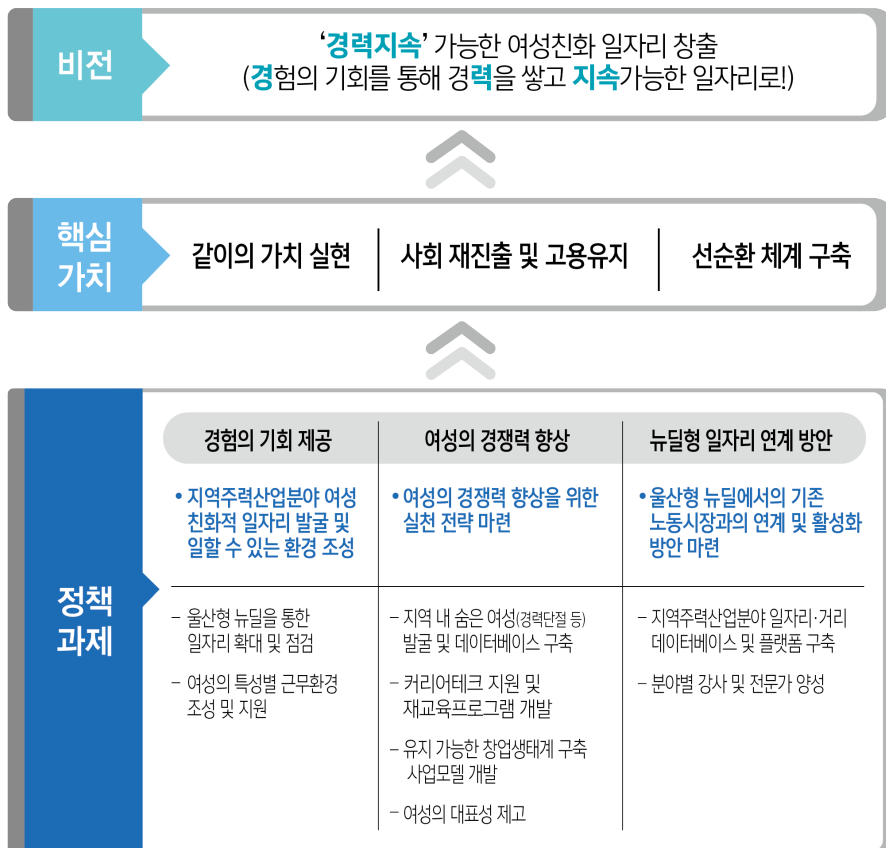
- 울산형 뉴딜은 경제·사회 전반의 활동축의 변화를 예측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여성이 진입할 수 있는 분야는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산업구조 상 여성의 일자리 진입이 어려운 특성을 가지고 있는 만큼 당초 뉴딜 정책 계획 수립 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정책 수립 시 성평등 관점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뉴딜정책에서의 여성 일자리가 창출이 되기까지 소정의 교육을 통해 취·창업이 가능한 분야도 있으나, 사업이 안정화되는 등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됨. 이에, 지속가능한 일자리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교육 등 자기개발이 수반되어야 함.
- 뿐만 아니라 관련 분야에서의 교육 수강 후 즉각적으로 취·창업으로 연계되지 못할 경우 추후 수요에 따른 인력이 연계될 수 있도록 관련 데이터베이스 관리도 필요한 것으로 보임.
- 본 연구를 통해 여성은 코로나19로 인한 자녀돌봄, 경력단절로 인해 여성이 재진입하기 위해서는 경직된 일자리(풀타임)가 아닌 유연하게 근무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일자리(파트타임)가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남.
- 다만, '파트타임' 일자리를 선호한다는 것은 저임금·불안정한 일자리가 아닌, 돌봄·가사 등을 병행하며 유지할 수 있는 하거나, 경력단절로 인한 공백을 채울 수 있는 일자리를 의미함. 이에, 무조건적인 풀타임의 일자리를 논하는 것이 아닌,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즉, 기존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다양한 맥락에서 일자리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 또한 울산형 뉴딜에서 창출될 수 있는 일자리는 마을·반려견 등을 '돌봄'의 성격이 강하며, 여성의 세심함과 공감능력은 사업의 공동체적 성격에 부합한 것으로 나타남.
- 4차산업시대에는 여성이 가지고 있는 강점은 관련 산업에 대응할 수 있는 필수 요인이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이에, “여성의 역할=돌봄=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사회를 돌보고 정당한 일자리로 인정받을 수 있어야하며 그 동안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 여성의 일자리 분야 등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함.

V 울산형 뉴딜을 통한 여성 일자리 정책과제

1. 정책방향

- 본 연구는 울산형 뉴딜을 통한 일자리 감소 문제 완화 및 동시에 새로운 영역에서의 양질의 여성 일자리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경력지속 가능한 여성친화 일자리 창출’이라는 비전 아래 경험의 기회 제공, 여성의 경쟁력 향상, 뉴딜형 일자리 연계 방안 측면에서 여성 일자리 방향을 도출하였음.

〈그림 1〉 울산형 뉴딜을 통한 여성 일자리 비전 및 추진방향



1) 경험의 기회 제공

- 울산은 그 동안 산업도시 및 제조업 등 남성 일자리 중심의 도시로 기억되고 있음. 4차산업혁명, 코로나19 등 고용시장의 변화가 예측되나, 여성은 상대적으로 주력산업에 배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사료됨.
- 하지만 미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울산형 뉴딜’에서는 그 동안 소외되어 온 여성의 사회참여를 보다 적극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음.
- 기존 일자리와 달리 울산형 뉴딜에서는 여성의 일거리·일자리에 대한 경험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지역주력산업분야의 여성 친화적 일자리 발굴 및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함.

2) 여성의 경쟁력 향상

- 울산형 뉴딜은 변화된 산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새로운 기술을 습득한 인재에 대한 요구가 포착됨. 전문분야는 경험(력)이 있는 여성의 재진입이 보다 성공적일 수 있음.
- 사회 재진출 및 고용 유지를 위해서는 지역 내 숨은 여성을 발굴하고 이들의 동기부여 및 경력개발·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기존 경력단절(보유) 여성의 경력 발굴 및 적재적소에 배치될 수 있도록 관리 뿐 아니라 이들의 경력개발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여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실천 전략 마련이 이뤄져야 함.

3) 뉴딜형 일자리 연계 방안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새로운 산업에서 여성인력의 전문적·안정적인 사회진입 및 유지를 위해서는 여성친화 일자리 구축 및 경쟁력 향상이 필수적임.
- 또한 주도적으로 경력을 쌓고 지속가능한 일자리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선순환 체계 구축’이 필요함.
- 하지만 현재 울산형 뉴딜 안에서의 사업 활성화 및 기존의 노동시장을 이어줄 수 있는 연계 방안이 미흡한 것이 현실임.
- 이에, 뉴딜형 일자리와 기존의 노동시장이 시너지를 내며 자리매김 할 수 있는 실천전략이 필요함.

2. 정책과제

1) 지역주력산업분야 여성 친화적 일자리 발굴 및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울산형 뉴딜은 4차산업혁명시대에 지역을 선도할 산업 분야이며, 이에 따라 관련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측됨.
- 울산은 출산·육아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보유) 여성이 많으며, 다시 사회로의 재진입을 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것이 필요함.
- 특히, 경력단절(보유) 여성은 돌봄에 대한 부담 및 노동시장 재진입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음. 이에, 여성이 포기하지 않고 사회참여를 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이 필요함.
- 이를테면, 디지털경제 분야는 고숙련 전문직뿐 아니라 대규모 저숙련 노동력이 요구되는 등 일자리 스펙트럼이 넓고, 시간과 공간을 선택할 수 있어 여성의 일·생활(가정) 균형의 요구를 만족시켜 여성 친화적인 일자리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음.
- 하지만 IT·SW·AI 등 교육에 대한 동기유발 부족 및 교육을 통해 청사진을 그리는 것이 어려워 여성들에게는 진입장벽이 높게 느껴지는 것으로 나타남.
- 사회적경제 분야에서는 고정적인 시간에 근무하는 '일자리'가 아닌 4~6시간 정도로 마을을 돌보는 일거리가 많았음.
- 본 연구를 통해 여성 친화적 일자리가 창출 가능한 분야를 발굴하였으며, 해당 사업은 보다 확장될 것으로 사료됨. 이에, 여성들이 두려움과 거부감 없이 경험해 볼 수 있고 진입 가능하도록 지속적인 점검 및 모니터링이 필요함.
- 이는 향후 지역주력산업분야에서의 여성 친화적 일자리 발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또한 현재 출산과 육아의 일은 여성에게 많이 부담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경력 단절이 발생하고 재진입하기 위해서는 근무환경이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밝혀짐.
- 즉, 여성의 특성에 따라 상근직 및 정규직, 프리랜서·비상근직 등 선호하는 근무형태가 상이하게 나타남. 이는 무조건적인 풀타임의 일자리를 논하는 것이 아닌, 기존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여성의 특성에 따라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및 지원이 필요함.

2) 여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실천 전략 마련

- 디지털경제 등과 같이 전문 분야의 사회 재진출을 위해서는 관련 경력이 있는 대상이 보다 적합함.
- 하지만 지역 내 경력이 단절된 고경력·고학력 여성과학기술인을 발굴하는 것은 쉽지 않아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고, 숨어 있는 인력 발굴 및 참여 확대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필요함.
- 또한 경력을 유지해나갈 수 있도록 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수요조사가 이뤄져야 하며, 재직자의 업무지속 및 효율성을 위한 커리어 테크 지원 및 재교육프로그램 개발도 뒷받침 되어야 할 것임.
- 한편, 사회적경제, 반려동물산업 등 해당 사업에서도 적합한 인력 양성을 위해 교육 및 자격증 취득이 이뤄지며, 일자리로 연결되기까지 일정 시간이 소요됨. 즉각적으로 취·창업으로 연계되지 못할 경우 지속적인 인력양성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닌 추후 수요에 적합한 인력이 연계될 수 있도록 관련 데이터 베이스도 함께 구축되어야 함.
- 다음으로 디지털경제, 사회적경제 반려동물산업 분야 등에서 협동조합의 형태로 창업하는 사례가 많이 포착됨.
- 이들은 지자체나 국비의 지원 없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자립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기반 구축이 중요하며, 주민주도(Bottom-Up) 방식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양적성장(고용률 등)이 아닌 마을주민 자체적으로 지속가능한 운영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함.
- 운영 초기에 금전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닌, 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와 청사진을 그릴 수 있어야하며, 정책수요를 기반으로 한 사업은 공공에서 다양한 기회(공공시장 개척, 지자체 차원의 비용 지원 등)를 줄 수 있어야 함.
- 나아가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사업운영 지원 및 컨설팅, 내부 구성원 및 리더 역량강화 지원 등 주체적으로 유지 가능한 창업생태계 및 사업모델 개발이 필요함.

- 한편, 대부분의 사업은 여성에 의해 움직이고 있으나, 사업의 방향을 결정하는 대표 등은 대부분 남성으로 구성되어 있음. 여성이 목소리를 내고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였을 때 여성들에게 보다 필요하고 친화적인 일자리로 만들어 나갈 수 있음. 이에 여성의 적극적인 참여 및 리더십으로 끌어올릴 수 있어야 함.

3) 울산형 뉴딜에서의 기존 노동시장과의 연계 및 활성화 방안 마련

- 본 연구에서는 울산형 뉴딜 안에서의 진출 가능한 분야를 살펴보았으며, 여성이 구인·구직 활동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은 부재한 것으로 나타남. 즉, 기존 노동시장과의 연계가 미흡함.
- 변화하는 산업의 흐름에 따라 일자리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하나, 지역 내 여성 일자리 플랫폼은 현저하게 적으며 그 역시도 이러한 변화에 맞춰 움직이고 있지 못해 일자리 플랫폼은 확장될 필요가 있음.
- 새로운 전달체계 구축을 제안하는 것이 아닌 지역주력산업 분야에 따른 일거리·일자리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아우를 수 있는 컨트롤 타워로서 역할이 필요함.
- 또한 지속가능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어야 함. 이에, 해당 분야별로 공통된 일자리는 교육과 연계되어 강사양성이 필요함. 뿐만 아니라 해당 분야의 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갈 수 있는 전문가 양성(마을코디네이터, 여성의 고용유지를 위한 커리어개발 컨설턴트 등)이 반드시 이뤄져야 함.

- 한편, 울산형 뉴딜 ‘사회적경제 분야’에서의 여성 일자리 창출 및 취·창업 지원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단계별 정책과제 추진전략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① 단기과제

- 사회적경제 분야의 마을뉴딜사업이 안정되기 위해서는 마을운영 및 인력활용방안에 대한 고민이 동시에 이뤄져야 함. 이에 여성 일자리 창출 및 취·창업 지원을 위한 단기과제로 ‘마을에 대한 점검 및 일거리 발굴’을 제안함.
- 현재 마을뉴딜 사업은 운영 중에 있으나, 마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 현실임. 이에, 마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 자원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 이를 토대로 마을 뉴딜사업에서 여성에게 경험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일거리를 발굴하여 여성친화적 및 진입 가능한 분야를 제안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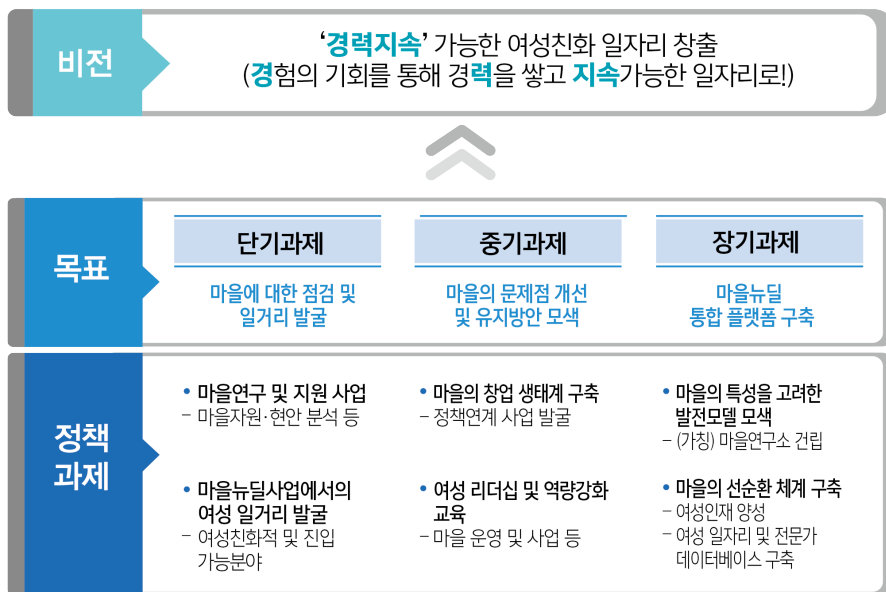
② 중기과제

- 중기과제는 ‘마을의 문제점 개선 및 유지방안 모색’이 필요함.
- 현재 마을뉴딜 사업은 마을 주민의 분석에 의해 사업을 제안하였음.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단기과제에서 제시한 마을에 대한 현안 분석을 기반으로 하여 이윤을 낼 수 있는 방향을 다각도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이를테면 지역 내 유희공간 및 앵커시설을 통한 마을의 창업 생태계 구축 및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정책사업과 연계를 들 수 있음.
- 현재 마을은 공공의 기회 및 자원 등을 활용하여 성장할 필요가 있음.
- 나아가 사업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마을의 인력의 역량강화가 반드시 이뤄져야 함. 이에, 여성의 대표성 제고를 위한 리더십 교육 뿐 아니라 마을 운영 및 사업 전반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③ 장기과제

- 성공적인 마을뉴딜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마을에 대한 이해 및 사업의 선순환 생태계 구축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마을뉴딜 통합 플랫폼 구축’을 제안함.
- 이에, 마을의 지속가능한 기반 마련을 위해서는 마을을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고 특성을 고려한 발전모델을 제시할 수 있는 (가칭) 마을연구소가 필요함.
- 또한 마을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갈 수 있는 전문가 양성(마을코디네이터 등)이 반드시 뒷받침 되어야 함.
- 한편, 울산형 뉴딜에서 진행되는 사업과 기존 노동시장을 아우를 수 있는 플랫폼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이에 기존 노동시장과의 연계가 필요하므로 마을에 어떠한 일거리와 일자리가 있는지 등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그림 2〉 울산형 뉴딜에서의 여성 일자리 추진전략 : 사회적경제 분야



3. 핵심전략

- 울산형 뉴딜에서 여성 일자리 창출 가능 분야는 상이하였으나,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공통된 전략은 다음과 같음.

1) 인력 데이터베이스 구축

- 울산형 뉴딜에서의 다양한 사업은 앞으로 확대될 것이므로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고, 숨어 있는 경력단절(보유) 고경력·고학력 여성 뿐 아니라 관련분야의 교육 등으로 자격을 갖춘 지역 내 인력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인력 데이터베이스 구축 시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근거해 합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안 모색도 함께 이뤄져야 함.

2) 온라인 플랫폼 구축

- 교육 관련 수요자와 공급자 중간에 공적인 매개체(플랫폼)에 대한 수요가 도출됨. 이를테면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강의활동을 할 경우 정기 교육 외에도 소규모 온라인 강의 등 상시 교육을 할 수 있어 교육 시간 및 범위를 확대할 수 있음.
- 또한 플랫폼 상에 강사풀을 공개 운영할 경우 수요자 입장에서는 커리큘럼에 맞는 강사를 섭외할 수 있으며 공급자 입장에서는 강사들의 교육 현장 진출이 용이하다는 장점을 기대할 수 있음.

3) 여성 대표성 제고 방안 모색

- 4차산업혁명 시대에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여성리더십이 더욱 중요한 역량으로 대두됨.
- 여성들이 각 분야에서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동등하게 일하기 위해서는 대표성 제고를 위한 리더십 개발 지원 및 역량강화 방안 모색이 이뤄져야 함.
- 또한 울산형 뉴딜에서 창출될 수 있는 일자리는 '돌봄'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나타남. 그 동안 '돌봄'과 관련된 노동은 여성들이 주로 하고, 진입장벽이 낮아 누구나 할 수 있는 편하된 노동으로 치부되어 옴.
- 여성의 대표성 제고를 위해서는 여성 노동에 대한 정당한 가치평가와 사회적 인정이 뒷받침 되어야 함. 이에 일자리에 대한 재점검 및 정당한 일자리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방안 모색이 필요함.

Content

I 서론

- 1. 연구 배경 및 목적 3
- 2. 연구 내용 및 방법 5
- 3. 연구의 기대효과 6

II 울산시 여성 고용 및 뉴딜정책 현황

- 1. 울산여성의 고용 실태 및 산업 동향 9
- 2. 울산형 뉴딜정책 현황 22

III 울산형 뉴딜과 여성 일자리

- 1. 뉴딜정책과 여성 일자리 29
- 2. 울산형 뉴딜에서의 여성 일자리 분야 32
- 3. 시사점 43

IV 울산형 뉴딜을 통한 여성 일자리 창출 관련 조사

1. 조사개요	47
2. 조사결과	49
3. 시사점	80

V 울산형 뉴딜을 통한 여성 일자리 정책과제

1. 정책방향	85
2. 정책과제	87
3. 핵심전략	92
참고문헌	94

〈표Ⅱ-1〉 울산시 경제활동인구와 경제활동참가율(2010-2020년)	9
〈표Ⅱ-2〉 울산시 연령대별 취업자 구성비	11
〈표Ⅱ-3〉 울산시 산업별 취업자 분포	12
〈표Ⅱ-4〉 울산시 연령대별 여성 상위 5개 산업	15
〈표Ⅱ-5〉 울산시 직업별 취업자 분포	16
〈표Ⅱ-6〉 울산시 연령대별 여성 상위 5개 직업	18
〈표Ⅱ-7〉 울산형 휴먼 뉴딜 추진사업 : 휴먼뉴딜	23
〈표Ⅱ-8〉 울산형 스마트 뉴딜 추진사업 : 스마트 뉴딜	24
〈표Ⅱ-9〉 울산형 그린 뉴딜 추진사업 : 그린 뉴딜	25
〈표Ⅲ-1〉 연도별 ICT산업 인력 현황	34
〈표Ⅲ-2〉 4대 주요 사회적경제기업 및 종사자 수	37
〈표Ⅲ-3〉 울산시 반려동물 관련 업종 현황(2020년)	41
〈표Ⅲ-4〉 울산형 뉴딜에서의 여성 일자리 창출 가능 분야	44
〈표Ⅳ-1〉 면접조사 개요	47
〈표Ⅳ-2〉 면접조사 대상	48
〈표Ⅳ-3〉 「울산형 마을뉴딜 추진」 사업 선정 결과	58
〈표Ⅳ-4〉 면접조사 결과	82

〈그림Ⅱ-1〉 울산시 경제활동인구와 경제활동참가율(2010-2020년) ……	10
〈그림Ⅱ-2〉 울산시 연령대별·산업별 취업자 비율(전체) ……	13
〈그림Ⅱ-3〉 울산시 연령대별·산업별 취업자 비율(여성) ……	14
〈그림Ⅱ-4〉 울산시 연령대별·직업별 취업자 비율(여성) ……	17
〈그림Ⅱ-5〉 울산시 경력단절 여성 규모 변화(2011-2020년) ……	19
〈그림Ⅱ-6〉 울산시 경력단절 여성 연령별 현황 ……	19
〈그림Ⅱ-7〉 울산시 경력단절 여성 교육정도별 현황 ……	20
〈그림Ⅱ-8〉 울산시 경력단절 여성의 경력단절 사유(2020년) ……	21
〈그림Ⅲ-1〉 코로나19시기 성별 취업자 및 실업자 변화 ……	29
〈그림Ⅲ-2〉 코로나19시기 경력단절 사유 ……	30
〈그림Ⅲ-3〉 정보통신업 연령별 임시·일용직 여성 비중 추이 ……	33
〈그림Ⅲ-4〉 지역별 반려가구 현황(전국) ……	39
〈그림Ⅲ-5〉 반려동물 산업 현황 ……	40
〈그림Ⅳ-1〉 「Anian City 반려친화도시」 추진 목표 ……	71
〈그림Ⅴ-1〉 울산형 뉴딜을 통한 여성 일자리 비전 및 추진방향 ……	85
〈그림Ⅴ-2〉 울산형 뉴딜에서의 여성 일자리 추진전략 : 사회적경제 분야 …	91



I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내용 및 방법
3. 연구의 기대효과

I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여성인력활용 필수적이거나, 울산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전국 최하위
 - 울산시는 저출산·고령화가 급속도로 이뤄지고 있으며, 노인인구는 2040년 32.6%(통계청, 2021)로 전망됨. 부족한 노동력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으로 여성인력의 활용은 필수불가결한 과제이나,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46.8%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함.

- 코로나19로 울산여성의 고용 위축 보다 심각
 - 특히, 2020년 2월부터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됨에 따라 고용위축이 일어났으며, 울산시 여성의 고용률은 44.7%(통계청, 2020)로 특·광역시 대비 가장 낮은 수준의 상황을 보여 위기에 보다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울산지역 여성은 임신과 출산의 시기인 30대여성의 경력단절 현상이 매우 심각하며,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이 지속적으로 증가(통계청, 2021)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 이처럼 여성은 남성에 비해 불안정한 고용상태, 하향취업 및 재취업의 어려움, 실업과 취업을 반복하는 고용의 질과 안정성이 낮은 특성(유아랑, 2020)을 가지고 있음.

- 여성의 특성을 반영한 일자리 체질 개선 필요
 - 그 동안 경력단절 여성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자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었으나,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돌봄을 주로 담당해오던 여성들의 삶이 위협에 처해있음.
 - 기존의 일자리에서 여성이 노동을 지속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이들의 특성을 반영한 일자리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울산의 제조업 중심의 산업에서 4차산업 혁명에 대처할 일자리 방안 모색 급선무**
 - 특히, 울산의 산업구조는 제조업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제조업은 4차산업 혁명 기술 도입에 따라 가장 큰 영향(김문연 외, 2017)을 받게 됨.
 - 이에, 변화하는 산업의 흐름에 따라 일자리의 변화를 포착하고, 미래의 일자리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음.

- **‘울산형 뉴딜’에서 일자리 창출 방안 모색**
 - 울산시는 4차산업 혁명, 코로나19 위기 극복뿐만 아니라 코로나 이후 시대 대비와 도약을 위해 ‘울산형 뉴딜’을 전국 최초로 발표하였음.
 -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경제생활 기반이 붕괴되어 일자리가 크게 감소하는 등 경제·사회 전반의 활동축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언택트 영역으로 확대되어 많은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됨.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위기 극복 및 중·장기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는 울산형 뉴딜은 전 산업분야에서의 사업이 추진되어 대규모 일자리창출 효과가 기대되며, 시대의 흐름에 적합한 각 분야별로 지속가능한 지역 내 여성 일자리 창출 방안 모색을 하고자 함.

- 이에 본 연구는 4차산업혁명, 코로나19 등 미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울산형 뉴딜’을 통한 일자리 감소 문제 완화 및 동시에 새로운 영역에서의 양질의 여성 일자리가 창출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따라서 울산형 뉴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현황을 분석하고, 향후 울산형 뉴딜을 이끌 여성의 일자리 창출 및 확대를 위한 정책수립 방안을 모색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음.

- 이러한 연구를 통해 울산형 뉴딜에서의 여성 일자리 관련 기초자료를 생성하고, 여성친화적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활성화 방향 등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2. 연구 내용 및 방법

1) 문헌연구

- 뉴딜정책과 여성 일자리의 관계, 여성의 특성을 반영한 지속가능한 일자리 등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위하여 문헌연구를 실시함.
- 관련 연구보고서, 국내·외 학술논문, 정부간행물 등을 분석하여 본 연구의 이론적 근거를 제시함.

2) 통계 분석

- 울산시 여성 고용 실태 분석(연령별, 산업별, 직종별 취업자 분포 등)에 관한 기 통계자료에 대한 분석을 실시함.
- 관련 통계는 대외적으로 배포되어 있는 통계를 기본으로 하되, 각 기관의 협력을 통해 얻어진 통계자료에 대한 검토를 추가함.

3) 전문가 자문

- 연구방향 및 쟁점, 연구 결과 도출 방향 및 제언 등에 있어 전문가 자문을 활용함.

4) 면접조사

- 울산형 뉴딜 현황, 사업 추진 시 문제 및 한계점, 요구 및 애로사항, 사업과 연계된 일자리 분야, 일자리 및 취·창업으로 연결되기 위한 필요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해 면접조사를 실시하고자 함.
- 울산형 뉴딜(디지털경제, 사회적경제, 반려동물산업 분야)의 정책전문가(담당공무원), 학계 및 현장 전문가, 사업 참여자, 취·창업자 등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함.

3. 연구의 기대효과

- 울산형 뉴딜을 통한 여성 일자리 창출 및 취·창업 관련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
- 울산지역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통한 울산형 뉴딜의 성공적 추진 및 도시 경쟁력 제고



II

울산시 여성 고용 및 뉴딜정책 현황

1. 울산여성의 고용 실태 및 산업 동향
2. 울산형 뉴딜 현황

1. 울산여성의 고용 실태 및 산업 동향

1) 울산시 여성의 경제활동 현황

- 울산시 경제활동인구를 살펴보면, 2010년 542천명에서 점점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2018년도부터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며 2020년 585천명으로 나타남. 그 중 여성의 경제활동인구는 2015년 이후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지만,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위기로 2020년 221천명임.
- 울산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20년 45.9%로 남성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2015년부터 점차 증가추세를 보이면서 2019년 48.6%까지 높아졌음. 2020년은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위기로 1.8%p 감소한 46.8%를 기록함.
- 울산시 여성의 고용률을 살펴보면, 2010년에는 44.5%를 기록하고 매해 증감하였으나, 2015년 이후 점차 증가추세를 보였음.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위기로 여성의 고용률은 2019년 46.8%에서 2020년 44.7%로 2.1%p 감소한 것으로 보이나 남성은 70.9%에서 71.0%로 0.1%p 증가하였음.
- 울산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및 고용률은 남성 대비 현저히 낮음.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울산시 경제활동에 영향을 받았으나 그 중 여성이 남성에 비해 더 많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표 II-1〉 울산시 경제활동인구와 경제활동참가율(2010-2020년)

(단위 : 천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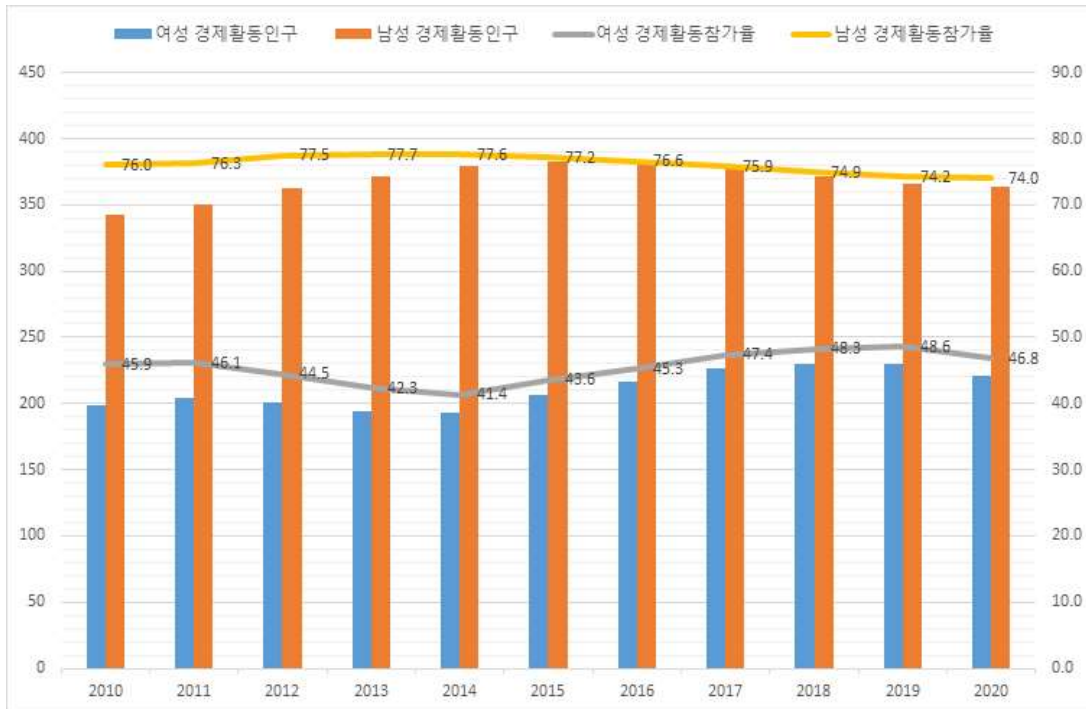
구 분	15세 이상 인구			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계	여성	남성	계	여성	남성	계	여성	남성	계	여성	남성
2010	886	435	451	542	199	343	61.2	45.9	76.0	59.1	44.5	73.2
2011	902	443	459	555	204	350	61.4	46.1	76.3	59.8	45.0	74.0
2012	920	451	469	564	201	363	61.3	44.5	77.5	59.8	43.1	75.8
2013	938	459	478	566	194	372	60.3	42.3	77.7	59.0	41.3	76.1
2014	955	467	488	572	193	379	59.9	41.4	77.6	58.3	40.2	75.5
2015	970	474	496	590	207	383	60.8	43.6	77.2	59.0	42.2	75.1
2016	976	477	499	599	216	382	61.3	45.3	76.6	59.0	44.0	73.3
2017	976	478	499	605	226	379	61.9	47.4	75.9	59.8	46.0	73.0
2018	973	476	497	602	230	372	61.8	48.3	74.9	59.0	46.3	71.2
2019	967	474	493	596	230	366	61.7	48.6	74.2	59.1	46.8	70.9
2020	964	472	492	585	221	364	60.7	46.8	74.0	58.1	44.7	71.0

주 : 15세이상 인구 중 군인, 전투경찰, 공익근무요원, 형이 확정된 교도소 수감자 등은 제외됨.

자료 : 통계청(2020), 「경제활동인구조사」 2010-2020

〈그림 II-1〉 울산시 경제활동인구와 경제활동참가율(2010-2020년)

(단위 : 천명, %)



주 : 15세이상인구 중 군인, 전투경찰, 공익근무요원, 형이 확정된 교도소 수감자 등은 제외됨.

자료 : 통계청(2020), 「경제활동인구조사」 2010-2020

2) 여성취업자 현황

(1) 전체 취업자 분포

- 연령대별 취업자 구성비를 봤을 때, 2020년 1/2 기준으로 50~59세가 145천명으로 가장 많은 분포를 나타냈으며, 다음으로 40~49세(141천명), 30~39세(118천명), 20~29세(63천명), 60세 이상(83천명), 15~19세(2천명) 순으로 나타남.
- 여성의 경우에도 50~59세가 52천명으로 가장 많은 분포를 나타냈으며 다음으로 40~49세(50천명), 30~39세(39천명)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남성의 경우에도 50~59세가 93천명으로 가장 많은 분포를 나타내고 있으며, 다음으로 40~49세(91천명), 30~39세(79천명)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II-2〉 울산시 연령대별 취업자 구성비

(단위 : 천명)

구 분		취업자수	15~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이상
전체	2020 1/2	552	2	63	118	141	145	83
	2019 1/2	569	2	71	123	148	152	73
	2018 1/2	571	3	76	127	149	149	67
	2017 1/2	583	4	81	131	156	145	66
	2016 1/2	574	4	75	125	160	142	67
여성	2020 1/2	206	1	30	39	50	52	33
	2019 1/2	221	1	34	41	57	58	29
	2018 1/2	217	2	36	44	56	54	24
	2017 1/2	218	2	36	44	61	53	23
	2016 1/2	207	1	36	37	59	50	24
남성	2020 1/2	346	1	33	79	91	93	50
	2019 1/2	348	1	36	81	92	94	44
	2018 1/2	354	1	39	83	93	95	43
	2017 1/2	365	2	44	87	95	92	44
	2016 1/2	366	3	39	88	101	93	43

자료 : 통계청(2020), 「지역별고용조사」 각 년도 반기
 문항별 결과는 백분율(%)로 산출되며, 결과 값은 소수점 두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된 값이 제시되기 때문에 백분율
 합산 시 라운딩에러(rounding error)가 나타날 수 있음.

(2) 산업별 취업자 분포

- 산업별 취업자 분포를 봤을 때, 전체 548천명 중 제조업이 160천명(29.2%)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도매 및 소매업 (55천명, 10.0%), 숙박 및 음식점업 (50천명, 9.1%) 순으로 많았음.
- 여성 취업자 205천명 중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이 39천명(19.0%)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숙박 및 음식점업(34천명, 16.6%), 도매 및 소매업 (28천명, 13.7%) 순으로 많았음.
- 남성 취업자 344천명 중 제조업이 142천명(41.3%)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건설업(32천명, 9.3%), 운수업(30천명, 8.7%) 순으로 많았음.

〈표 II-3〉 울산시 산업별 취업자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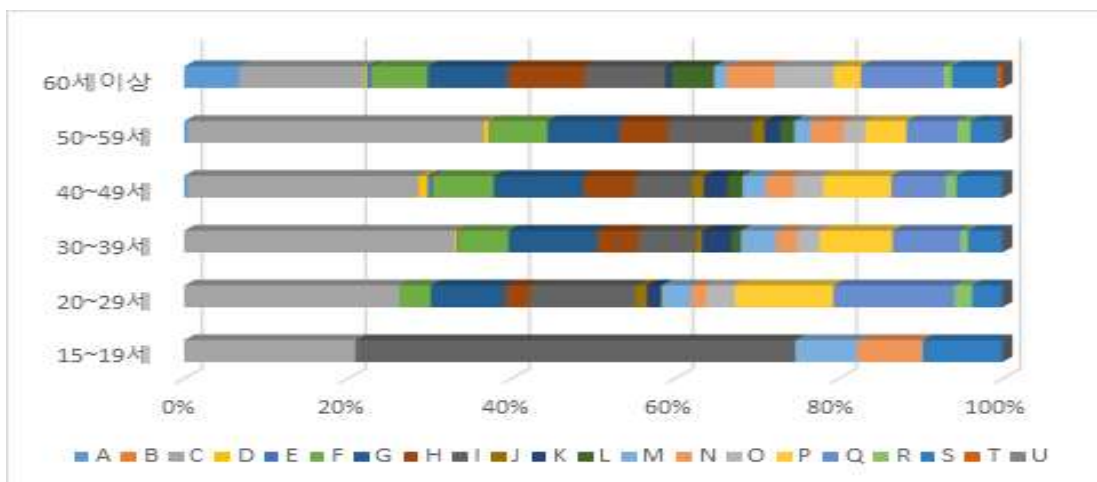
(단위 : 천명, %)

구 분	전체		여성		남성	
	취업자	비율	취업자	비율	취업자	비율
전체	548	100.0	205	100.0	344	100.0
농업, 임업 및 어업	7	1.3	2	1.0	5	1.5
광업	0	0.0	0	0.0	0	0.0
제조업	160	29.2	18	8.8	142	41.3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3	0.5	0	0.0	2	0.6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2	0.4	0	0.0	1	0.3
건설업	36	6.6	4	2.0	32	9.3
도매 및 소매업	55	10.0	28	13.7	27	7.9
운수업	33	6.0	3	1.5	30	8.7
숙박 및 음식점업	50	9.1	34	16.6	16	4.7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6	1.1	1	0.5	5	1.5
금융 및 보험업	13	2.4	8	3.9	5	1.5
부동산업 및 임대업	11	2.0	4	2.0	7	2.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6	2.9	4	2.0	12	3.5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20	3.6	7	3.4	12	3.5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20	3.6	11	5.4	10	2.9
교육 서비스업	40	7.3	25	12.2	14	4.1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46	8.4	39	19.0	7	2.0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8	1.5	4	2.0	4	1.2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25	4.6	12	5.9	13	3.8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1	0.2	1	0.5	0	0.0
국제 및 외국기관	0	0.0	0	0.0	0	0.0

자료 : 통계청(2020 1/2), 「지역별 고용조사」 원자료분석
 문항별 결과는 백분율(%)로 산출되며, 결과 값은 소수점 두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된 값이 제시되기 때문에 백분율
 합산 시 라운딩에러(rounding error)가 나타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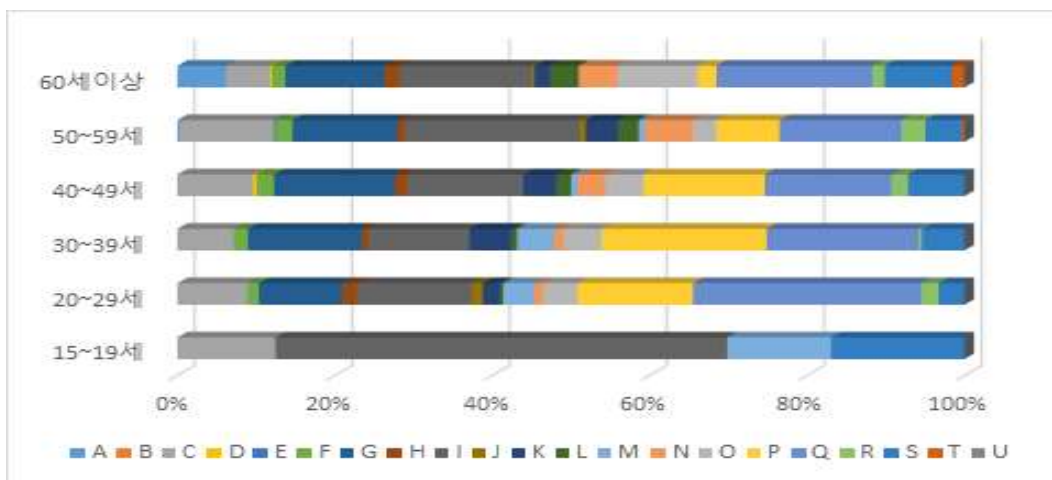
- 연령대별·산업별 취업자 비율(전체)을 보면 20~29세는 제조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순으로 많은 분포를 나타내고 있음. 30~39세는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교육 서비스업 순이며, 40~49세는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교육 서비스업 순으로 나타남.
- 50~59세는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도매 및 소매업 순이며, 60세 이상은 제조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도매 및 소매업 순임. 15~19세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제조업이 가장 많은 분포를 차지하고 있음.
- 연령대별·산업별 취업자 비율(여성)을 보면 20~29세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순으로 많은 분포를 나타내고 있으며, 30~39세는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도매 및 소매업 순으로 나타남. 40~49세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순이며, 50~59세는 숙박 및 음식점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도매 및 소매업 순임. 60세 이상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도매 및 소매업 순으로 나타남.
- 연령대별·산업별 취업자 비율(남성)을 보면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순으로 많은 분포를 나타내고 있음. 30~39세는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건설업 순이며, 40~49세는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순임. 50~59세는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순이며, 60세 이상은 제조업, 운수업, 건설업 순으로 나타났음. 15~19세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제조업이 가장 많은 분포를 차지하고 있음.

〈그림 II-2〉 울산시 연령대별·산업별 취업자 비율(전체)



주 : A 농업, 임업 및 어업 B 광업 C 제조업 D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E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F 건설업 G 도매 및 소매업 H 운수업
 I 숙박 및 음식점업 J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K 금융 및 보험업
 L 부동산업 및 임대업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O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P 교육 서비스업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T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U 국제 및 외국기관
 자료 : 통계청(2020 1/2), 「지역별 고용조사」 원자료분석

〈그림 II-3〉 울산시 연령대별 · 산업별 취업자 비율(여성)



주 : 그림 III-2와 동일 분류
 자료 : 통계청(2020 1/2), 「지역별 고용조사」 원자료분석

- 연령대별 여성 상위 5개 산업을 보면, 20~29세, 40~49세, 60세 이상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이 가장 많으며, 30~39세는 교육 서비스업, 50~59세는 숙박 및 음식점업이 가장 많았음.

〈표 II-4〉 울산시 연령대별 여성 상위 5개 산업

(단위 : 천명)

구분	1	2	3	4	5
20~29세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8.6)	교육 서비스업 (4.3)	숙박 및 음식점업 (4.3)	도매 및 소매업 (3.1)	제조업 (2.6)
30~39세	교육 서비스업 (8.1)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7.4)	도매 및 소매업 (5.6)	숙박 및 음식점업 (5.0)	제조업 (2.8)
40~49세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8.1)	교육 서비스업 (7.7)	도매 및 소매업 (7.7)	숙박 및 음식점업 (7.4)	제조업 (4.8)
50~59세	숙박 및 음식점업 (11.6)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8.1)	도매 및 소매업 (6.9)	제조업 (6.2)	교육 서비스업 (4.2)
60세 이상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6.6)	숙박 및 음식점업 (5.6)	도매 및 소매업 (4.2)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3.4)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2.8)

(3) 직업별 취업자 분포

- 직업별 취업자 분포를 살펴보면, 전체 취업자 571천명 중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가 107천명(18.7%)로 가장 많았으며 사무종사자가 103천명(18.0%),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가 87천명(15.2%)임.
- 여성 취업자 222천명 중 서비스 종사자가 52천명(23.4%)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47천명, 21.2%), 사무종사자(42천명, 18.9%) 순으로 많았음.
- 남성 취업자 350천명 중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가 98천명(28.0%)으로 가장 많았으며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가 70천명(20.0%)이고, 사무종사자가 60천명(17.1%)임.

〈표 II-5〉 울산시 직업별 취업자 분포

(단위 : 천명, %)

구 분	전체		여성		남성	
	취업자	비율	취업자	비율	취업자	비율
전체	571	100.0	222	100.0	350	100.0
관리자	4	0.7	0	0	4	1.1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87	15.2	47	21.2	40	11.4
사무종사자	103	18.0	42	18.9	60	17.1
서비스 종사자	69	12.1	52	23.4	17	4.9
판매 종사자	51	8.9	31	14.0	21	6.0
농림어업숙련 종사자	8	1.4	3	1.4	5	1.4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	77	13.5	7	3.2	70	20.0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107	18.7	9	4.1	98	28.0
단순노무종사자	66	11.6	30	13.5	35	10.0

자료 : 통계청(2020 1/2), 「지역별 고용조사」 원자료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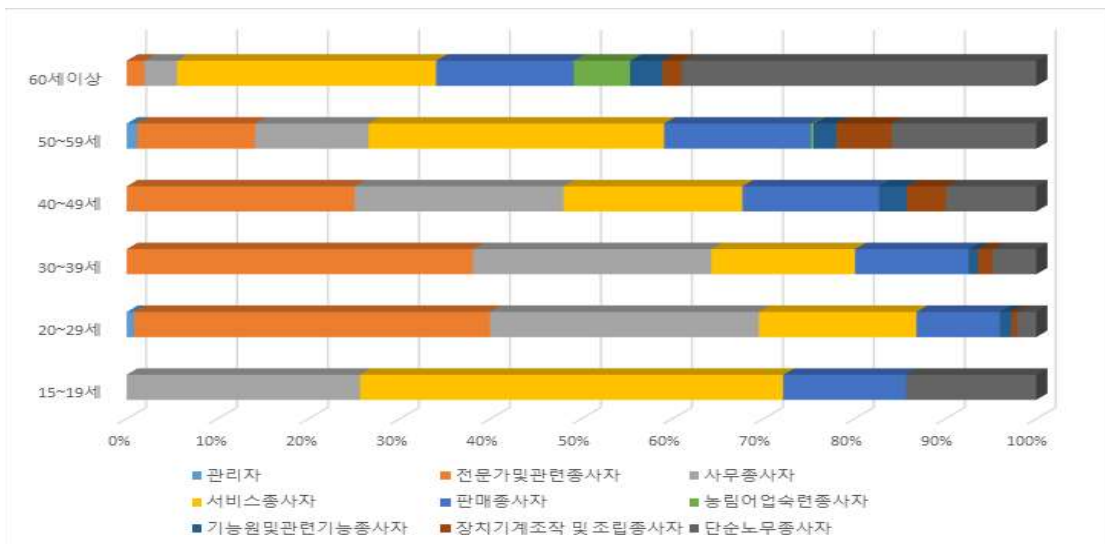
문항별 결과는 백분율(%)로 산출되며, 결과 값은 소수점 두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된 값이 제시되기 때문에 백분율 합산 시 라운딩에러(rounding error)가 나타날 수 있음.

- 연령대별· 직업별 취업자 비율(전체)을 보면, 20~29세는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가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사무종사자, 서비스종사자 순임. 30~39세는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사무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순이며, 40~49세는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사무종사자,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순임. 50~59세는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 사무종사자 순이며, 60세 이상은 단순노무종사자,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서비스종사자 순임.

- 연령대별·직업별 취업자 비율(여성)을 보면, 20~29, 30~39세, 40~49세는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사무종사자, 서비스종사자 순으로 많은 분포를 보이고 있음. 50~59세는 서비스종사자, 판매종사자, 단순노무종사자 순이며, 60세 이상은 단순노무종사자, 서비스종사자, 판매종사자 순으로 나타남.
- 연령대별·직업별 취업자 비율(남성)을 보면, 20~29세는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가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서비스종사자 순임. 30~39세는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사무종사자 순이며 40~49세, 50~59세는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 사무종사자 순임. 60세 이상은 단순노무종사자,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 순으로 나타남.

〈그림 II-4〉 울산시 연령대별·직업별 취업자 비율(여성)



자료 : 통계청(2020 1/2), 「지역별 고용조사」 원자료분석

- 연령대별 여성 상위 5개 직업을 보면, 20~29세, 30~39세, 40~49세는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가 가장 많음. 50~59세는 서비스종사자, 60세 이상은 단순 노무종사자가 가장 많음.

〈표Ⅱ-6〉 울산시 연령대별 여성 상위 5개 직업

(단위 : 천명)

구분	1	2	3	4	5
20~29세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11.6)	사무종사자 (8.8)	서비스종사자 (5.1)	판매종사자 (2.7)	단순노무종사자 (0.6)
30~39세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14.7)	사무종사자 (10.1)	서비스종사자 (6.1)	판매종사자 (4.8)	단순노무종사자 (1.9)
40~49세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12.6)	사무종사자 (11.6)	서비스종사자 (9.9)	판매종사자 (7.6)	단순노무종사자 (5.0)
50~59세	서비스종사자 (17.0)	판매종사자 (8.5)	단순노무종사자 (8.3)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6.8)	사무종사자 (6.5)
60세 이상	단순노무종사자 (13.0)	서비스종사자 (9.5)	판매종사자 (5.1)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2.1)	사무종사자 (1.2)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울산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및 고용률은 남성 대비 현저히 낮음. 이를 통해 일자리를 논함에 있어, 여성이보다 취약한 상황임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음.
- 또한 울산은 제조업 중심의 산업이나, 여성은 사회복지서비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도매 및 소매업 등의 분포가 높게 나타남. 향후 제조업과 ICT 분야와의 융합에 따른 고용시장의 변화가 예측되나, 여성은 상대적으로 주력산업에서 배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사료됨.

3) 경력단절 여성 현황

- 울산의 2011년~2020년까지 15세-54세 기혼여성 중 경력단절 여성 규모의 변화를 살펴보면, 2011년 24.2%에서 점점 증가하여 2014년 35.8%로 가장 높았음. 그 이후 점차 감소하여 2020년 20.8%임.

〈그림 II-5〉 울산시 경력단절 여성 규모 변화(2011-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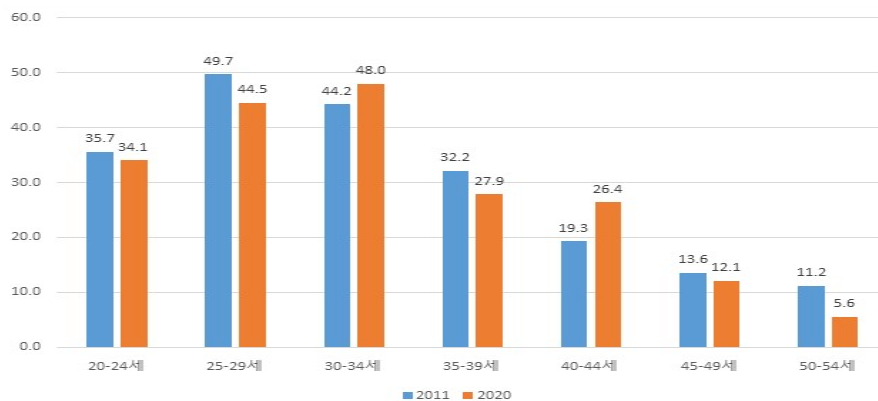


- 주 : 1) 2014년 조사부터 경력단절여성 범위에 '가족돌봄' 사유가 추가되어 시계열 비교 시 주의가 필요함.
 - 2) 경력단절여성 : 비취업자 중 15-54세 기혼여성인면서 결혼, 임신 및 출산, 자녀교육(초등학생), 가족돌봄 사유로 직장을 그만 둔 여성.
 - 3) 경력단절여성 비율 1 : 경력단절여성 / 15-54세 기혼여성 × 100.
 - 4) 경력단절여성 비율 2 : 경력단절여성 / 15-54세 비취업 기혼여성 × 100.
- 자료 : 통계청(2021), 「지역별고용조사」(부가조사), 성인지통계시스템.

- 울산시 경력단절 여성 연령별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은 25~29세가 49.7%로 가장 많았으며 2020년은 30~34세가 48.0%로 가장 많았음.

〈그림 II-6〉 울산시 경력단절 여성 연령별 현황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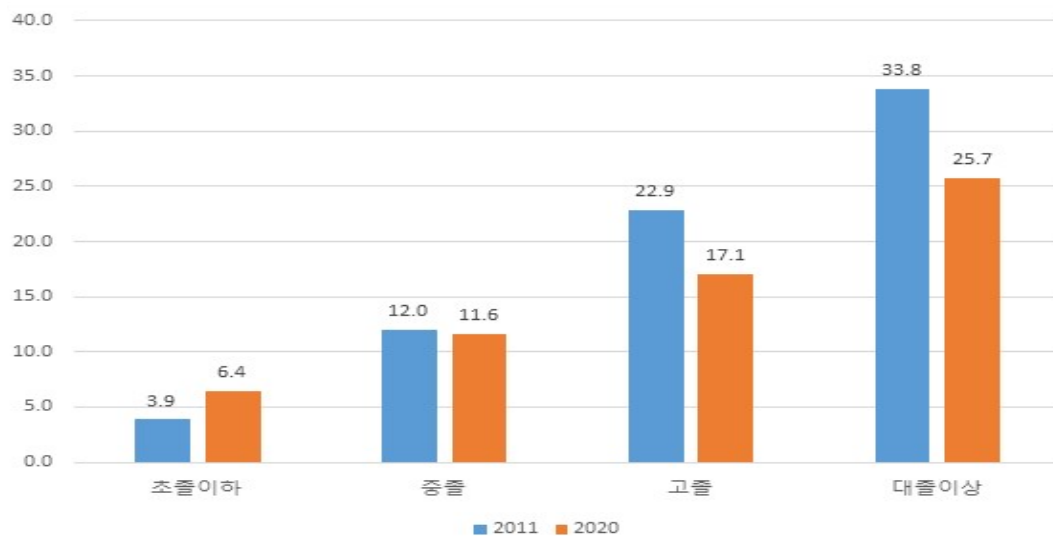


- 주 : 1) 2014년 조사부터 경력단절여성 범위에 '가족돌봄' 사유가 추가되어 시계열 비교 시 주의가 필요함.
 - 2) 경력단절여성 : 비취업자 중 15-54세 기혼여성인면서 결혼, 임신 및 출산, 자녀교육(초등학생), 가족돌봄 사유로 직장을 그만 둔 여성
 - 3) 경력단절여성 비율 1 : 경력단절여성 / 15-54세 기혼여성 × 100.
 - 4) 경력단절여성 비율 2 : 경력단절여성 / 15-54세 비취업 기혼여성 × 100.
- 자료 : 통계청(2021), 「지역별고용조사」(부가조사), 성인지통계시스템.

- 울산시 경력단절 여성 교육정도별 현황을 살펴보면, 모두 대졸이상(2011년 33.8%, 2020년 25.7%)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고졸(2011년 22.9%, 2020년 17.1%)이 많았음.

〈그림 II-7〉 울산시 경력단절 여성 교육정도별 현황

(단위 : %)



- 주 : 1) 2014년 조사부터 경력단절여성 범위에 '가족돌봄' 사유가 추가되어 시계열 비교 시 주의가 필요함.
 - 2) 경력단절여성 : 비취업자 중 15-54세 기혼여성이면서 결혼, 임신 및 출산, 자녀교육(초등학생), 가족돌봄 사유로 직장을 그만 둔 여성.
 - 3) 경력단절여성 비율 1 : 경력단절여성 / 15-54세 기혼여성 x 100.
 - 4) 경력단절여성 비율 2 : 경력단절여성 / 15-54세 비취업 기혼여성 x 100.
- 자료 : 통계청(2021), 「지역별고용조사」(부가조사), 성인지통계시스템.

- 울산시 경력단절 여성의 경력단절 사유(2020)를 살펴보면, '결혼준비'가 가장 높았으나 2015년 대비 점차 감소하여 2020년은 33.8%로 2순위로 내려갔으며, '육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0년 35.0%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음.
- 이처럼 여성이 경제활동을 지속함에 있어, 결혼과 육아는 주요한 요인으로 볼 수 있음. 또한 과거와 달리 결혼과 동시에 경제활동을 그만두는 것이 아닌, 출산과 양육으로 인해 돌봄 문제가 발생하면서 경력을 유지하는 것이 다소 어려운 것으로 유추할 수 있음.

〈그림 II-8〉 울산시 경력단절 여성의 경력단절 사유(2020년)

(단위 : %)



- 주 : 1) 2014년 조사부터 경력단절여성 범위에 '가족돌봄' 사유가 추가되어 시계열 비교 시 주의가 필요함.
 2) 경력단절여성 : 비취업자 중 15-54세 기혼여성이면서 결혼, 임신 및 출산, 자녀교육(초등학생), 가족돌봄 사유로 직장을 그만 둔 여성.
 3) 경력단절여성 비율 1 : 경력단절여성 / 15-54세 기혼여성 × 100.
 4) 경력단절여성 비율 2 : 경력단절여성 / 15-54세 비취업 기혼여성 × 100.
 자료 : 통계청(2021), 「지역별고용조사」(부가조사), 성인지통계시스템.

2. 울산형 뉴딜 현황

-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울산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사회·경제적 생태계 변화에 선제적인 대응을 하고자 ‘울산형 뉴딜’을 발표함.
- 2030년까지 총 58조원을 투입하여 최대 57만 명의 고용창출과 48조원 이상의 생산유발효과를 예측하고 있음.
- ‘울산형 뉴딜’은 일자리창출을 위해 전 산업에서 다양한 사업 추진을 계획하고 있어, 코로나19로 보다 더 취약해진 여성 일자리의 활성화 방안 뿐 아니라 새롭게 시작되는 분야에서의 다양한 일자리 창출이 예측됨.

1) 기본방향

- 목표
 - 「기간은 당기고, 예산은 줄이고, 일자리는 늘리고, 행복은 높이고」
- 추진전략
 -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일자리 창출형 공공 민투사업 조기 착수
 - 지역기업 참여 보장과 지역민 우선 고용
 - 도시공간, 산업인프라 전반의 스마트·디지털 체계 선제적 전환
 - 국·시비 확보, 적극적 민자유치를 통한 사업의 실행력 확보

2) 추진과제

- ‘울산형 뉴딜’은 휴먼·스마트·그린 뉴딜사업 등 3대 분야로 구분됨.
- ‘휴먼 뉴딜’은 시민생활의 편의성, 체감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정책사업으로 신속한 재정 투입, 사업기간 단축으로 경기 부양효과 극대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스마트 뉴딜’은 사람이 찾아오는 살고 싶은 매력적인 도시 공간으로 탈바꿈하며 행정절차를 신속히 지원하고, 지역업체 참여 비율을 최대한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그린 뉴딜’은 친환경 에너지 산업 중심의 미래 신성장 산업 기반을 구축하고, 울산의 산업구조를 디지털 경제체제에 부합하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3) 추진사업

- 울산형 뉴딜은 휴먼·스마트·그린 뉴딜사업 등 3대 분야 30개 과제로 나뉘짐.
- 울산형 뉴딜의 30개 과제 중 ‘시민 안전 스마트 시티 통합 플랫폼 고도화’와 ‘미래형 스마트시티 선도지구 조성’ 등 2개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28개 사업은 추진 중임(2021년 6월 기준). 한편, 휴먼 뉴딜사업은 8건, 스마트 뉴딜사업은 12건, 그린 뉴딜사업은 10건으로 구성되어 있음.

〈표 II-7〉 울산형 휴먼 뉴딜 추진사업 : 휴먼뉴딜

구 분	사업명	추진방향 및 사업내용
휴먼 뉴딜	스마트 클린 워터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초 2030년까지의 정비계획을 7년 앞당겨 2023년까지 조기 완료 • 3년간 1,000억원 투입, 일자리 창출과 지역 건설업체 부양 등 경제활력 제고
	성암소각장 1·2호기 재건설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구연한 경과된 노후 소각로 대체시설 확보 • 가연성 생활폐기물 전량 처리 가능토록 소각용량 증설 • 최적 연소가스 처리설비적용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 최소화 • 폐기물 활용한 에너지 사업추진으로 시 세입증대
	5G 시대 울산시 디지털 전환 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편리하고 안전한 스마트시티 구축 • DNA 기반 산업·문화관광 경쟁력 강화 • 시민 맞춤형 선제적 디지털 공공서비스 시스템 구축
	문화관광생활 등 반려친화 인프라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려동물 문화센터 운영 활성화로 반려동물 친화도시로 부각 • 반려동물 직업훈련학교 운영 및 관련산업 활성화로 신규 일자리 창출 • 반려동물 박람회 개최 및 스포츠대회 활성화로 반려동물 문화·관광 산업 중심도시로 도약
	울산형 마을뉴딜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의 자발적 참여 확대로 사회적 가치공유 • 지역사회 사회관계망 형성으로 위기 회복력 제고 • 마을별 특성을 고려한 사업 추진
	울산형 데이터 댐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울산형 공공데이터 댐 구축 • 데이터 활용 기반조성 • 데이터기반 서비스 확대
	울산형 복지·건강 뉴딜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협력을 통한 공공보건의료 역할 강화와 전문화 추진 • 산업수도 위상에 걸맞은 의료 인프라 구축 및 의료인 확충 • 코로나-19 재확산 방지 및 신종감염병 대응 체계 구축
	신혼부부 주거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30 울산 허니문 DREAM 사업 추진 -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 : 임대료 및 관리비 지원

출처 : 울산광역시청 홈페이지

〈표 II-8〉 울산형 스마트 뉴딜 추진사업 : 스마트 뉴딜

구 분	사업명	추진방향 및 사업내용
스마트 뉴딜	안전하고 행복한 산업단지 르네상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단지 기능 다변화에 따라 공공청사, 공공임대주택, 청년 창업공간, 직장어린이집 등 공공투자사업 추진 • 도시계획적 대응을 통해 토지매입 재정부담없이 공공투자 시 유지 확충
	대규모 도로인프라 사업 조기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울산외곽순환도로 건설 사업기간 단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통한 투자유치 허브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산업 허브화를 통한 동북아 최대의 에너지 중심도시 육성
	하이테크밸리 일반산업단 2단계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차 전지, 첨단소재 등 미래 유망산업 육성 • 상반기 지정예정 「경제자유구역」 입지를 위한 산업시설 용지 공급
	자율주행 스마트도로 인프라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차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기술을 융합하는 첨단 스마트 도로 구축추진 • V2X 기반 커넥티드카 및 자율주행 등 첨단 스마트도로 기반 조성을 위한 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 실증사업 추진 • C-ITS 실증사업 시행을 통해 자율주행, V2X커넥티드카 등 미래교통 혁신의 기반을 조성
	시민안전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고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도시 안전망 서비스 구축 • 재난, 방범, 교통 등 분야별 CCTV 정보 연계로 긴급상황 발생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골든타임 확보
	미래형 스마트시티 선도지구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 도시관리체계 구축으로 편리하고 안전한 정주환경 제공 • 도시기발시설에 ICT기술 융합으로 일상이 행복한 주민 체감형 스마트도시 건설
	국가산업단지 지하배관 스마트 안전망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하배관 안전진단(1단계) → AI기반 지능화(2단계) → 통합안전관리센터(3단계)
	지상배관 인프라 구축으로 민간투자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유화학단지 지상 통합 파이프랙 6.3km (도로연장) 시범 구축
	도농복합 신성장 거점 '행복 타운'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울주군청 행정서비스 기능 강화 및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행복 타운 조성 • 울산농수산물도매시장과 울산형 농촌 융복합산업 혁신거점 조성
KTX 울산역 복합특화단지 개발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 연구, 교육, 주거, 기업지원을 통한 서울산권 신성장 거점 개발 • 산업구조 다변화에 따른 미래형 신성장 산업 육성 기반 구축 	
수소트램형 '울산 도시철도 동남권 광역철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철도 4개 노선중 2개 노선 우선 추진('24년 착공 '27년 개통 목표) • 광역철도 2개사업(울산-양산, 울산-부산) 정부 상우계획 반영 등 추진 • 공종별 분리 발주 등을 통해 지역업체 참여 확대 • 수소도시 이미지, 관련규정 등 종합분석 → 수소트램 도입 검토 	

출처 : 울산광역시청 홈페이지

〈표II-9〉 울산형 그린 뉴딜 추진사업 : 그린 뉴딜

구 분	사업명	추진방향 및 사업내용
그린 뉴딜	친환경 바이오플라스틱 산업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플라스틱 폐기물 처리 문제로 인한 사회환경적 문제인식 심화 • 세계적으로 강화되는 환경규제로 생분해성 바이오플라스틱 시장 확대 전망
	부유식 해상풍력산업 육성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유식 해상풍력 국산화 기술개발 연구 • 대규모 부유식 해상풍력 단지조성 • 부유식 해상풍력 클러스터 조성
	초소형 전기차 산업 클러스터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소형 전기차 국산화 기술개발 • 초소형 전기차산업 클러스터 조성
	오일·가스허브 북항 및 부곡용연지구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일·가스허브 북항, 부곡·용연지구 및 가스발전소 조기착수
	큰 평화(太和) 태화강 국가정원 프로젝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버드 아йд 가든 조성 • 울산정원복합단지 건립 • 다섯 계절의 정원 연출 • 국가정원 랜드마크 유치 • 도심 속 국가정원 확산
	원자력 및 원전해체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전해체 클러스터 조성 • 기업지원 및 유치 • R&D 및 전문인력양성
	그린도시를 향한 스마트 하수인프라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CT·AI 기반의 하수관리 스마트화를 통한 실시간 모니터링 및 효율적 하수관리 • ICT기반 지능형 하수처리장 확충으로 하수인프라 스마트화 및 하수처리비용 절감 • 지반침하, 악취발생 등 생활불편 해소 및 안전확보를 위한 체험형 노후하수관으로 정비
	디지털 인력양성 및 첨단산업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울산형 뉴딜 디지털 인력양성 프로젝트 (맞춤형 전략을 통한 디지털 인력양성 실현) • 울산형 뉴딜 디지털 첨단산업육성 프로젝트 (첨단산업육성을 통한 주력산업 고도화 실현)
	태화강역 수소 복합허브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환경 분야 '수소시범도시 → 수소타운 조성' • 미래교통 분야 '육상+해상+항공 교통 복합 허브' • 관광·문화 분야 '태화강 → 영남권으로 관광권 확대'
울산 산단 대개조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력 제조산업의 ECO 모빌리티 산업 전환 • 탄소중립 스마트 산업단지 운영 • Quality of Working Life 향상 	

출처 : 울산광역시청 홈페이지



III

울산형 뉴딜과 여성 일자리

1. 뉴딜정책과 여성 일자리
2. 울산형 뉴딜에서의 여성 일자리 분야
3. 시사점

1. 뉴딜정책과 여성 일자리

- 뉴딜정책은 미국 대공황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농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산업회복과 농업경제를 해결한 정책을 의미함.
- 뉴딜의 기본방향은 대공황에 따른 실업과 빈곤을 구제하는 일(Relief), 대공황 이전의 경제를 회복시키는 일(Recovery), 대공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혁하는 일(Reform)로 크게 세 가지로(강준형, 2020) 나뉨.
- 즉,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 토목사업 등과 같은 재정지출을 통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단순히 빈곤 구제와 경기회복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닌 실업문제 해소 및 제도개혁을 강조한 정책으로 볼 수 있음.
-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대공황 이후 전례 없는 경기침체에 직면하였으며,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뉴딜정책의 필요성이 다시금 대두되고 있음.
- 코로나 이후 경제활동인구의 변화를 살펴보면, 2020년 여성 취업자 수는 1,152만 3,000명으로 2019년(1,166만명) 대비 1.2%(13만7,000명)가 줄었음. 남성 취업자 수는 같은 기간 1,546만3,000명에서 1,538만1,000명으로 0.5%(82천명) 감소하는(통계청, 2021)등 2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

<그림 III-1> 코로나19시기 성별 취업자 및 실업자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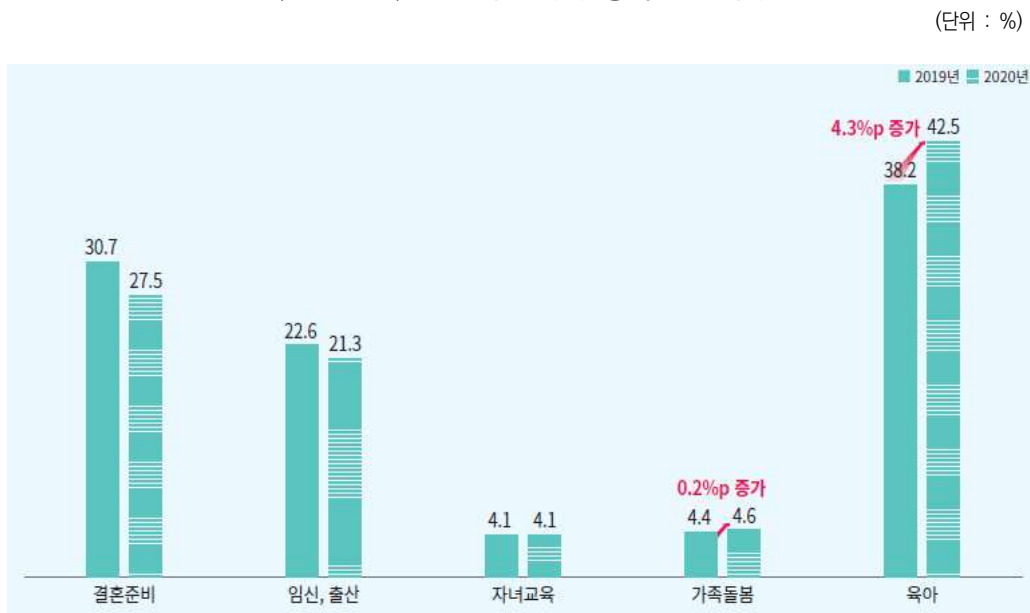
(단위 : 천명)



자료 : 통계청(2021), 「경제활동인구조사」

- 또한 여성 실업자는 2020년 484만명으로 2019년 대비 47만명이 늘었으며, 남성은 같은 기간 624만명에서 627만명으로 3천명이 줄어(통계청, 2021) 여성이 고용에 보다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 이처럼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충격이 여성에게 보다 큰 타격으로 다가 온 것은 대면 서비스산업에 종사하는 성별업종분리, 여성 일자리의 열악한 근로여건 등의 노동 시장 내 성별 격차가 주된 원인으로 분석(여성가족부, 2021)되고 있음.
- 이처럼 코로나19는 장기화로 인해 경제생활 기반이 붕괴되는 등 일자리가 크게 감소하고 있어 경제 위기와 고용 충격에 신속히 대처하고, 국민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
- 따라서 과거 뉴딜정책과 같은 맥락에서 지금의 경제위기를 극복함에 있어 일자리가 중심이 되어야 하며,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충격은 노동시장에서의 취약계층인 ‘여성’에게 보다 주목할 필요가 있음.

〈그림 Ⅲ-2〉 코로나19시기 경력단절 사유



자료 : 통계청(2021), 「지역별고용조사」

- 또한 코로나19 확산 전·후로 비교해보면, 휴교·휴원 상태가 장기화 되면서 돌봄 공백의 문제가 여성에게 전가되는 등 여성의 경력단절 원인이 ‘가족돌봄’과 ‘육아’가 상승하고 있음.

- 여전히 가족돌봄은 여성의 영역이자, 뭉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여성이 일을 포기하게 되는 등 코로나19가 야기한 노동 위기는 남성보다 노동취약 계층인 여성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음.
- 여성은 노동시장에서 이미 불안정한 고용 지위(비정규직, 임시근로 등)에 처해(전기택 외, 2020).있으며, 대면서비스업종 위주에서 전문 기술기반 업종으로 여성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한 핵심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근본적인 여성 일자리 체질개선 및 점검이 필요한 시점임.
- 이에, 경제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인 ‘뉴딜정책’에서 지금까지 폄하된 여성일자리 영역을 바로 잡고 여성을 필요로 하고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뿐만 아니라 경제위기 측면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노동시장에서의 인력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양질의 노동력 확보를 위해 잠재적 노동자인 여성의 인력방안 모색은 필수적인 상황임.
- 따라서 일자리의 양적인 성장에 집중하는 것이 아닌,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충격이 노동시장에서 취약계층에서 더 크게 나타나고 있어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함.

2. 울산형 뉴딜에서의 여성 일자리 분야

-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경제·사회 전반의 구조적 변화가 초래될 것이며, 이에 대응하고자 울산시는 코로나19 위기 극복 및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해 ‘울산형 뉴딜’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음.
- 즉, 경제·사회구조의 전환으로 노동시장은 변화가 일어날 것이며, 신기술·신산업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등 일자리의 형태가 다양해질 것으로 예측됨.
- 울산형 뉴딜사업에서 여성일자리 창출가능 분야에 대한 분석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2021년 6월 21일~30일까지 정책전문가(공무원)를 대상으로 사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음.
- 조사 결과, 직접 고용(채용) 보다는 한시적으로 이뤄지는 건설, 공사, 용역 등의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전기차, 원전해체 에너지 복합단지 조성, 산재공공병원 등 전문성 갖춰야 진입할 수 있는 분야로 즉각적 진입이 어려운 상황임.
- 이에 4차산업 등 변화에 따라 여성이 즉각적으로 진입하여 고용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를 우선적으로 살펴보고, 경제·사회구조의 전환으로 고용시장 변화에 대비하여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분야 등을 예측하면 다음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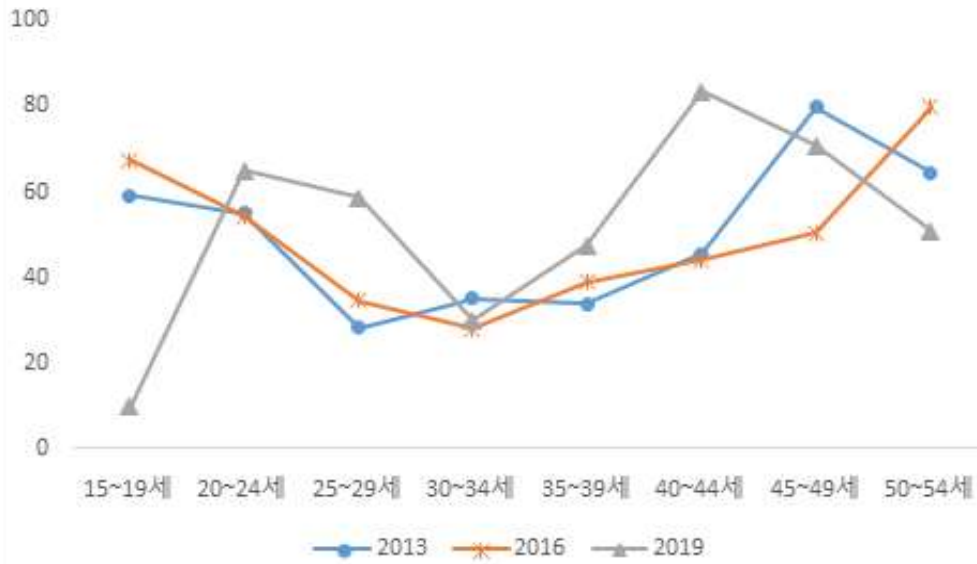
1) 디지털경제 분야

- 디지털 경제(Digital Economy)는 좁은 의미에서는 ICT(Internet & Communication Technology) 기술의 발전과 함께 새롭게 등장한 온라인 플랫폼과 플랫폼 기반 생산 활동(IMF, 2018; 박천웅, 2020 재인용)을 의미함.
- 즉, ICT를 전 산업분야에 융합함으로써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음.
-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발표한 ‘미래 일자리 보고서 2020’에 따르면, 데이터 분석, 콘텐츠 생산, 아동 및 노인 대상 돌봄 서비스, 인공지능(AI) 분야에서 9,700만개의 일자리가 새로 등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 이처럼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화 확산 및 디지털 전환 가속화가 이뤄지는 등 산업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이며, 특히 여성이 가장 많이 취업하고 있는 사무, 서비스직 등에서 일자리 감소가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 특히, ICT 분야의 연령대별 여성 취업자 비중은 타 산업 대비 낮으나, 여성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 다만, 여전히 임시·일용직의 비중이 높고 30대 중반을 기점으로 하락 후 다시 증가하는 U자형(최지은 외, 2020)을 보이고 있음.

〈그림 III-3〉 정보통신업 연령별 임시·일용직 여성 비중 추이

(단위 : %)



자료 : 통계청(2021), 「경제활동인구조사」

- 이는 취업상태를 유지하던 임금근로 여성이 출산 및 육아가사 등의 이유로 30대 중반에 실업상태 혹은 비경제활동 상태로 전환되는 등 경력단절이 있음을 의미함. 이에, 30대 중반 이후부터는 노동시장에 복귀하더라도 상용직이 아닌 임시·일용직과 같은 종사상 지위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일자리로 재취업(최지은 외, 2020)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즉, 4차산업혁명 시대에 따라 정보통신기술(ICT)산업은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융합을 통해 발전 및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새로운 산업 생태계에서의 노동환경 변화 여성의 고용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임.
- 특히, 울산지역은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등 제조업 분야 중심의 산업에 따라 여성이 노동시장에 진입 및 경력 유지를 함에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나, ICT와의 면밀한 융합에 따른 고용시장의 변화는 울산지역 여성에게는 새로운 기회로 작용될 수 있음.

- 또한 디지털경제에서 SW·ICT 분야에서 전문직의 비중이 높고 전문 직종에 대한 인력수요가 지속되고 있으나, 디지털 분야의 인재 및 진출은 여전히 부족함.
- 2013년 기준 전체 산업인력에서 ICT산업인력의 비율은 약 5.1%였으나, 이후 2014년부터 5.0%로 감소하기 시작해 2018년 4.7%로 ICT산업인력 비중이 줄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9)되고 있으며, 디지털경제 분야는 보다 확장 될 것으로 예측되며 여성인재 확보는 반드시 필요한 상황임.

〈표Ⅲ-1〉 연도별 ICT산업 인력 현황

(단위 : 천명, %)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전년대비 증감률	연평균 증감률
전체산업 인력(A)	19,173	19,900	20,899	21,259	21,627	22,235	2.8	3.0
ICT산업 인력(B)	976	992	1,015	1,011	1,023	1,039	1.6	1.3
비중(B/A)	5.1	5.0	4.9	4.8	4.7	4.7	-	-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19). ICT 인력동향실태조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산업 인력에 디지털콘텐츠 개발 및 제작업 종사자 미포함
 전체산업 내 ICT 산업 인력비중 = ICT산업 인력/ 전체산업 인력

- 실제로 ICT 분야에서는 기술적 지식을 갖춘 여성이라고 해도 경력 단절과 단절 이후 재진입이 어려워 L자형 취업유형이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과학, 기술, 공학, 수학(STEM) 분야에서 이 같은 현상이 심각함(강이수, 2018).
- 이는 전체 대학 졸업자 중 여성의 비중이 56%인데 비해 STE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ematics) 분야의 여성 대학 졸업자의 비중은 36% 정도에 불과하며, 실제 취업 시장으로 들어가면 여성의 비중은 25% 수준 (BCG, 2018; 지은희, 2019 재인용)인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디지털경제 분야는 고숙련 전문직뿐 아니라 대규모 저숙련 노동력이 요구되는 등 일자리 스펙트럼이 넓으며, 시간과 공간을 선택할 수 있어 여성의 일·생활(가정) 균형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어 여성친화적인 일자리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즉, 노동환경과 작업방식, 노동계약 및 노동의 질과 임금 등의 전반적인 변화가 이루어질 것임. 특히, 모바일 인터넷, AI, 사물 인터넷을 기반으로 디지털 플랫폼을 이용한 온디맨드 경제, 깃 이코노미(Gig Economy)의 확산으로 단기계약, 임시직, 파트타임 노동이 더욱 확산될 것임.
- 또한 해당 산업은 네트워크에 접속하면 어디서나 업무가 가능하므로 유연, 원격 근무가 확대되는 등 프로젝트 단위별로 작업하는 프리랜서 마켓이 커지게(강이수, 2018)되어 여성의 진입이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예측됨.
- 이에, 단기간에 이러한 변화가 기회 요인 보다는 일자리 상실이라는 위협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으나, 기술 산업의 성별 격차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앞으로 상황은 더 악화될 것이므로 관련하여 준비가 필요(강이수, 2018)함.

2) 사회적경제 분야

- 사회적경제는 단순히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대안적 경제로서 사회적경제의 가치와 역할을 새롭게 재평가 받고 있음(Seligman, 1992; 손영훈, 2014).
- 이처럼 연대와 협력이라는 가치로 공동체 문제 해결에 나서 포용사회를 이끌어 가듯, 뉴딜사업과 사회적경제의 지향점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음.
- 1990년대 말 IMF 이후 빈곤과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회적 일자리 주목하면서 개념이 도입(정형욱, 2016)되었으며,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취약계층의 고용비중이 높고 위기 시 복원력이 좋은 사회적경제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음(관계부처합동, 2020).
- 뉴딜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사람 중심의 경제’를 지향하는 사회적경제 방식이 경제활동의 핵심 원리(한겨레, 2020)가 돼야 하며, 이는 기존의 성장방식에서 벗어나 빈부격차·고용불안·고령화 등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음.
- 이처럼 사회적경제는 양극화 해소, 일자리 창출 등 공동이익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상호협력과 사회연대를 바탕으로 수행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을 의미(한경, 2021)함. 즉, 인간을 모든 관심의 중심에 놓고, 자본의 수익보다는 일자리를 중시하고 일자리를 통해 창출하는 사회적 연계를 중시(Patrick, 2000; 노대명, 2009 재인용)함.
- 이는 무한경쟁의 시장자본주의에 반대하며 그로 인한 폐해와 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적 경제로써 자본의 가치가 아니라 사람의 가치를 우선하는 경제(신명호, 2009)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음.
- 지난 4년간 사회적경제는 양적 성장세를 보이면서 취약계층 고용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함.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 기업·종사자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표Ⅲ-2〉 4대 주요 사회적경제기업 및 종사자 수

(단위 : 개, 명, %)

구분	'16년	'17년	'18년	'19년
기업 수 (전년비)	14,916	16,951 (13.6% ↑)	19,397 (14.4% ↑)	22,036 (13.6% ↑)
종사자 수 (전년비)	92,656	100,485 (8.4% ↑)	112,451 (11.9% ↑)	137,954 (22.7% ↑)

자료 : 관계부처합동(2021). 21년 사회적경제 정책방향

4대 주요 사회적경제기업은 협동조합(기재부), 사회적기업(고용부), 마을기업(행안부), 자활기업(복지부)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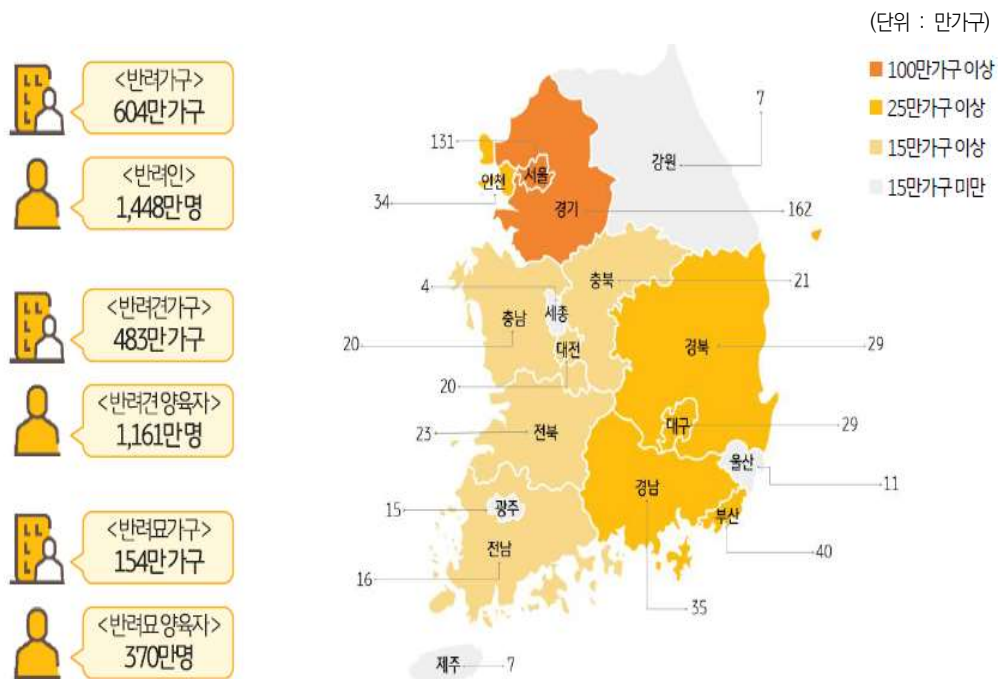
- 즉, 사회적경제는 사회적 가치에 기반을 두고 공동의 이익을 목적으로 생산, 소비, 분배가 이뤄지는 경제시스템으로 사회서비스의 질 개선,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지역 공동체 재생(회복) 등의 사회적 가치를 추구함과 동시에 경쟁과 효율 중심에서 벗어나 협력과 연대를 지향함으로써 불평등 문제를 해소(울산광역시, 2019)에 기여하고 있음.
- 특히, 사회적경제는 ‘여성친화성’에 주목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여성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는 시각(김명화 외, 2014)을 갖고 있음.
- 여성일자리와 관련된 사회적경제는 사회서비스 영역과 관련지어 볼 수 있으며, 이는 여성의 돌봄, 육아, 가사에 대한 부담 경감을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을 지원 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역할(최청락 외, 2011)을 할 것으로 보고 있음.
- 사회적경제 분야에서의 여성 노동자의 참여도가 높고 특히 취업 취약계층 여성 종사자 비율이 높음. 여성 대표자 비율과 여성 관리직 비율은 일반 기업보다 높음 (김학실, 2011).
- 하지만 사회적경제 일자리는 최저임금 수준에 열악한 근로환경을 지녀 임금과 고용안정성이 불안함을 가지고 있으며(강현아, 2015), 사회적경제에서 창출된 일자리에 대해 괜찮은 일자리인가에 대한 비판이 존재(김학실, 2011)하고 있음.
- 하지만 경제활동참가율이 남성 72.9%, 여성 53.4%(통계청, 2021)로 남성이 더 높은 상황에서 사회적경제 분야의 여성종사자 비율은 60~70%(여성가족부, 2013)로 여성근로자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 여성일자리 창출에 있어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볼 수 있음.

- 또한 사회적경제 조직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과 같은 제도적인 면에서는 부족하지만 일과 가정의 양립에 대한 배려 및 자녀돌봄, 가족 간호를 위한 지원 분위기는 보통보다 높게 나타나 여성친화적인 조직문화를 지니고 있음 (강현아, 2015).
- 즉, 여성근로자 일·생활 양립 지원을 받아서 업무 시간 탄력화, 시간외 근로 없는 근무환경 및 연차 사용의 자유로움, 사회가치를 실현하면서 육아 문제도 해결할 수 있어서 만족감을 느끼고 있으며, 여성친화적인 조직문화가 있어서 서로 배려하고 배제와 차별이 없이 여성들의 적극적인 참여 가능(선미정, 2019)한 것이 특징임.
- 이처럼 사회적경제에서 근로자들의 저임금이나 고용불안정과 같은 열악한 조건임에도 여성 일자리 창출이 많이 논의되는 것은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대체적으로 여성친화적인 조직 문화 및 평등한 의사결정구조(이성은, 2009; 최금숙 외, 2014)를 지니고 있으며, 일을 하면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음.
- 이에, 사회적경제 분야는 여성 일자리 창출에 주요 통로가 될 것이며, 앞으로도 이러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임. 이에, 저임금 등 근로조건에 양적인 성장 뿐 아니라 질적인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적 개입(선미정, 2019)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또한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관(官) 주도 지원방식으로 추진되던 기존의 불요불급한 정책이 아닌 지역주민 공동체를 중심으로 지역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사회적경제 지역생태계 구축으로 실현될 수 있음.
- 이러한 맥락에서 사회적경제는 공공성과 수익성이라는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는 등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공동체의 활성화 뿐 아니라 지역주민에게 소득 및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의 경제발전에 기여(최우일, 2014)할 수 있을 것임.
- 따라서 사회적경제는 일자리, 저성장, 고령화 등의 고용조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여성들에게 일자리 제공과 더불어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여성 고용률 제고, 여성 일자리 창출, 여성인재 활용(정현주, 2017)이라는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적 형태로 자리매김 할 것임.

3) 반려동물산업 분야

- 1인가구의 증가 및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으며,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펫팸족(Pet+Family)’이 증가하고 있음.
- 반려동물을 기르는 ‘반려가구’가 604만 가구로 전체가구의 29.7%이며, 반려인은 1,448만명으로 한국인 4명 중 1명은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있음(황원경 외, 2021).

〈그림 III-4〉 지역별 반려가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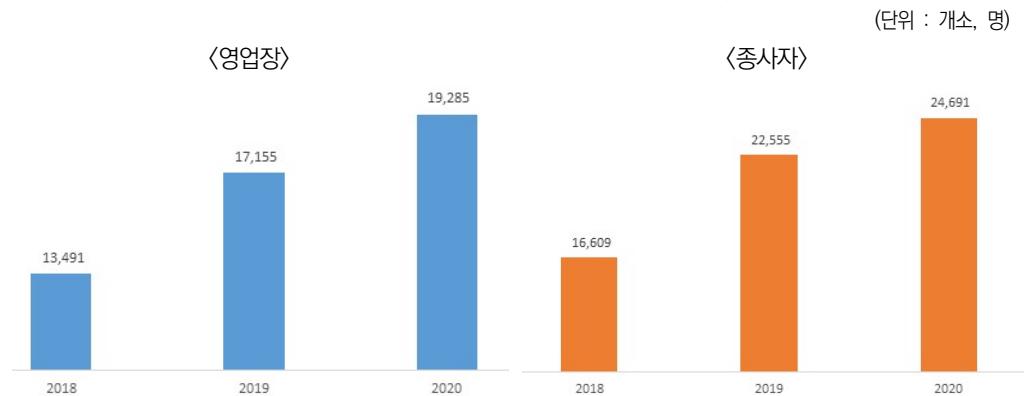


자료 : 황원경 외(2021), 「2021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재인용.
 통계청(2019 인구주택총조사), 농림축산식품부동물등록정보데이터를가공한요약정보(2019년말기준),
 전국 20세이상 남녀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2020년말기준) 결과를 기초자료로 활용해 추정.
 데이터속성과 조사방법 관련 세부내용은 참고자료를 참조

- 2021년 8월에 발표된 반려동물 관련 시장규모는 2012년 9000억원에서 2015년 1조8000억원으로 2배 성장했으며, 2020년 5조8000억원에서 2021년 6조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IT조선, 2021)하고 있음.
- 코로나19 확산으로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는 등 반려동물과 여가시간을 보내는 ‘펫콕족(반려동물+집콕)’이 증가하여 관련 시장 규모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아시아경제, 2021)됨.

- 이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는 반려동물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신규 서비스 업종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10년 후 유망직업’을 조사한 결과 반려동물 관리사가 10위에 오르는 등(월간마이더스, 2017) 산업의 확장에 따라 일자리도 창출 될 것으로 예측됨.
- 또한 「수의사법」 개정에 따라 반려동물 산업 분야의 전문 직종 일자리 창출 및 동물진료의 질 향상을 위해 ‘동물보건사’ 제도가 국가자격으로 부여됨 (2021. 8. 28). 뿐만 아니라 민간자격으로 운영되는 반려견 훈련사가 국가자격증 신설을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해 힘쓰고 있음.
- 뿐만 아니라 정부는 「동물보호법」을 개정하여 2018년부터 반려동물 관련 업종은 생산업, 판매업, 수입업, 장묘업, 미용업, 운성업, 전시업, 위탁관리업으로 명시함.
- 농림축산식품부(2021)에 따르면, 반려동물 관련 8개 업종은 총 1만 9,285개소이며, 종사자는 약 2만 4,691명으로 조사됨. 업종별로는 동물미용업 37.7%, 동물위탁관리업 23%, 동물판매업 21.5% 순이며, 종사자는 동물미용업이 8,741명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Ⅲ-5〉 반려동물 산업 현황(전국)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20). 「반려동물 보호와 복지관리 실태」

- 2019년 대비 반려동물 영업장은 12.4%, 종사자는 9.4% 증가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 울산지역의 반려동물 관련 업종은 미용업(169개소, 종사자 209명), 위탁관리업(124개소, 158명), 판매업(101개소, 124명), 생산업(26개소, 29명)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Ⅲ-3〉 울산시 반려동물 관련 업종 현황(2020년)

(단위 : 개소, 명)

구분	업종	개소수	종사자
허가	동물생산업	26	29
등록	동물판매업	101	124
	동물수입업	2	3
	동물장묘업	1	3
	동물미용업	169	209
	동물운송업	19	22
	동물전시업	20	21
	동물위탁관리업	124	158
합계		462	569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20). 2020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 반려동물은 1인가구 증가, 고령화 및 이웃과 관계 단절 등 다양한 원인으로 사회적으로 고립된 채 정서적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를테면, 취약계층은 반려동물로 인해 책임감 증가, 외로움 감소, 삶의 만족, 생활의 활기, 긍정적 사고, 스트레스 감소, 운동량 증가, 대화증가, 건강 향상, 자신감 향상 순으로 긍정적 효과를 보여(데일리경제, 2020) 복지적 차원에서도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이처럼 울산시는 반려동물 관련 산업이 전국 대비 큰 규모를 갖추고 있는 것은 아니나, 반려문화산업 선도도시로 자리매김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이는 2012년 전국 최초로 남구 문수양궁장 내 ‘애견 운동공원’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2020년 9월에는 동남권 최초(전국 두 번째)로 울산 반려동물 문화센터(Anian Park)를 건립·운영을 통해 알 수 있음.
- 그러나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증가와 반려산업 규모 성장의 이면에는 미숙한 반려동물 양육문화로 인한 시민 공동체의 분열¹⁾과 공공장소 내 펫티켓 미준수로 인한 피해와 갈등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의

1) 길고양이를 돌보는 캣맘과 캣대디에 대한 폭언·폭행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길고양이나 유기견을 고의적으로 다치게 하거나 살해하는 범죄행위도 근절되고 있지 않음.

양극화가 커지면서 반려동물 양육 인프라 구축²⁾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울산시 내부자료, 2021).

- 이에, 단순 시장규모의 확대 뿐 아니라 올바른 반려문화 확산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반려 관광 활성화를 포함한 반려산업 확대, 배려와 공존의 반려 생활 정착을 위한 다양한 사업 등이 필요하며 관련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측됨.

2) 2019년 울산지역 일원에 반려동물 전용 놀이터를 조성하고자 하였으나 주민 반대로 무산됨.

3. 시사점

- 코로나19 및 경제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인 ‘뉴딜정책’에서 여성 일자리 체질개선 및 점검이 필요한 시점임.
- 뿐만 아니라 저출산 고령화에 따라 노동시장에서의 인력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양질의 노동력 확보를 위해 잠재적 노동자인 여성의 인력방안 모색은 필수적인 상황임.
- 이에, 본 연구는 울산형 뉴딜의 디지털경제, 사회적경제, 반려동물산업 분야에서 여성 일자리에 대한 가능성을 포착하였음.
- 먼저, 디지털경제 분야는 4차산업 혁명시대에 따라 새로운 산업 생태계 조성 및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정보통신기술(ICT) 분야가 확대될 것으로 예측됨. 특히, 울산은 제조업과 ICT와의 면밀한 융합에 따른 고용시장의 변화가 예측되는 등 지역 여성에게는 새로운 기회로 작용될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해당 분야에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함.
- 사회적경제 분야는 경쟁과 효율 중심에서 벗어나 협력과 연대를 지향함으로써 불평등 문제를 해소(울산광역시, 2019)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및 일자리 창출의 시각(김명화 외, 2014)을 갖고 있음.
- 고용조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여성들에게 일자리 제공과 더불어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적 형태로 자리매김 할 것임.
- 마지막으로 반려동물산업 분야는 반려가구 수가 늘어남에 따라 관련 시장 규모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며, 이에 따라 울산은 전국 최초로 반려동물 친화도시를 선언하는 등 올바른 반려문화 확산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관광 등 다양한 사업을 선제적으로 실시함에 따라 관련 일자리가 창출 될 것으로 보임.
- 울산형 뉴딜에서의 여성 일자리는 활성화될 산업에 대해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기존 일자리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고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이를테면 여성은 그 동안 노동시장에서 돌봄노동으로 인해 쉽게 배제되었으나, 이제는 유연한 근무가 가능한 디지털경제 분야 등에서의 전략적인 접근을 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즉, 기존의 고정관념을 깨고, 여성의 강점이자 단점으로 여겨지고 있는 특성을 살려 대응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이에, 울산시에서 주력하는 사업이면서 여성일자리 창출 가능 분야는 디지털경제, 사회적경제, 반려동물산업 분야로 볼 수 있음.

〈표Ⅲ-4〉 울산형 뉴딜에서의 여성 일자리 창출 가능 분야

(단위 : 개소, 명)

연번	사업명	고용유발 (명)	내용	비고
1	디지털 인력양성 및 첨단산업 육성	1,151	- 디지털 경제 전환 가속화에 따른 전산업 AI 융합 확산을 위해 주요 지역에 AI·SW 인재양성 거점 구축 - 정보소외계층을 위한 체계적인 양질의 SW교육 제공 - SW 교육환경 조성 및 강사 육성을 통한 고용 창출	그린 뉴딜
2	울산형 마을뉴딜 추진	3,200	-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마을기업·사회적기업을 육성 하여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발전 및 지역 일자리 창출 기반 마련 - 마을 자원 활용한 소득·일자리 창출 기반 조성	휴먼 뉴딜
3	문화관광 생활 등 반려친화 인프라 구축	552	- 반려동물 양육 가구수 증가로 관련 산업 규모 및 시장 확대 - 연관 산업 육성을 통한 산업 분야 취·창업 수요 확대 및 전문 인력 육성	휴먼 뉴딜

- 한편, 해당분야는 울산형 뉴딜사업 안에서의 여성이 즉각적으로 진입가능한 일자리 분야를 예측한 것이며, 울산지역을 대표하는 사업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IV

울산형 뉴딜을 통한 여성 일자리 창출 관련 조사

1. 조사개요
2. 조사결과
3. 시사점

IV 울산형 뉴딜을 통한 여성 일자리 창출 관련 조사

1. 조사개요

- 울산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전국 17개 지역 중 최하위에 속하며, 코로나19로 인해 울산 여성의 고용 위축이 심각한 상황임.
- 이에 따라, 전국 최초로 실시하고 있는 ‘울산형 뉴딜’의 사업 특성 및 일자리 현황 등에 대해 파악하여, 향후 울산 여성의 일자리 창출 또는 취·창업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먼저, 울산형 뉴딜에서 여성 일자리 창출 가능 분야를 확인하기 위해 행정 전문가(공무원)를 대상으로 해당 사업에 대한 설명 및 고용유발 등을 조사함.
- 이를 토대로 디지털경제, 사회적경제, 반려동물산업 분야 등 관련 전문가 총 16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음.
- 해당 분야의 담당 공무원, 사업 참여자 등 관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으며, 뉴딜정책 사업현황, 사업 추진 시 문제점 및 한계점, 애로사항, 사업과 연계된 일자리 분야, 정책 요구사항 등을 조사함.

〈표IV-1〉 면접조사 개요

구분	주요내용
조사대상	울산형 뉴딜(디지털경제, 사회적경제, 반려동물산업 분야)의 정책전문가(담당공무원), 학계 및 현장 전문가, 사업 참여자, 취·창업자 등
유효표본	16명
조사방법	심층 인터뷰(In-depth Interview)
조사기간	2021. 7. 5. ~ 2021. 7. 27.
조사내용	울산형 뉴딜 현황, 사업 추진 시 문제 및 한계점, 요구 및 애로사항, 사업과 연계된 일자리 분야, 정책 요구사항 등

〈표Ⅳ-2〉 면접조사 대상

연번	구분	분야	조사대상
1	A	디지털경제	사업 담당기관
2	B	디지털경제	사업 담당기관
3	C	디지털경제	현장전문가
4	D	디지털경제	학계전문가
5	E	사회적경제	담당 공무원
6	F	사회적경제	사업 담당기관
7	G	사회적경제	사업 참여자
8	H	사회적경제	현장전문가
9	I	사회적경제	현장전문가
10	J	사회적경제	현장전문가
11	K	사회적경제, 반려동물산업	유관기관
12	L	사회적경제, 반려동물산업	유관기관
13	M	반려동물산업	담당 공무원
14	N	반려동물산업	사업 담당기관
15	O	반려동물산업	현장전문가
16	P	반려동물산업	학계전문가

2. 조사결과

1) 디지털경제 분야

- 울산형 뉴딜에서의 디지털경제 분야는 「디지털 인력양성 및 첨단산업 육성」 사업이 있음.
- 「디지털 인력양성 및 첨단산업 육성」 사업은 디지털 경제 전환 가속화에 따라 AI·SW 인재양성 및 정보소외계층을 위한 체계적인 양질의 SW교육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디지털경제 전환에 따라 AI·SW 등 관련 교육은 재직자, 예비 취·창업자, 대학생 등 새로운 일자리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특히 정보소외계층을 위한 SW 전문강사 양성은 경력단절(보유)여성, 미취업청년, 퇴직 전문가 등의 고용 창출을 예측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사업의 내용 및 특성

- 디지털인력양성 사업은 전문분야 및 상대적으로 즉각적 진입이 가능한 분야에서의 일자리 창출 가능
 - 석·박사급 핵심인력양성, 산업현장 인력양성, 디지털 꿈나무 양성 등 3단계 맞춤형 전략을 통한 디지털 인력양성 실현을 추진전략으로 삼고 있음,
 - **전문분야**
 - ‘석·박사급 핵심인력양성’은 국가기간산업인 반도체와 AI(인공지능) 분야를 중점으로 육성하고자 함. 2021년부터 운영될 '반도체 소재부품 융합대학원'과 2020년 9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 UNIST의 'AI 대학원'을 통해 세계 최고의 수준을 갖춘 석·박사급 핵심 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임. 이는 장기간의 교육을 수료해야하는 등 즉각적인 일자리 창출이 어려울 것으로 보임.
 - 다음으로 ‘산업현장 인력양성’은 재직자를 중심으로 교육을 하되, 예비 취·창업자 대학생 등도 수강을 통해 취·창업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특히, 본인의 업무에서 AI 등을 융합하여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으며,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무형 산업인력을 양성해 맞춤형 인재양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AI 실무인재양성 교육을 하고 있으며, 주로 재직자중심의 교육이 이뤄집니다. (중략) 재직자는 나름대로 회사에서 인공지능을 가지고 업무에 대한 개선사항이나 이런 걸 진행하고 있고요. 나머지 30%는 일반 대학생, 그 나머지가 취준생이나 일반 시민들. 혹은 개인 기업이나 자영업을 하는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상대적으로 즉각적 진입이 가능한 분야**

- ‘디지털 꿈나무 양성’은 울산정보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소프트웨어(SW)미래채움 지원 사업으로 정보소외계층 초·중등 학생 대상으로 디지털 꿈나무를 육성하고자 함.
- 체계적인 양질의 SW 교육환경 제공을 위한 강사 육성을 통한 고용 창출이 가능한 사업임.

“사업의 목표가 학생들의 소프트웨어 교육을 시키고 강사의 일자리 창출부분이 있어요. (중략) 미래채움사업에 대한 주목적이 정보소외지역의 학생들에게 소프트웨어 교육을 지원한다는 게 제일 주목적이에요. 그러면 이 학생들에게 소프트웨어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소프트웨어 강사풀이 필요한데 그게 없으니까 그러면 그냥 양성하자가 되었어요. 강사 양성은 학생들에게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목적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B)

② 사업의 문제 및 한계점

○ 산업현장에 보다 적합한 교육 대상자 발굴의 어려움

- 해당 분야는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즉각적인 일자리 진입을 위해서는 관련 경험(력)이 있는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면 보다 효과적임.
- 이를테면 관련 분야의 경력단절(보유) 여성은 변화된 산업에 따른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면 재진입이 보다 성공적일 수 있으나 관련 교육 대상자 발굴이 어려움.
- 해당 분야는 전문성을 요구하여 기존에 업무 경험이 있을 경우 취·창업 교육이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음.

“많은 여성들이 프로그래머를 하고 있어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인공지능, 코딩교육이나 기타 이런 교육을 해서 그 분들(경력단절여성)이 재취업을 할 수 있게, 그런 부분도 지금 생각 하는데, (중략) 기존에 전산을 했던 분들을 모집해서 그 부분을 특화해서 교육을 하여 실제로 SI 업체의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을 쌓을 수 있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 (중략) 대상자 모집이 쉽지 않습니다.”(A)

○ 교육수요 파악의 어려움

- 전문적인 분야로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괴리감 없는 교육이 필요하나, 수요조사가 어려운 것이 현실임.
- 취·창업 연계를 위해 재직자, 경력단절(보유) 여성 등 해당 분야에서의 업무 경험이 있는 이들 뿐 아니라 취업과 연결될 수 있도록 공급자(산업현장) 차원에서의 수요조사도 필요함.

“저희가 실질적으로 취업을 목표로 할 수 있는 교육은 한 클래스 과정을 개설하고 진행하려면 20명 정도는 되어야 해요. (중략) 우리가 맞춰야 하는 정부사업이다 보니, 수강생 인원수도 있어야 하고, 이렇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많이 고심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중략) 커리큘럼을 개발하기 전에 SI에서의 니즈도 파악하고, 그래서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특화로 과정을 개발한다면 이 부분은 취업 쪽에 많은 교육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략) 업계의 니즈나 어느 정도 수요가 있는지 그 자체가 불명확하니. 그 부분이 제일 그렇습니다.”(A)

○ 지속적인 고용 보장의 어려움

- SW미래채움 지원사업은 SW전문강사 양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있으나, 3년간만 지원이 되어 지속적인 고용을 보장할 수 없음.
- 정규직 풀타임(9 to 6) 근무가 아니라 주 15시간(월 60시간), 10개월의 단기간만 보장되기 때문에 양질의 일자리가 아닐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됨.

“주에 15시간, 월에 60시간 정도 근무를 하시고, (중략) 통상적인 근무자에 비해서 당연히 월급이 적을 수밖에 없어요. 이걸 주 수입원으로 하기에는 월급이 적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중략) 소프트웨어 강사양성 교육을 제공하고 10개월 동안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주면서, 10개월이 지난 후에는 급여가 보장되지 않으니, 10개월 동안 경력을 쌓으면서 앞으로 전문강사로서 하나의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곳이지요.”(B)

○ 창업생태계 구축의 어려움

- 지역 내 창업 생태계가 구축되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가 활성화 되어야 하나, 울산은 아직까지 미흡함.
- 이에, SW·IT 관련분야의 창업을 하더라도 폐업하는 경우가 많으며, 지역 특성 및 산업에 기초해 성장할 수 있도록 창업 생태계 구축이 필요한 상황임.

“SW·IT 등 관련분야의 창업은 오래가지 못하고 폐업하는 경우가 많아요 (중략) 무조건적인 창업보다는 울산지역의 산업을 토대로 융합할 수 있는, 산업에 기초해 융합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요. (중략) 울산지역에 IT분야 신생기업이 많고, 이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이 필요해요.”(D)

③ 일자리 창출 및 취·창업 지원을 위한 활성화 방안

○ 여성과학기술인 데이터베이스 구축

- 지역 내 경력이 단절된 고경력·고학력 여성과학기술인을 발굴하는 것은 구직자와 관련 업체뿐 아니라 울산시는 인력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는 등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음.
- 이에,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고, 숨어 있는 인력 발굴 및 ICT분야에서의 여성과학기술인의 참여 확대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필요함.

“실질적으로 여성들이 고지식을 가진 인력들인데 이 분들이 사회적으로나 실질적으로 봤을 때 취업을 안 하고 있으면 사회적 손실이 크잖습니까. (중략) 관련 교육을 진행하면, 울산지역 인력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자질이 있는 여성분들에게 교육을 플러스하면 취업으로 연결될 수 있겠죠. 그럼 저희도 좋고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거죠.”(A)

○ 취·창업과 연계할 수 있는 수요조사 실시

- 즉각적으로 취·창업과 연계되기 위해서는 수요자의 목적 뿐 아니라 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교육을 제공하여 바로 취업과 연결될 수 있도록 수요조사가 이뤄져야 함.

“모든 산업에서 IT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울산에 어떤 수요에 맞출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즉, 시장에서 원하는 것을 찾아 관련 교육을 하고 패키징 하는 사업이 필요합니다. 또한 구직자의 입장에서 목적에 맞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기초교육, 소양을 위한 교육이나, 취업을 위한 교육이나에 따라 교육의 방향은 다르겠지요.”(D)

- 또한 ICT 관련 기업 뿐 아니라 제조업 등 울산의 주력산업에서 IT·SW·AI를 융합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수요조사도 함께 이뤄져야 함.
- 이를테면, 재직자의 업무지속 및 효율성을 위해 해당 업무와의 AI·SW 등 융합 교육프로그램을 파악하여 선제적으로 대응이 필요함.

“AI·SW 관련 교육은 현장에서 생산이나 품질을 관리하는 분들이 배우면 효과적일 겁니다. 내가 업을 알기 때문에 본인의 업무에 시만 플러스가 되면 즉, 융합을 하면 보다 시너지를 누릴 수 있을 테니까요.”(A)

- 한편, 교육에 대한 수요조사 뿐 아니라 IT·SW·AI 등 교육에 대한 동기유발 부족 및 교육을 통해 청사진을 그리는 것이 어려우므로 적극성을 높일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

“여성이 IT 교육에 대한 동기를 잘 찾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것을 해서 진로에 대한 그림을 그리지 못하니 적극성이 부족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IT 교육을 할 때, 성공사례, 청사진을 제시하여 ‘이 교육 해볼만 하구나!’라고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D)

- 창업 기초교육 및 역량강화 등 원스톱 지원 체계 구축
 - 인천 등 타지역에서는 SW미래채움 지원사업의 SW전문강사가 고용유지가 어려워 협동조합의 형태로 창업을 하는 사례가 있었음.
 - 이에, SW양질의 교육을 받은 인력이 지속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협동조합 직접 운영·관리하며 역량을 강화하고 자립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함.

“이런 사업 차원에서 제일 좋은 방향은 협동조합인 것 같고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사업 자체가 3년짜리예요. 이 사람들을 고용한다고 해도 3년 이상할 수가 없고, 사실은 고용 자체가 길어져야 이분들의 역량이 점점 강화되고 경력이 쌓일 텐데, 사업 자체가 끝나니까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싶어도 더 이상 해드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협동조합. 강사들이 미래채움 사업이 끝난다고 해도 강사들이 협동조합을 세워서 본인들이 직접 조직을 키워나가고, 실제로 강의도 나가는 그런 프로세스가 후속 조치, 자립화 지원에서는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중략)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강의만 나가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사업적으로 커리어를 넓히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본인이 사업계획서를 직접 작성하고 사업을 기획하고, 사업을 따오고, 그런 식의 커리어를 하다 보면 좀 더 큰 조직으로 발전할 수도 있고 저는 충분히 본인의 역량 강화에 있어서는 많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B)

- 특히, 협동조합에 가입하고 운영하는 과정, 공모사업에 지원하는 과정에서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고 절차가 복잡하며, 세무 또는 법과 같은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한 경우 애로사항이 발생 됨.
- 조합 운영 및 사업 운영 시 관리·회계·세무 업무에 대해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멘토단이 있으면 보다 수월한 업무 진행이 가능하므로 지원 방안 모색이 필요함.

“조합을 만드는 게 생각보다 복잡하더라고요. 준비해야 할 서류도 너무 많고 절차도 너무 복잡하고 만들고 나서도 세무나 법적인 지식이 제가 전문해서. 딱 강의만 하는 게 아니라 운영 관련해서 너무 어려운 게 많아요. 법적으로나 운영상의 조언을 얻을 수 있는 멘토 그룹이 있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중략) 운영상의 문제를 물어볼 그룹이 마땅히 없어서 그게 어려워요.”(C)

- 한편, 창업초기에 대한 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닌 향후 유지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역량강화 교육 등 지속적인 관리가 이뤄질 수 있는 원스톱 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고용 유지를 위한 여성친화적인 조직문화 조성

- 경력단절(보유) 여성이 노동시장에 재진입하거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고용 유지를 위한 조직문화가 반드시 필요함.
- 아이 돌봄 또는 개인적 일정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어 양질의 일자리로 진입 및 자리매김할 수 있는 강점이 있음.

“(테크노파크에 강사로 있었던 때에 비해 협동조합 만들어서 운영할 때의 차이점으로는) 직접 학교 담당자와 통화해서 아이들과 일정 맞추고, 조합 자체적으로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교안을 작성하고, 일이 더 많아요. 그런데 장점은 고정된 몇 시 출근, 몇 시 퇴근이 아니라 이 안에서 조합원들끼리 시간되는 분, 안 되는 분, 이렇게 맞춰서 하니까. 자유로운 시간대가 제일 좋고요. (중략) 대부분 아이를 키우는 분들은 아이들 일정, 그리고 아이가 어리면 그 일정에 맞춰서 움직여야 하니까 경직된 근무 일정 안에서는 아마 중간에 포기했을 거예요. (중략) 차라리 돈을 적게 벌어도 내가 아이들을 케어하면서 그 범위 내에서 돈을 버는 게 더 낫기도 하고요.”(C)

○ 정책수요를 기반으로 한 공공시장 개척

- 울산지역 내 IT·SW 등 관련분야의 생태계가 활성화되지 않아 지역 내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 미비한 상황임.
- 정책수요를 기반으로 한 사업의 경우 공공에서 기회를 주고 성장할 기회를 줄 필요가 있음.

“특히, 울산지역은 아직 IT분야 생태계가 활성화되지 않아 IT기업이 조금만 잘해도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강점이 있습니다.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는 것은 맞으나, 이전에 공공에서 기회를 주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게 필요할 것입니다. (중략) 공공의 영역에서 실시하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급성장한 IT기업이 예로 볼 수 있겠지요.”(D)

- 더불어 지역 내 디지털경제 분야에서 교육프로그램 및 기업의 성장 지원이 함께 이뤄져야 함.

○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및 활성화

- SW미래채움 지원사업은 고용기간이 끝난 후에는 재취업 및 창업에 대한 요구가 있으나 이에 대한 장(場)이 부재함.
- 수요자와 공급자 중간에 공적인 매개체(플랫폼)를 구축하여 강사풀, 커리큘럼 등을 공개하면 상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온라인 플랫폼에 강사풀을 공개 운영할 경우 강사 섭외 시 커리큘럼에 맞는 강사를 섭외할 수 있는 이점이 있으며, 강사 또는 협동조합 입장에서는 교육의 공급 범위를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미래채움쪽에서 소프트웨어 페스티벌을 하면서 초등, 중학교에 공문을 보내 원하는 애들이 그 커리큘럼을 들을 수 있게. 1박2일 혹은 하루짜리 프로그램을 만들어 소프트웨어 페스티벌 기간 동안 신청을 받았어요. 지인들에게 홍보를 해서 하루 동안 그 커리큘럼을 들은 분들이 너무 좋다고, 자기는 이런 걸 정기적으로 돈을 주더라도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 물었는데 없었어요. (중략) 소프트웨어 미래채움에서 해주는 것처럼 중간에서 그 매개가 되어서 수요자와 공급자를 받아서 중간에 해주는 공적인 플랫폼이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은 했어요. (중략) 공적인 데서 원하는 사람은 신청하고, 우리는 가르치고, 그렇게 저렴하게라도 할 수 있으면 꾸준히 활동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C)

“강사풀 공개는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저희가 공식 홈페이지가 있으니까, 여기 본인들의 이름을 올리고 싶다는 희망자를 받아서 공식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B)

④ 사업과 연계된 일자리 분야

○ 「디지털 인력양성 및 첨단산업 육성」 사업은 울산형 뉴딜에서 주력산업 고도화 실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며, 확장될 수 있는 일자리는 예측하면 다음과 같음.

• SW교육 전문 강사

- 디지털경제 분야에서는 소정의 교육을 받고 강사로 투입되는 등 일자리와 연결될 수 있음.
- 최근 SW교육과 관련하여 복지시설이용자(노인, 장애인, 저소득, 빈곤계층 등) 및 기관의 종사자가 SW교육에 대한 수요가 높게 나타남.
- 특히,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여 현재 학생 대상 디지털 교육이 시니어 대상으로도 확대하고 있음. 시니어 대상 교육의 주제로는 핸드폰 영상편지, 사진 어플 활용방법, 인공지능 체험, 피지컬 컴퓨터 등으로 진출이 가능함.

“앞으로 폭발적으로 노인을 위한 교육이나 시니어 문화가 형성될 필요가 있어서 우리도 미리 준비하고 있어요. (중략) 핸드폰으로 간단한 영상이 포함된 영상편지를 보낼 수 있게 한다든지, 핸드폰으로 내가 원하는 어플. 예를 들어 스노우 어플 다운받아서 그걸 사용하는 법 배우는 것도. (중략) 인공지능에서 고도로 발달된 프로그램만 하는 게 아니고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서 이런, 이런 게 가능하다고 체험할 수 있는 사이트도 굉장히 많거든요”(C)

“소프트웨어 교육은 무조건 어렸을 때부터 공기로 호흡하듯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노인들에 대해서는 치매예방이나 이런 측면에서, 그리고 취미측면에서도 이루어지면 좋다고 생각해요.”(B)

- 이에, 디지털소외계층을 노인, 장애인, 저소득, 빈곤계층 등 보다 확대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교육 콘텐츠 강사 교육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여성 일자리 창출과 연계될 수 있을 것임.
- 이에, 교육 대상별로 관련 커리큘럼 개발, 강사 양성, 교육 및 역량강화 등이 이루어져야할 것으로 보임.

2) 사회적경제 분야

- 울산형 뉴딜에서의 사회적경제 분야는 「울산형 마을뉴딜 추진」 사업이 있음.
- 「울산형 마을 뉴딜 추진」 사업은 주민이 마을의 문제와 해결을 주체적으로 설계·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특히 이웃관계망을 활용한 신뢰 기반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마을공동체 발전과 지역 일자리 창출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뿐만 아니라, 마을공동체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주민센터의 스마트화, 특성별 맞춤형 발전방안을 연구하는 마을연구소(가칭), 마을 자원을 종합 관리하는 마을 시설공단(가칭) 등을 신설해 주민 주도형 스마트 빌리지 조성을 목표로 함.

① 사업의 내용 및 특성

- 마을 특성과 주민 수요에 맞춘 공동체 가치 및 일자리 창출
 - 지역주민 주도의 공동체 활성화, 생활자치 실현,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마을기업 및 사회적기업을 육성하여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발전과 지역 일자리 창출의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함.

“마을뉴딜사업에서 크게 세 가지, 시범마을만들기, 마을교부세사업, 사회적경제활성화, 이렇게 크게 세 가지인데, 마을만들기사업은 전체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만드는 거라, 반구동 하나, 다운동 하나, 이렇게 선정이 된 건데, 실제 사업을 살펴보면 반구동의 경우는 도시재생 사업을 연계해서 그 사업을 기반으로 해서 반구동의 여러 가지 커뮤니티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네 개의 단체를 모두 법인화시켰어요. 그러면 마을기업이나 사회적 경제 형태로 참여할 수 있게 일단 기반을 만들어 놓았습니다.”(E)

- 마을의 특성을 고려하여 발전방안 모색
 - 반구1동, 다운동, 농소3동, 상북면 등 총 4개 마을 선정하여 3년간 사업 수행 및 예산을 지원받게 됨.
 - 반구1동은 도시재생사업을 연계하여 커뮤니티 사업 및 수익창출모델로 콩나물 재배사업을 운영하는 등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을 예측함.
 - 다운동은 다산행복발전소사업으로 차밭 가꾸기 사업과 생활 밀착형 지역 돌봄 서비스로 마을단위의 관리소를 운영하고자 함. 마을관리소에서는 마을의 소소한 기술을 가진 분들을 확보하여 마을을 위한 봉사과 수익 창출을 병행하고자 함.

- 농소3동은 편백숲을 활용한 관광 콘텐츠 개발 및 다양한 문화체험을 통한 소비촉진을 도모하고 있음.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공동체 형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꾀하고 있음.
- 마지막으로 상북면은 영남알프스와 마을의 자원을 활용하여 청년 인구유입과 농촌형 청년일자리 모델 발굴과 산촌 마을 여행을 통한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표Ⅳ-3〉 「울산형 마을뉴딜 추진」 사업 선정 결과

연번	구·군 (읍면동)	공모 주체 (사업명)	주요 사업
1	중구 반구1동	내항마을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큰애기 고향에서 소통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항 어울림 플랫폼 거점 커뮤니티로 활용 ○ 국토부 마을뉴딜 계획 수립 ○ 콩나물 재배·판매, 체험교실 CCTV 설치, 정원골목 사업
2	중구 다운동	다운동 마을만들기 사업협의회 (다전(茶田) 행복 발전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전 행복발전소 조성(신진경로당 2층) 택배보관, 반찬배달, 공구대여, 간편수리 지원, 안부 확인 모니터링 등 ○ 다전생태공원 치발 관리 안심 등교 및 순찰 등
3	북구 농소3동	농소3동주민자치 사회적협동조합 (농소3동의 드림 (Dream)~편백을 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편백활용 체험 및 숲해설 등 ○ 편백묘목 식재체험 및 판매 등 ○ 편백휴 카페 운영, 편백휴 콘서트 개최
4	울주 상북면	상북마을계획단 (청춘포레스트 마을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귀농귀촌 마을기업지원단 운영 ○ 영남알프스 마을여행(공정여행) 사업 운영

② 사업의 문제 및 한계점

○ 마을뉴딜 사업에 대한 이해 및 운영역량 부족

- 마을뉴딜 사업이 안정화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논의와 시간이 필요하나, 해당 사업에 대한 공감대 없이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 마을뉴딜, 사회적경제, 마을공동체 등이 생소한 분야라 이해도가 다소 저조하고 교육에 대한 참여 의지가 낮음.

“정책이 너무 빨리 실천영역까지 왔어요. 작년 말에 나오고 작년 말에 바로 공고 냈잖아요. (중략) 정책과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그 사이에 충분히 시간이 필요하고 어떤 장치들이 필요해요. 그런데 코로나도 있고 해서 그게 쉽지 않았어요. 속도도 너무 빨랐고. 그래서 정책이 나오고 나서 실천영역까지 가는 데는 충분히 공감대 형성을 하는 게 이걸 이 사업뿐만 아니고 다른 사업에서도 필요한데, 이걸 너무 빠르게 하면 마을에 오히려 더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고요.”(F)

“마을공동체라든지 사회적경제나 마을뉴딜이나 이런 거에 대한 교육을 접아 놓고 있는데. 참여율이 지금. 진취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의지나 이런 게 아직까지는 부족하고. 이게 아직까지 생소한 분야잖아요. 사회적경제나 마을뉴딜에 대해서 이 지역 사람들이 되게 생소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잘 이해가 안 되니까.”(G)

- 사업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참여 단체를 모두 법인화하고, 주민 대상으로 역량 강화 교육을 하고 있으나 법인 운영 역량이 부족한 실정임.

“이런 정책 사업(마을뉴딜)을 처음 하다 보면 일목요연하게 어떤, 어떤 식으로 주민들이 마을 연구소도 만들 수 있고 스마트주민센터도 운영할 수 있고, 마을관리를 주민들이 직접 할 수 있다, 이렇게 풀어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했지만, 이런 용어나 이 안의 콘텐츠를 읽고 이걸 정책을 만든 사람만큼 해석한다고 해야 하나, 자기 마을에 접목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의 주민은 아직까지 없는 거죠. (중략) 법인이니까 그 법인을 주민들이 경영을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역량이 안 될 거잖아요. 이제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법인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의 교육을 어제 1차로 여기서 했어요. 그 전에는 이 분들을 다 모아서 간담회도 하고 회의도 하고 몇 번 했었어요.”(F)

- 마을이 고령화되어가고 있어 마을 내에서 진취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하고 온라인 기반 업무능력이 현저히 떨어짐.

“지금은 여기는 다른 도시보다도 시골이고, 그러다 보니까 고령화 되어가고 젊고 일을 할 수 있는, 뭐라고 해야 하나, 힘이 약하죠. 진취적으로 일할 수 있는 힘이 부족하고, 업무능력도 컴퓨터나 온라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워하는 게 있어요.”(G)

○ 주체적 사업운영 및 지속가능성의 어려움

- 사업 심사 시 사업의 연계성, 지속가능성에 대해서 고려하였지만, 사업이 지속 가능할지가 미지수임.

“저희가 처음에 계획을 받아서 심사할 때는, 그런 걸 다 봐요. 연계성이나 지속가능성.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고, 그걸 다 검토하고 선정은 하지만 실제로 사업을 하면, 결국 나중에 방치되어가는 경우가 많죠. (중략) 저희도 향후 관리를 과연 누가 관리를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아요. 그래서 일단은 법인화를 해서 거기에 대한 책임을 대표 개인에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법인이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마을기업도 법인화해서 들어 오지만 보조금 받고 나면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모든 사업이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주민들이 사업을 하실 수 있도록 뭔가를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기에...”(E)

“이런 정책 사업(마을뉴딜)을 처음 하다 보면 일목요연하게 어떤, 어떤 식으로 주민들이 마을 연구소도 만들 수 있고 스마트주민센터도 운영할 수 있고, 마을관리를 주민들이 직접 할 수 있다, 이렇게 풀어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했지만, 이런 용어나 이 안의 콘텐츠를 읽고 이걸 정책을 만든 사람만큼 해석한다고 해야 하나, 자기 마을에 접목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의 주민은 아직까지 없는 거죠. (중략) 법인이니까 그 법인을 주민들이 경영을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역량이 안 될 거잖아요. 이제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법인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의 교육을 어제 1차로 여기서 했어요. 그 전에는 이 분들을 다 모아서 간담회도 하고 회의도 하고. 몇 번 했었어요.”(F)

- 제한된 지원 기간인 3년 내 수익구조 모델을 만들고, 사업의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져야 하나, 시간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지적되고 있음.

“3년차에 반드시 어떤 형태든지 마을기업을 요구를 받고 있고, 마을기업이 정상적으로 잘 돌아갈 것이냐,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지원이 필요하냐, 이걸 누구도 모르거든요. (중략) 관 주도의 사업이 계속 진행되다 보면 피동적으로 움직이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져서 활력을 잃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비록 시행착오는 겪더라도 러프 하지만 주민 스스로가 기획하고 결정하고 실행해보고 피드백 받아서 바꾸고 하는 게 반복이 되면 자꾸 레벨업 되지 않냐, 라고 생각을 합니다.”(H)

“행정이 의지해서 행정이 주도하는 시스템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는 거죠. 마을뉴딜은 주민들이 직접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이해가 너무나 부족해요. 그런 게 너무 행정의 시스템에 익숙해져 있다는 게 좀.”(G)

- 또한 현재 마을뉴딜사업은 울산광역시 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에서 위탁운영 중이며, 사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신규 마을의 지속적인 컨설팅이 이뤄져야 함.
- 하지만 사업의 업무담당자의 업무 과중 및 잦은 이직으로 연속성이 보장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임.

“3년마다 공모에 들어가서 위탁을 받아야 하는 사업인 거잖아요. 신분이 안정이 안 되니, 본인 들도 있으면서, 똑같은 계약직이라도 여기서의 계약직과 공무원의 계약직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있으면서 계속 다른 공고를 알아봐요.”(F)

○ 여성의 대표성 부족

- 실질적인 활동가는 여성이나, 사회적협동조합의 대표 및 이사 등은 대부분 남성으로 구성되어 있어 여성의 대표성 제고가 필요함.

“이사님들은 다 남성들. 그런데 이 분들은 의사결정을 한다든지, 사무국 안에 이런 내용을 공유 받는 그런 위치 정도이고 실제 필드에서 일을 하는 건 여성들. 이 분들은 권한과 책임을 갖는 분들이고 실제로 필드에는 여성이 많습니다.(G)

“특히나 주민협의체 위원장이나 조합장도 여성이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게, 사업의 특성이나 시간 할애 측면에 있어서. 대부분의 지역에서도 활동성이 있는 여성들을 추대하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위원장이나 조합장까지는 안 하려고 하시더라고요. 여성들이. 저는 강력하게 추천 하고 하시라고 하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H)

“남성위주의 결정과 여성의 노동력과 노력, 댓가는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어요. 실무나 허드렛 일은 여성들이 대부분 하고 있는데...”(J)

③ 일자리 창출 및 취·창업 지원을 위한 활성화 방안

○ 마을 특성에 기반한 운영방안 모색

- 「울산형 마을뉴딜 추진」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마을, 사업 참여자, 총괄 관리자 측면에서 각각의 전략이 필요함.

• 마을 : 마을에 대한 이해 및 사업의 선순환 생태계 구축

- 「울산형 마을뉴딜 추진」 사업은 공모사업 형태로 이뤄져 마을의 니즈는 반영되어 있으나, 마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 자원 등을 파악하는 것이 어려움.
- 이에, 현재 사업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 없이 실행되고 있어, 마을에 대한 연구를 통해 마을의 역할, 사업의 방향성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관 주도(Top-Down)에서 주민 주도(Bottom-Up) 방식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양적성장(고용률 등)을 강조하다보면 본질을 잃을 위험이 있음.
- 지역 정체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마을에 대한 연구를 토대로 이들의 가능성과 기능을 끌어낼 수 있는 방향 설정이 이뤄져야 함.
- 나아가 마을 주민이 자체적으로 이러한 것을 연계하여 지속가능한 운영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함.

“마을뉴딜은 단순히 마을의 일자리를 창출해내는 사업이 아닙니다. 단기적으로는 이게 안정되면 마을 일자리가 생기는 건 당연한 사실이겠지만, 1차년도부터 마을 일자리 기능을 강조하다 보면 원래해야 하는 기능들을 놓치게 되는데요. 누가 마을 단위가 연구사업에 돈을 쓴다고 생각하겠어요. 필요도 없을 것 같고. 그런데 그게 있어야 앞으로를 준비할 수 있어요. (중략) 마을에는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런데 그런 걸 적어도 마을별로 우리가 앞으로 뭘 해야 할지를 논의하는 건 연구에 의한. 적어도 최소한의 수준이라도 연구에 의한 방향 설정이 필요합니다. (중략) 마을 안에서의 자체적인 기능이 안 된다고 보고, 연구자를 세워서라도 이끌어다가자는 방향이었던 것이고. 그렇다면 그에 맞는 시도를 해야 하는데, 지금은 여타 공모사업들과 똑같이 마을 사람들에게 비용을 줘서 알아서 공모하세요. 비즈니스 모델이 있어서 사업종료 이후에도 지속하면 좋습니다. 뉴딜이니만큼 고용률을 높일 수 있는 일이면 좋습니다. 같은 비용 안에 고용률을 높일 수 있는 일로 설계가 되면 노동집약적인 일밖에 안 일어나요. 나쁜 일자리밖에 안 생겨요.”(1)

- 또한 현재는 사회적경제의 일환으로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수익 창출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공간(사무실, 사업운영 공간 등)이 필요한 상황이며 관련하여 리모델링 및 시설비용을 할애할 수밖에 없는 구조임.
- 이러한 과정에서 지역 내 앵커시설을 찾아 유희공간 활용 및 이윤 창출 방안에 대한 모색이 필요함.

“연구를 하면 지역 안에 어떤 시설이 있는지 찾아질 거잖아요. 앵커시설의 성격에 따라서 사업 내용이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거점을 잡지 않고 그냥 마을주민들이 돈을 모아서 뭔가를 이뤄 낸다고 생각하면 사업비가 얼마가 됐든 그 공간을 만들어내고 그 공간을 유지하는데 연간 5천은 쓰는 것 같아요. 첫 해는 더 많이 쓸 곳이고 2년째, 3년째, 그런데 마을단위 별로 3년이면 없어질 그런 시설을 위해서 시설비를 쓰는 게, 그건 사람에게 들어가는 게 맞다고 보고 앵커시설이 있고 그 앵커시설을 3년이라는 기간을 잡아 놓은 것도, 시설위탁을 할 때 2~3년을 위탁하잖아요. 다음 시설에 대한 위탁을 할 때는 마을주체와 위탁계약을 하도록 설계가 된 것이고. 그러면 최소한의 사무공간이나 회의공간만 필요한 마을연구시설이 다른 곳에 그런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집기를 놓고, 월 수십에서 수백의 월세를 낼 필요가 없잖아요.”(I)

“마을뉴딜의 기반이 정부 지원이나 앵커시설이나 이런 지원을 받는 걸 전제로 할 때는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중략) 공익사업 40%이상, 이런 인가조건이 있는데, 그렇게 해야 그런 사업을 받아서 공공기관이 주는 그런 것도 받을 수 있는데. 그냥 일반으로 했을 때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좁아지니까.”(K)

• **사업 참여자: 주민참여 활성화 및 전문성 강화**

- 현재 마을뉴딜사업은 제안서를 작성한 몇몇의 주민이 책임을 지는 구조가 많으며, 주민 참여가 없을 경우 사업이 중단될 수 있음.
- 마을 내부에서 할 수 없는 업무는 지자체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과 연계해 주민들은 식품개발, 살림 텃밭 운영 등을 실시하고, 젊은 청년들은 홈페이지 제작, 영상편집, 디자인, 라이브커머스(무농약, 유기농 인증 지원 등) 등 온라인 활동을 수행하고 있음.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이 있어서 지원을 받아서 청년들을 고용했거든요. 사물이 가지고 있는 마을문제 중 하나가 고령화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을의 경쟁력이 떨어지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안 되는 게 온라인 온라인 마켓도 만들어야 하는데, 그런 걸 활용하는 데 있어서 정지간 하는 아주머니들과 함께 온라인마켓을 만들거란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온라인에서 지역 크리에이터도 있고 온라인의

커머스 마켓도 만들고 운영하고 우리 SNS나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그런 건 젊은 친구들이 하고 있어요. 마을의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마을이 경쟁력도 떨어지는 부분에서 젊은 사람들의 능력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청년들이, 이런 건 청년들이 잘할 거잖아요. 온라인 활동은 그걸 청년들이 하고 있고 주민들은 식품개발도 하고 살림 텃밭도 하고 마을여행 해설사도 하는데 청년조직들은 그걸 온라인에서 세련되게 현대화에 맞게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홈페이지도 만들고 있는 중이고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라 라이브커머스, 홈쇼핑 방송도 지금 젊은 친구들이 하고 있어요.”(G)

- 각자의 강점을 살려 업무분장을 하고 마을의 역량강화 방안을 전략적으로 모색하는 것은 필요하나, 그 기반에는 마을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아이디어, 필요성 등이 기반이 되어야 함.
- 이에, 마을의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는 등 주민참여 활성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 나아가 마을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내부 구성원의 역량강화 뿐 아니라 마을을 이끌고 갈 리더 역량강화는 반드시 이뤄져야 함.
- 뿐만 아니라 리더십을 보완해가는 과정에서 코디네이터 양성과정 등에 대한 고민도 필요함.

“리더는 태어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리더가 만들어지는데 물론 시간은 걸리죠. 현 단계에서 리더를 만들어서 시작하는 건 어려움이 있고, 기존에 만들어진 리더들을 보수교육을 하고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를 돕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중략) 파견해서 처음에 국가하고 계약하는 것부터 해서 사람을 모으는 방법, 영업하는 방법, 이런 걸 다 설명해 드리겠다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기존에 있는 외부 자원들을 활용해서 리더십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가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리더십 과정이 있어야겠죠. 나라에서도 도시 재생 코디네이터 과정도 하고 하던데, 그런 교육들이 체계화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몇 시간 이수하면 자격증 준다, 하는 게 아니라 임상경험도 있고 1년 이상 조합에서 활동해야 자격을 부여한다든지. 그런 건 필요한 것 같습니다.”(L)

• **총괄 관리자: 유사기능의 직접화**

- 마을이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관리하는 기관의 안정화가 필요함. 이에 마을에 대한 지원과 마을을 관리하는 기관에 대한 지원을 쌍방향적인 고려가 필요함.

- 이를테면, 수원시의 지속가능도시재단과 같이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 도시재생 등의 업무를 전담하는 컨트롤타워 개념의 전문적인 법인이 개설되거나, 인천의 제물포스마트타워와 같이 유사 기능을 하는 기관들을 집적화하여 업무 효율화를 높이게 된다면 사업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임.

“수원의 지속가능도시 재단 같은 경우 그 안에 공동체, 사회적 경제, 사회복지, 도시재생, 유사한 것들을 다 넣어놓았어요. 아까 제가 말씀 드린 풀뿌리에서 기반하는. (중략) 울산광역시에는 아예 컨트롤타워가 없어요. (중략) 이런 유사한 결을 가진, 주민 풀뿌리에서 시작해서 뭔가 해야 하는 것들을 모아서 큰 집을 하나 만들어야 그 안에서 가지를 쳐서 서로 시너지가 나고 직원들도 제대로 된 사람을 뽑아서, 가치관이 있는 사람을 뽑아서, 거기서 전문성을 발휘하도록 이걸 해야 하지 않나. (중략) 인천의 제물포스마트타워처럼 뭔가 큰 집을 하나. 그 안에 회의실도 있고 강당도 있고 강의실도 있고 다 있어요. 그 안에는 마을기업지원단도 있고요, 사회적경제지원센터도 있고. 공동체센터도 있고요. 이런 게 총별로 다 들어가 있어요. 강의장이나 회의실 등 그 외 공용은 빌려서 쓰겠죠. 장소를 그 건물 안에 다 집적화시켜 놓은 거거든요. 그것도 일장일단이 있겠지만 어쨌든 뭔가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그렇게 해놓았을 거 아니에요.”(F)

○ 여성 대표성 제고 방안 모색

- 4차산업혁명 시대에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여성리더십이 더욱 중요한 역량으로 대두됨.
- 사업 진행 시 여성의 시각에서 운영되는 사례가 많으며, 적극적인 참여 및 리더십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함.

“아이디어들이 대부분 여성시각에서 나오는 거 보면, 제가 3년간 추진해왔는데 일련의 사업들을 보면,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 여성시각에서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 같고, 저희 동네뿐만 아니라 다른 동네도 그렇게 될 것 같다는 게 개인적인 견해입니다.”(H)

“마을에서 활동하다 보면 단결, 협동, 소통 등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 굉장히 많아요 (중략) 마을의 많은 일들은 여성이 하지만 여성들 역시 나서서 일하려고 하지 않고 마을의 주요한 일을 할 때 여성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가 많죠. 인식 교육이 필요해요.”(J)

- 이에, 여성이 숨겨진 참여자로만 활동하는 것이 아닌 주체적인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 및 역량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④ 사업과 연계된 일자리 분야

- 「울산형 마을뉴딜 추진」은 마을중심으로 창출된 일자리가 다시 지역공동체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마을 선순환형 사회적경제 활성화의 일환이며, 해당 사업에서 확장될 수 있는 일자리를 예측하면 다음과 같음.

• 여성친화적 ‘일거리’ 확대

- 사회적 기업은 4대보험 가입하는 상근직을 주로 채용하여 ‘일자리’ 개념이지만, 마을뉴딜은 파트타임, 비상근의 근무 형태가 많으며, ‘일자리’가 아닌 ‘일거리’ 개념에 가까운 것으로 볼 수 있음.

“울산에 있는 많은 여성들이 4대보험이 들어가는 일자리도 원하지만, 그게 대기업이나 공공 기관이 아니라면 그냥 일반 작은 기업이나 사회적 기업이라면, 그런 데를 하루에 8시간씩 근무해서 일하는 걸 선호하지 않아요. (중략) 마을과 관련한 일자리를 얘기할 때 사회적 경제,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이나 이런 거에서 상근직을 모집할 때의 현상과 거기서 파트타임을 요구할 때의 현상과. 이걸 양쪽 다 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일자리와 일거리를 말씀 드렸잖아요. 일자리라는 건 상근직. 우리처럼 정식으로 근무하고 규칙을 다 따르는 사람들이고, 일거리라는 건 오히려 마을 활동이나 마을뉴딜이나 이런 쪽이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사회적 경제영역 중에서도 사회적 기업의 경우는 아예 인건비를 많이 주는 사업이잖아요. 인건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파트타임을 인정해주는 게 아니고 고용 보험에 들어가서 내냐, 안 내냐, 이게 기준이잖아요. 그래야 인건비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그런 일자리가 나올 수 밖에 없어요. 맞잖아요. 그런데 마을기업은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사업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지. 그래서 마을기업의 경우는 마을 안에서 파트타임, 비상근이 많아요. 바블 때 마을 밴드 같은 거 만들어서 확~일하고, 안 바블 때는 같이 놀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일자리를 더 선호하는 분들이 많다는 걸 제가 말씀 드리는 거예요.”(F)”

- 일과시간(day time)에 회사에 근무하고 있어 남성은 협업이 도지 않는 경우가 많으나, 전업주부는 본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음. 특히, 여성이 남성 대비 세심함이 높은 점은 쾌적한 마을 환경 조성에 큰 기여를 하고 있음.
- 농촌마을의 경우 돌봄이나 교육, 공동체 케어 등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이 역시 남성 대비 여성이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음.

“이런 공동체나 마을, 또는 사회적 경제, 그 중에서도 사회적 기업보다는 마을기업이 공동체를

기반으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 데는 대부분 여성일자리가 많은 건 맞아요. 공동체, 마을 이런 곳에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이 들어와 있어요. 왜냐하면 공동체의 성격이나 모임이나 소소한 마을에서의 움직임이 아무래도 전일제로 근무하는 남자보다는 여자가 더 많기 때문에. 공감 능력도 여성이 더 많을 것이고. 이런 공동체를 기반으로 하는 건 그게 일자리가 됐든, 일거리가 됐든 여성들이 많아요.”(F)

“3년간 저희가 20여개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보니까, 남성 여성구분을 짓지 않지만, 그래도 사업의 80~90%가 여성 사업이 될 수밖에 없는 게, 특징이 남성들은 주로, 여성들은 그나마 전업주부도 있고, 일자리에 시간을 낼 수 있는데 day time에 남성들은 협업이 안 되더라고요. 운영을 해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이 많이 프로그램이 관여하고 그렇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데 (중략) 세심한 여성의 시각으로 보고 접근하는 게 훨씬 매끄럽다. 또 그렇게 되어야 한다. 환경 쪽이 쓰레기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벽화사업을 많이 안 하는 추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목길이나 이면도로 개선하는 데 보면, 세심한 눈으로 볼 때 어떻게 하면 확 와 닿고 디자인하고 이런 것도 여성이 굉장히 섬세하더라고요. 우리가 머리 맞대고 논의해보니까 그런 부분. 그리고 공공사업 들어가도 마찬가지로 남성여성을 따지는 건 아니지만, 남성들은 사고의 경직성이나 집수리 밖에 생각을 못해요. 그런데 여성들은 반찬사업, 주전부리 사업, 꽃길 조성, 화단조성, 그리고 제로웨이스트, EM효소 해서 비누 대신하고.”(H)

“지금도 마을 봉사단체나 이런 단체들이 급식, 도시락, 반찬, 이런 것도 하는데, 그런 어르신 돌봄. 그리고 교육공동체나 육아 돌봄도 농촌마을이라서 그런 아이들이 많더라고요.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그런 아이들은 공동체적으로 케어가 필요해서 앞으로는 계속해서 그런 걸 만들어 내야, 공동체를 발굴하고 만들어내는 일이 저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는 여성들의 역할이 앞으로 클 것 같아요.”(G)

- 일거리를 통해 경험을 쌓고 이를 토대로 여성 리더로 자리매김하여 활동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가칭) 마을연구소 운영 : 마을 연구자

- 성공적인 마을뉴딜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마을에 대한 이해 및 사업의 선순환 생태계 구축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함.
- 사업 초기에는 주민의 주도적인 운영은 한계가 있으므로, 마을의 상황과 이윤을 낼 수 있는 방향을 다각도적으로 모색할 수 있도록 연구가 기반이 되어야 함.
- 이에, 주민 수요조사와 분석, 마을특성을 고려한 발전모델을 연구하는 등 마을연구소 운영과 관련된 일자리 창출이 예측됨.
- 뿐만 아니라 현재는 마을의 이윤 창출 방안을 앵커시설과의 연계를 통해 사업의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할 필요가 있음.

- 이는 일자리 창출 뿐 아니라 사업의 실패 확률을 줄여 수익을 내는 구조를 만드는 등 사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마을에는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런데 그런 걸 적어도 마을별로 우리가 앞으로 뭘 해야 할지를 논의하는 건 연구에 의한. 적어도 최소한의 수준이라도 연구에 의한 방향 설정이 필요합니다. (중략) 울산의 초기 마을연구 했던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마을연구에 대한 확산이 일어날 때에는 관리자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시도를 울산이 해 본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어요. 마을은 마을 자체에서의 가능성이 있는, 미래에 대한 방향을 읽고, 마을자치의 방향을 같이 보는 사람들이 마을에 충분히 있었다면 이런 시도를 하지도 않았겠죠. 마을 안에서의 자체적인 기능이 안 된다고 보고, 연구자를 세워서라도 이끌어다가자는 방향이었던 것이고. 그렇다면 그에 맞는 시도를 해야 하는데,,”(I)

• **마을별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

- 「울산형 마을뉴딜 추진」을 위한 행정, 회계, 서류, 문서작업 등 행정업무에 대한 일자리 창출이 예측됨.

“마을 뉴딜사업에서 인건비를 30%까지 쓸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 30%의 인건비를 받는 상근이든 비상근이든 있을 거잖아요. 그게 일자리죠. 그런데 그분들이 남성보다 여성들이 당연히 많아요. 그 분들의 업무가 뭐냐면, 서류정리, 회계, 이런 쪽이에요. 왜냐하면 30명의 주민이 같이 하는데 그 30명 중에는 전혀 이런 데 접근이 불가능한 일반 주민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군가는 이 4천만원 받은 거에 대해서 영수증처리도 하고 회계사무실에 자료도 넘겨주고 우리가 교육하면 교육도 들어야 하잖아요. 그런 인력의 일자리가 대부분 여성들로 창출이 되어 있어요.”(F)

3) 반려동물산업 분야

- 울산형 뉴딜에서의 반려동물산업 분야는 「문화관광·생활 등 반려친화 인프라 구축」 사업이 있음.
- 「문화관광·생활 등 반려친화 인프라 구축」 사업은 반려동물 양육 가구수 증가로 관련 산업 규모 및 시장 확대에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함.
- 이에, 지역 연관 산업과의 상생 협력 및 취·창업 수요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① 사업의 내용 및 특성

- 울산시는 「Anian³⁾ City 반려친화도시」를 목표로, 울산 시민과 동물이 공존하는 도시를 만들 계획을 세웠음.
- 추진 방향을 살펴보면, 동남권 반려문화 선도도시 위상 확립, 반려동물을 통한 시민 행복 지수 증가, 연관 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가치 창출을 목적으로 함.
- 올바른 반려문화 확산
 - 반려동물문화센터 내 반려문화 전문인력 육성, 울산 교육청과 협업을 통해 반려문화교육 프로그램 교육 보급 등 '올바른 반려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찾아가는 동물사랑교육은 2019년부터인가 했어요. 노옥희 교육감께서, 아마 울산이 전국 최초 일 거예요. 교육청 차원에서 하는 게. 초등학교에 찾아가서 반려견에 대한 예절. 그리고 애들이 개한테 많이 물리는 이유가, 개를 갑자기 덥석 잡아서 물리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주의점, 아이들이 반려동물에 대한 생명 존중감, 그리고 주의점. 그런 부분에 대한 에티켓을 가르치는 거죠. (중략) 지금 반려동물문화센터에서 미용, 훈련, 그 쪽으로 많이 직업훈련교육을 하거든요. 크게 직업에 세 가지인데, 반려견훈련사, 반려견미용사, 그리고 수의간호, 그런 부분에서. 간호 부분은 국가자격증이 되면 저희 센터에서도 교육과정을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센터도 직업 훈련학교로 바꾸려고 하고요.”(M)

3) 애니언은 동물(Animal)과 사람(human) 합성어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뜻임.

○ 미래 반려문화산업 선도

- 반려동물과 함께 걷기 좋은 울산 조성, 사료 반려용품 등 반려산업 분야 취·창업 방안 마련, 반려동물 동반쉼터, 스포츠산업 육성 등 ‘미래 반려문화산업 선도’를 위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저희 지역에 4개의 pet’s park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우리가 애니언스파크라고 해요. 반려견과 같이 들어가는 식당은 애니언레스토랑 이런 식으로 이름을 다 붙여요. 애니언스파크가 뭐냐면 네 개의 주요 관광지가 있어요. 반려견을 데리고 다니는 분들은 같이 산책하는 게 기본이거든요. 그러면 산책하기 좋은 곳이 어딘가? 태화강 국가정원, 울산대공원, 강동정자해변길, 그리고 대왕암 공원. 이렇게 네 군데를 사각형으로 해서 네 군데에 반려관광을 해서 애니언파크로 육성하려고 해요.”(M)

○ 배려와 공존의 반려생활 정착

- 동물학대 및 유기 예방을 위한 특별사법경찰 운영, 시민 대상 동물 학대·유기 예방 프로그램 교육 강화, 울산형 동물복지 모델 구축 등 배려와 공존의 반려생활 정착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동물에 관련된 일에 한정되어 경찰의 권한을 받은 그 일만 할 수 있어요. 동물보호특사경이라 동물학대, 유기 등의 범죄가 있을 때 직접 수사가 가능하죠. 검찰에 송치할 수 있어요. (중략) 작년에 동물학대사건이, 재개발지역에 길고양이 독살사건이 좀 있었는데 저희가 수사는 못하지만 특사경 옷을 입고 길고양이 보호단체분들하고 주변에 전단지를 돌린다든지 홍보활동. 이런 부분에서의 일들은 충분히. 아직은 계도, 홍보는 충분히 할 수 있어요”(M)

〈그림Ⅳ-1〉 「Anian City 반려친화도시」 추진 목표

비 전	<p style="text-align: center;">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Anian City 반려친화도시 울산</p>	
핵심가치	<p style="text-align: center;">생명, 돌봄, 나눔, 치유, 행복</p>	
정책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올바른 반려문화 확산 ○ 미래 반려문화산업 선도 ○ 배려와 공존의 반려생활 정착 	
세부과제 (3대분야 15개과제)	<p>① 올바른 반려문화 확산 (5개 과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반려문화 교육 프로그램 개발 보급 2. 반려동물 문화센터 내 반려문화 전문인력 육성 3. 반려동물 등록 활성화 4. 반려동물로 인한 분쟁예방 교육프로그램 운영 5. 울산형 반려동물 예절교육(UCGC) 인증 제도 확립
	<p>② 미래 반려문화산업 선도 (5개 과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반려동물 동반 체류형 관광 인프라 구축 2. 반려동물 생활산업 육성 3. 반려동물 동반 쉼터 조성 4. 반려스포츠 산업 육성 5. 반려문화산업 박람회 개최
	<p>③ 배려와 공존의 반려생활 정착 (5개 과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동물학대 및 유기 예방을 위한 특별사법경찰 운영 2. 동물 학대·유기 예방 프로그램 교육 3.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 추진 4. 반려문화 육성 관련 조례 제정 및 보완 5. 울산형 동물복지 모델 구축

② 사업의 문제 및 한계점

○ 취·창업을 위한 실무 기회 부족

- 반려동물 교육 후 수습 등 실무를 통해 학습할 기회가 적은 것으로 확인됨.
- 기존에는 작은 솥에서 수습을 하며 실무를 익혔으나, 최근에는 견습생에게 최저시급을 제공해야하는 점 때문에 업주 입장에서 부담을 느껴 수습할 기회가 줄어들고 있음.

“지금은 반려동물산업 쪽으로 엄청 많이 확산되어가고 있는데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먹거리와 케어예요. 그건 아주 기본적인 것이고 가정에서도 보호자가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동네에 보면 미용사가 많죠. 교육양성과정도 스타일리스트나 음식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정작 나와서 실무를 배울 수 있는, 우리가 말하는 견습, 인턴 이 정도인데, 그런 실무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더 취업이나 창업이 힘들 거든요.”(O)

○ 지역 내 강사 풀 부족

- 반려동물 미용, 훈련, 간호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으나, 전문 교육 강사가 울산 내에 많지 않아 타 지역의 강사를 초빙하고 있음.
- 지역 내 전문 교육 강사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이 실시되더라도 약 10년 이상의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어, 단기적으로 지역 내 인적 자원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전문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강사들이 솔직히 울산에 없어요. 전부 서울에서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주말에만 강의해요. 어느 정도 인지도도 있어야 하고, 미용은 협회나 연맹이 주도하는데, 협회나 연맹에 어느 정도 교류가 있고, 실력을 인정받아야. (중략) 보통 강사님이 되든, 원장님이 되든, 직원을 가르치고 훈련시키려면 거의 10년, 20년 되고, 그 업계에서 꽤 관참은 사람들이고 또 어느 학교 교수나 특임교수로 나가는 분들이거든요. 그렇게 되려면 시간이 꽤 오래 걸리죠. 영입해서 여기서 하는 분들은 그게 일반학원 원장님들이신 것이고, 여기서 그렇게 되기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죠.”(N)

○ 취·창업 관리 및 인프라 체계 부족

- 반려동물 관련 교육은 취·창업을 위해 수강하는 경우도 있으나, 반려인이 취미로 접하거나 쉽게 포기하는 등 일로 연결되지 않는 경우가 있음.

“취·창업을 생각하고 어떤 프로그램에 아니면 자격을 갖추려고 하잖아요. (중략) 시간도 여력도 있어서 일을 해야겠다, 이렇게 접근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자격증 딴 후에 어느 정도 수업 과정이 끝나면 일로 연결을 안 하고, 아, 이걸 이렇게. 이걸 이렇게 힘드네, 하고 그냥 포기하는 분들이 많아요.”(O)

- 뿐만 아니라 반려동물산업에서의 창업을 할 경우, 기존 대기업, 중견기업에서 많이 진출하여 신규 업체 창업 다소 위험 부담이 있음.

”수제간식 관련 창업을 한다고 해서 잘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너무 중견기업들이 많으니까. 아시겠지만 웬만한 간식은 요즘 대기업에서도 만드는 추세라. 과연 그렇게 작게 해서 가게를 꾸려갈 수 있을까. 그런데 집에서 간단히 만들고 자기 강아지한테 만들어주는 클래스는 있지만 직업적으로 하기에는 부담스럽죠. 거기에 대해서 돈을 주고 강의를 들었으면 차후에 뭐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제가 확실히. 물론 다 마찬가지로이지만, 된다 안 된다는 보장하기가 힘든 상황이죠.”(N)

- 또한 여성 취·창업과 관련해서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에서 그 역할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반려동물산업과 관련해서는 지역 내 인프라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아직 여기 계신 분들과 직업적인 인프라나 네트워크가 잘 되어 있지는 않아요. 저희가 이런 걸 한다는 건 아시는데, 동물병원, 미용실, 호텔 등에서 필요한 인원을 저희한테 요청하면 저희가 면접 같은 걸 볼 수는 있게 해드리죠.”(N)

- 뿐만 아니라 즉각적으로 취·창업이 연계되지 않을 경우 반려동물산업에서의 교육 수요자 등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데이터베이스 및 적극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함.
- 이를테면, 타지역에서는 단순 교육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이들이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 및 취업 연계를 위해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으나, 울산시는 이와 관련된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임.

“저희들이 일단 처음에 출발할 때는 구청에서 하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쪽의 여성인력양성, 이 프로그램으로 처음에 출발했습니다. (중략) 그랬는데 이분들이 정작 어디 취업하기 힘들어서 추후 강사로 배출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연결해서 진행했어요 거기에서 강사가 배출되고,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에 개인이 참여해서 강사가 된 분들도 계시죠. 그래서 이 강사들이 센터, 대학 등에서 활동 중이죠. (중략) 뿐만 아니라 고등학교도 요즘은 특성화고에서 반려동물과가 많이 생기고 있어요. 거기에 간단하게는 동아리운영반의 선생님이로 나가시고, 전담선생님이 되기에는 교직원 자격을 이수 하셔야 하니까 그 부분은 힘든데 추가 방과후 활동이나 동아리수업의 강사로 활동하시죠.”(O)

③ 일자리 창출 및 취·창업 지원을 위한 활성화 방안

○ 지자체 차원의 비용 지원

- 반려동물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취·창업 전에 필수적으로 이뤄지는 실무경험이 확보되어야 함.
- 하지만 인건비 지급에 대한 업주들의 부담에 따라 견습, 인턴 등 실무경험이 부족하며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견습을 하자면, 내가 기술이 살아 있는 생명을 다루는 부분이라 기술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 학원에서 배우든, 교육기관에서 배우든 배웠다고 하면 실제로 응용할 수 있는 건 실무를 해봐야 하는 건데, 이 사람의 실력을 더 키워줄 수 있는 업주들에게 부담이 있는 거예요. 시간의 노동의 대가를 치러야하기 때문에, 최저시급을 인정해야 하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서. 작은 샵에서도 실무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배울 수 있는데, 그 부분이 부담스러워서 못 해주거든요.”(O)

○ 지역 내 강사 양성 및 역량 강화

- 현재 울산시는 반려문화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향후 동물매개, 보건·장례·돌봄 등 관련 분야는 보다 확장돼 관련 분야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임.

“매년 300학급씩, 최근 2년간은 코로나 때문에 대면이 어려웠는데요. 지금은 조금씩 늘어나면서 센터는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와요. 이제 살살 예약이 들어온대요. 아무래도 백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전문강사들을 조금씩은. 지금은 직원들이 다 하는데, 그런 쪽으로 많이 늘어나면 강사도 채용이 가능하겠죠.”(M)

“요즘은 동물매개로 눈을 많이 돌리고 있어서, 동물을 매개로 해서 노인의 우울감 해소, 정서 교육, 이런 쪽으로도 강사 양성도 계획 중에 있습니다.”(O)

-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울산시 내에 강사풀이 많지 않아 외부에서 강사를 초빙해야 하는 경우가 많음.
-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 뿐 아니라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실시하는 방과 후 또는 동아리활동 등 교육의 영역이 확대되고 있음.

- 이에, 울산시 내 반려교육 관련 교육의 질적, 양적 증대를 위해서는 울산시 내에서 자체적으로 강사 양성 및 역량 강화 필요성이 제기됨.

“요즘은 특성화고에서 반려동물과가 많이 생기고 있어요. 거기에 간단하게는 동아리운영반의 선생님이 나오시고, 전담선생님이 되기에는 교직원 자격을 이수 하셔야 하니까 그 부분은 힘든데 추가 방과후 활동이나 동아리수업의 강사로 활동하시죠.”(O)

○ 취·창업 연계 시스템 구축

- 타지역에서는 반려동물산업 분야에서의 수요와 공급이 미스매칭이 되어 자발적으로 마을기업을 설립하여 운영 중에 있음.

“지금은 취업이 사실상 힘들잖아요. 양성되어 나오는 인력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자발적으로 어디에 취·창업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서 저희가 협동조합을 18년에 설립했는데요. OO구에 있는 인력을 바탕으로 해서 반려동물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해보자는 취지를 가지고 시작했습니다.”(O)

- 반려동물산업 관련 교육 수강생 관리 및 취업 수요처 등을 발굴하여 취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④ 사업과 연계된 일자리 분야

○ 「문화관광·생활 등 반려친화 인프라 구축」은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 증가 및 반려산업 규모와 관련시장 확대에 따라 취·창업 수요 확대를 전망하며, 해당 사업에서 확장될 수 있는 일자리를 예측하면 다음과 같음.

• 반려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 강사

- 전국 최초로 교육청 차원에서 울산시 내 300학급을 방문하여 반려견에 대한 예절, 주의점 등에 대해 설명하는 찾아가는 동물사랑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해 교육이 적으나, 향후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질 경우 교육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 강사 수가 부족할 것으로 보임.
- 또한 지역아동센터 연계하여 아이들에게 반려동물 산업에 대한 진로교육, 진로직업체험을 제공할 경우 추가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울산교육청의 찾아가는 동물 교실을 내년부터는 아마 센터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300학급 규모거든요. 다녀야 하는데 그건 고정직원들이 하기는 어렵고요, 센터에서 받아서 외주를. 물론 전문강사들이죠. 전문강사들을 일시적으로라도 채용을 해서 학교에 찾아가면서 강사교육을 할 수 있도록 (중략) 초등학교에 찾아가서 반려견에 대한 예절. 그리고 애들이 개한테 많이 물리는 이유가, 개를 갑자기 덱싱 잡아서 물리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주의점, 아이들이 반려동물에 대한 생명 존중감, 그리고 주의점. 그런 부분에 대한 에티켓을 가르치는 거죠. 매년 300학급씩 (중략) 지금은 직원들이 다 하는데, 그런 쪽으로 많이 늘어나면 강사도 채용이 가능하겠죠. (중략) 센터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직원들이 대부분 커버하는데 방금 말씀 드린 체험, 놀이, 이런 부분의 수요가 늘어나면 별도의 인원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해서 지역 아동센터 아이들은 직업진로에 대해서 교육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M)

“코로나19 종식되면 동물사랑교육에 초등이 많이 올 것이고 지금은 초등은 거의 못 오고 유치원 하고 어린이집은 문의가 와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어요.”(N)

- 반려동물안전관리캠페인, 동물등록보안관 관련 일자리는 육체적 부담이 없어 여성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작년에 35명, 올해는 55명 정도 희망일자리에 반려동물캠페인을 하고 있어요. 이게 단기 일자리인 한데. 그리고 우리가 남녀차별로 채용하지는 않지만 여성분들이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첫째로 육체적으로 큰 부담이 없고요. 공원에서 4시간 정도 계모만 하는 목줄하세요, 라고 한다든지, 순찰하시고 그렇게 옷을 갖춰 입고 다니기만 해도 개를 데리고 다니는 분들은 압박감을 느끼니까 (중략) 반려동물안전관리캠페인 그건 태화강 주변으로 집중적으로 하고요. 동물등록보안관, 이걸 울산대공원 안에서 7명이 해서, 올해의 경우 50명 넘게 해요. 이런 부분에서도 일자리가. 그런 반려동물 관련 일자리가 그런 식으로 늘어나는 거죠.”(M)

• 반려동물 동반 관광 전문 가이드

- 반려견과 함께 여행하는 반려관광이 활성화될 경우, 반려관광을 전문적으로 안내하는 가이드에 대한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보임.
- 반려관광을 패키지화하여 반려동물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교통시설, 반려동물 간식 만들기 체험, 반려동물과의 산책, 반려동물 입장 가능한 식당 등을 연계할 수 있을 것이며 이에 대한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임.

“반려관광. 이걸 반려견과 함께 하는 여행이 요즘 컨셉이예요. (중략) 반려관광부분에서 관광 수요가 늘어난다면, 저희가 관광안내소에 반려관광을 전문으로 가이드하는 분들도 필요할 것 같고요. 울산관광협회에서도 관광 포스트마다 반려관광에 대한 안내는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M)

“우리 센터가 한 군데랑 협약을 해서 시제품이 나왔어요. 아직은 취약한데, 두서면의 모더니에 라고 해서 식용곤충을 생산하는 업체가 있어요. 거기서 부산물로 반려견 사료 시제품이 나왔어요. 그래서 협약은 해서 센터 안에 있는 판매장에서 시범적으로 팔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관광이 활성화되면 반려견 수제간식을 만드는 쪽으로도 한번 가보는 거죠. 패키지여행이라는 게 체험이잖아요. 반려견 관련 체험관광이니까. 울산에 오시면, 이런 거죠 전용기차를 타고 울산에 와서. 반려견 하고 같이. 전용버스를 타고 애니언파크에 가고, 애니언파크에서 태화강 국가정원도 가고, 수제 간식을 만드는 체험장에 가서 개는 놀고 있고 사람은 간식을 만들고 만든 간식을 자기 개한테 먹이고. 그런 부분을 패키지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센터에서도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있고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이 사이클이 돌아가면 고용창출이 되는 부분은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하죠.”(M)

• 반려동물 관련 전문가 : 의료, 미용, 훈련 등

- 광역유기동물보호센터가 생긴다면 전문 미용사, 수의사, 훈련사, 상담사에 대한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보임.

“유기동물보호센터가 동물을 처리하는 곳만은 아니예요. 입양 보내고 치료하고 상담하고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만약 광역유기동물보호센터가 생긴다면 여기에 전문 미용사, 치료는 수의사가 하겠지만, 훈련사. 왜냐하면 입양을 보내려면 교육을 시켜서 보내야 해요. 예절교육, 행동 교정. 이런 거에 대한 교육하는 훈련사. 그리고 현장에서 사람들이 오면 상담사도 필요하고. 동물매개치료,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의 일자리는 생기는 거죠.”(M)

- 반려동물문화센터에서 제공하는 교육은 크게 미용, 훈련, 간호 3가지이며, 미용 분야의 경우 타 분야 대비 취·창업이 쉬우므로 수강생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전문가 육성 교육을 통해 향후 반려견훈련사, 반려견미용사, 수의간호 관련 교육 수요자가 증가하여 취·창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반려문화부분인데, 연관 산업분야는 올 10월에 반려문화산업박람회를 1회로 하면서 이걸 계기로 지역에 반려산업 관련해서 창업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여성들이예요. 특히 수제간식이나 간단한 용품, 이런 부분에서 소규모 창업하는 분들이 여성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작은 수제 간식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물론 요리라는 부분에서 용어들이 적합하지 않을 수 있지만, 저희 쪽에 창업하고 인허가 하러 오는 분들이 대부분 여성이고요. 그리고 이런 간식 용품에서의 수요는 늘어날 것이고,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면 지금 반려동물문화센터에서 미용, 훈련, 그 쪽으로 많이 직업훈련교육을 하거든요. (중략) 직업훈련은 시간이 훈련비더라고요. 그래서 늘어져 있는 게 많은 거예요. 한 시간이면 충분한 걸. 교육훈련원이 늘려서. 물론 더 배우시면 좋겠지만. 저희 쪽에서는 그걸 콤팩트하게 압축해서. 단기간에 자격증은 취득하시고, 거기서 심화할 사람들은 시내에서 전문 강사들에게 전문학원에서 급수를 높여서 딸 수 있도록 연계직업을 하고 있어요. 크게 직업에 세 가지인데, 반려견훈련사, 반려견미용사, 그리고 수의간호, 그런 부분에서. 간호부분은 국가자격증이 되면 저희 센터에서도 교육과정을 만들려고 하거든요”(M)

“일단 기본적으로 강아지를 좋아하셔야 하고. 싫어하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항상 먼저 줘야 하고 하니까. 그리고 지금 시장이 좋아지고는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인력을 요구하지는 않아요. 좀 부족하기도 하고. 일례로 자기 강아지를 미용을 시키려면 한 달에서 두 달을 대기해야 해요. 보통 2주에서 한 달을 대기해요. 굉장히 일손이 부족한 건 맞아요. 그래서 미용 쪽으로 관심이 치우치고 있는데, 또 그쪽으로도 치우치다 보면 거기도 포화되고. 어떻게 할 건지 잘 판단을 하셔서. 물론 그런 걸 저희가 도움을 드리긴 하지만, 미용, 훈련, 간호, 큰 틀이 세 가지라면 지금은 미용에 너무 많이 치우쳐 있어요. 문의가 100명이라면 90명은 미용 쪽이에요. 그게 창업하기도 쉽고, 취업이 금방 가능하니까”(N)

• 기타분야 : 돌봄, 장례, 반려동물 구조대 등

- 불가피한 상황으로 반려동물을 돌보지 못할 때 남겨진 반려동물을 돌봐주는 돌봄사업, 반려동물이 죽은 후 장례 치르는 것을 도와주는 반려동물장례지도사, 펫과 함께 탑승 가능한 펫 택시 운전기사 등에 대한 일자리가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지금 코로나 사업을 하고 있는 게 남겨진 반려동물 돌봄사업이에요. 코로나로 격리가 되면 반려동물을 케어 할 수가 없잖아요.”(M)

“지금도 많이 하고 있는 거지만, 죽을 때 행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요즘은 장례를 치러주니까, 반려동물장례지도사가 있어요. 민간자격증이죠. 예전에는 강아지나 고양이가 죽으면 쓰레기봉투에 넣어 버렸는데, 지금은 그래도 되긴 하지만 거의 장례를 많이 치르죠. 아니면 비용을 주고 동물병원에 주면 알아서 처리해주긴 하죠. 그래도 요즘은 10년 이상 키운 반려동물이면 장례를 치러줘요. 그리고 장례식장도 생기고 있고 장례지도사도 어쨌든 그렇지만 많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N)

“반려동물을 잃었을 때 가족을 잃은 것처럼 슬픔이 크니, 상실감을 위한 심리치료가던가... (중략) 반려동물의 라이프플래너가 훨씬 창업이 밝지 않을까 싶어요.”(P)

“펫택시라고 그 쪽도 다 차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급하게 이동할 때는. 강아지 안 태우는 기사분들도 많으니까. 울산이 새로 움직인다는 얘기는 들었거든요. 울산에도 펫택시 뭐가 있다고 들어요. 그것도 여자들이 충분히 가능하죠. 면허 있으면. 그것도 들어갈 수 있는 분야 같아요”(N)

- 최근 반려인이 대형화재현장에서 구조되어 구급차에 탑승하였는데 반려동물이 구급차에 동반 탑승할 수 없어 해당 반려동물의 돌봄이 문제가 된 적이 있었음.
- 향후 미래에는 재난현장에 사람을 구조하는 구조대와 반려동물 구조대(동물 전담 구조 구급대)가 같이 출동하는 반려동물 구조대, 반려동물 구급차 수송인력에 대한 일자리가 신규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얼마 전에 울산에 화재 났었잖아요. 신문 기사에 보면 반려견 얘기가 나와요. 견주가 대피를 했는데 연기를 마셔서 병원에 가야 하는데, 개를 데리고 내려왔어요. 그런데 구급차에 개를 안 태워주는 거예요. 그런데 개를 놔두고 가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 화재상황에서 놔두고 가면 개가 100% 죽거나, 거기가 대로변이라 개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견주가 안고 있다가 지나가는 구경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내가 여기 사는 사람인데 병원에 가야 하는데 맞은편에 수의사회장님이 사는데 거기다 데려다 달라고. 그래서 전혀 모르는 학생들이 그 개를 받아서 병원에 데려다 준 거예요. 그런 서비스는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 그래서 저희가 소방본부의 중앙정책협의회에 올렸어요. 대형화재 현장에서나 대피를 하거나 구조자가 병원에 갔을 때 만약 주변에 반려견이 남아 있다면 여기에 대한 돌봄을 어떻게 할 것인가. 1차적으로 소방에서 개나 고양이를 케이지에 넣고 해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다 라고 보고는 했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소방에서 우리는 사람만 이렇게 한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동물소방사죠. 동물 전담 구조구급대가 생겨야 하는 거죠. 대형화재현장에 출동할 때 십자가 그려진 앰불런스와 함께 개나 고양이 그림이 그려진 동물구조대가 같이 가야 하는 거죠.”(M)

3. 시사점

- 본 연구는 울산형 뉴딜에서의 여성 일자리를 논하고 있으며, 여성이 진입 가능한 분야는 ‘디지털경제, 사회적경제, 반려동물산업’으로 나타나 다소 협소한 것으로 나타남.
- 경제·사회 전반의 활동축의 변화를 예측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여성이 진입할 수 있는 분야는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산업구조 상 여성의 일자리 진입이 어려운 특성을 가지고 있는 만큼 당초 뉴딜정책 계획 수립 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정책 수립 시 성평등 관점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뉴딜정책에서의 여성 일자리가 창출이 되기까지 소정의 교육을 통해 취·창업이 가능한 분야도 있으나, 사업이 안정화되는 등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됨. 이에, 지속가능한 일자리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교육 등 자기개발이 수반되어야 함.
- 뿐만 아니라 관련 분야에서의 교육 수강 후 즉각적으로 취·창업으로 연계되지 못할 경우 추후 수요에 따른 인력이 연계될 수 있도록 관련 데이터베이스 관리도 필요한 것으로 보임.
- 본 연구를 통해 여성은 코로나19로 인한 자녀돌봄, 경력단절로 인해 여성이 재진입하기 위해서는 경직된 일자리(풀타임)가 아닌 유연하게 근무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일자리(파트타임)가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남.
- 다만, ‘파트타임’ 일자리를 선호한다는 것은 저임금·불안정한 일자리가 아닌, 돌봄·가사 등을 병행하며 유지할 수 있는 하거나, 경력단절로 인한 공백을 채울 수 있는 일자리를 의미함.
- 이를테면 IT·SW분야에서는 경력 공백이 있는 여성이 기존 경력을 활용해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내는 것이 필요하며, 이들은 무엇보다 시간을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무환경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남.
- 즉, 청년여성에 비해 경력단절 또는 육아를 전담하고 있는 여성은 상근직 및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것에 부담을 느껴 프리랜서·비상근직으로 근무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일자리에 대한 인식 및 수요는 상이하며 여성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 즉, 무조건적인 풀타임의 일자리를 논하는 것이 아닌,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즉, 기존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다양한 맥락에서 일자리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 또한 울산형 뉴딜에서 창출될 수 있는 일자리는 마을·반려견 등을 ‘돌봄’의 성격이 강하며, 여성의 세심함과 공감능력은 사업의 공동체적 성격에 부합한 것으로 나타남.
- 4차산업시대에는 여성이 가지고 있는 강점은 관련 산업에 대응할 수 있는 필수요인이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이에, “여성의 역할=돌봄=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사회를 돌보고 정당한 일자리로 인정받을 수 있어야하며 그 동안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 여성의 일자리 분야 등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표Ⅳ-4〉 면접조사 결과

구분	디지털경제	사회적경제	반려동물산업
사업의 내용 및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박사급 핵심인력양성, 산업 현장 인력양성, 디지털 꿈나무 양성 등 디지털 인력양성 실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주민 주도의 공동체 활성화, 생활자치 실현,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마을기업 및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여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발전과 지역 일자리 창출의 기반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려동물 양육 가구수 증가로, 지역 연관 산업과의 상생 협력 및 취·창업 수요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사업의 문제 및 한계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현장에 보다 적합한 교육 대상자 발굴의 어려움 • 교육수요 파악의 어려움 • 지속적인 고용 보장의 어려움 • 창업생태계 구축의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뉴딜 사업에 대한 이해 및 운영역량 부족 • 주체적 사업운영 및 지속가능성의 어려움 • 여성의 대표성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창업을 위한 실무 기회 부족 • 지역 내 강사 풀 부족 • 취·창업 관리 및 인프라 체계 부족
일자리 창출 및 취·창업 지원을 위한 활성화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과학술인 데이터베이스 구축 • 취·창업과 연계할 수 있는 수요 조사 실시 • 창업 기초교육 및 역량강화 등 원스톱 지원 체계 구축 • 고용 유지를 위한 여성친화적인 조직문화 조성 • 정책수요를 기반으로 한 공공시장 개척 •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및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 특성에 기반한 운영방안 모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 : 마을에 대한 이해 및 사업의 선순환 생태계 구축 - 사업 참여자: 주민참여 활성화 및 전문성 강화 - 총괄 관리자: 유사기능의 직접화 • 여성 대표성 제고 방안 모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 차원의 비용 지원 • 지역 내 강사 양성 및 역량 강화 • 취·창업 연계 시스템 구축
사업과 연계된 일자리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W교육 전문 강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친화적 '일거리' 확대 • (가칭) 마을연구소 운영 : 마을 연구자 • 마을별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려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 강사 • 반려동물 동반 관광 전문 가이드 • 반려동물 관련 전문가 : 의료, 미용, 훈련 등 • 기타분야 : 돌봄, 장례, 반려동물 구조대 등



V

울산형 뉴딜을 통한 여성 일자리 정책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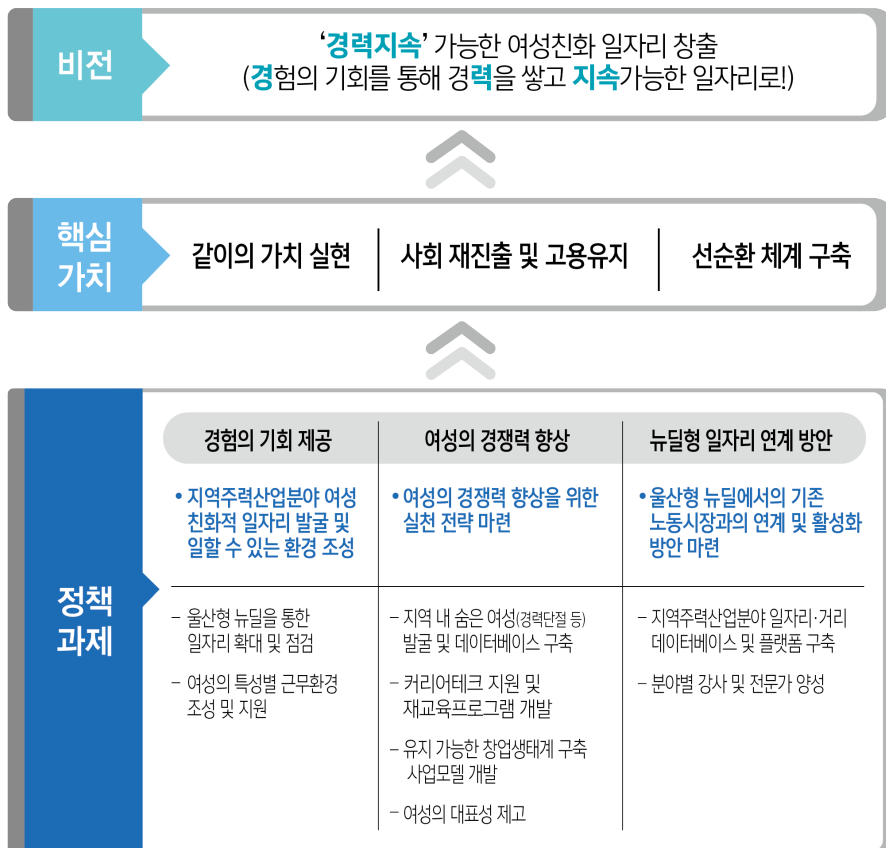
1. 정책방향
2. 정책과제
3. 핵심전략

V 울산형 뉴딜을 통한 여성 일자리 정책과제

1. 정책방향

- 본 연구는 울산형 뉴딜을 통한 일자리 감소 문제 완화 및 동시에 새로운 영역에서의 양질의 여성 일자리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경력지속 가능한 여성친화 일자리 창출’이라는 비전 아래 경험의 기회 제공, 여성의 경쟁력 향상, 뉴딜형 일자리 연계 방안 측면에서 여성 일자리 방향을 도출하였음.

〈그림 V-1〉 울산형 뉴딜을 통한 여성 일자리 비전 및 추진방향



- 울산형 뉴딜을 통한 여성 일자리는 ‘경험의 기회를 통해 경력을 쌓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함.
- 이를 위해 ‘같이의 가치 실현’, ‘사회 재진출 및 고용유지’, ‘선순환 체계 구축’이라는 핵심가치 실현을 위한 추진 방향은 다음과 같음.

1) 경험의 기회 제공

- 울산은 그 동안 산업도시 및 제조업 등 남성 일자리 중심의 도시로 기억되고 있음. 4차산업혁명, 코로나19 등 고용시장의 변화가 예측되나, 여성은 상대적으로 주력산업에 배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사료됨.
- 하지만 미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울산형 뉴딜’에서는 그 동안 소외되어 온 여성의 사회참여를 보다 적극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음.
- 기존 일자리와 달리 울산형 뉴딜에서는 여성의 일거리·일자리에 대한 경험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지역주력산업분야의 여성 친화적 일자리 발굴 및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함.

2) 여성의 경쟁력 향상

- 울산형 뉴딜은 변화된 산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새로운 기술을 습득한 인재에 대한 요구가 포착됨. 전문분야는 경험(력)이 있는 여성의 재진입이 보다 성공적일 수 있음.
- 사회 재진출 및 고용 유지를 위해서는 지역 내 숨은 여성을 발굴하고 이들의 동기부여 및 경력개발·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기존 경력단절(보유) 여성의 경력 발굴 및 적재적소에 배치될 수 있도록 관리 뿐 아니라 이들의 경력개발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여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실천 전략 마련이 이뤄져야 함.

3) 뉴딜형 일자리 연계 방안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새로운 산업에서 여성인력의 전문적·안정적인 사회 진입 및 유지를 위해서는 여성친화 일자리 구축 및 경쟁력 향상이 필수적임.
- 또한 주도적으로 경력을 쌓고 지속가능한 일자리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선순환 체계 구축'이 필요함.
- 하지만 현재 울산형 뉴딜 안에서의 사업 활성화 및 기존의 노동시장을 이어줄 수 있는 연계 방안이 미흡한 것이 현실임.
- 이에, 뉴딜형 일자리와 기존의 노동시장이 시너지를 내며 자리매김 할 수 있는 실천전략이 필요함.

2. 정책과제

1) 지역주력산업분야 여성 친화적 일자리 발굴 및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울산형 뉴딜은 4차산업혁명시대에 지역을 선도할 산업 분야이며, 이에 따라 관련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측됨.
- 울산은 출산·육아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보유) 여성이 많으며, 다시 사회로의 재진입을 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것이 필요함.
- 특히, 경력단절(보유) 여성은 돌봄에 대한 부담 및 노동시장 재진입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음. 이에, 여성이 포기하지 않고 사회참여를 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이 필요함.
- 이를테면, 디지털경제 분야는 고숙련 전문직뿐 아니라 대규모 저숙련 노동력이 요구되는 등 일자리 스펙트럼이 넓고, 시간과 공간을 선택할 수 있어 여성의 일·생활(가정) 균형의 요구를 만족시켜 여성 친화적인 일자리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음.
- 하지만 IT·SW·AI 등 교육에 대한 동기유발 부족 및 교육을 통해 청사진을 그리는 것이 어려워 여성들에게는 진입장벽이 높게 느껴지는 것으로 나타남.
- 사회적경제 분야에서는 고정적인 시간에 근무하는 '일자리'가 아닌 4~6시간 정도로 마을을 돌보는 일거리가 많았음.

- 본 연구를 통해 여성 친화적 일자리가 창출 가능한 분야를 발굴하였으며, 해당 사업은 보다 확장될 것으로 사료됨. 이에, 여성들이 두려움과 거부감 없이 경험해 볼 수 있고 진입 가능하도록 지속적인 점검 및 모니터링이 필요함.
- 이는 향후 지역주력산업분야에서의 여성 친화적 일자리 발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또한 현재 출산과 육아의 일은 여성에게 많이 부담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경력단절이 발생하고 재진입하기 위해서는 근무환경이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밝혀짐.
- 즉, 여성의 특성에 따라 상근직 및 정규직, 프리랜서·비상근직 등 선호하는 근무 형태가 상이하게 나타남. 이는 무조건적인 풀타임의 일자리를 논하는 것이 아닌, 기존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여성의 특성에 따라 일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및 지원이 필요함.

2) 여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실천 전략 마련

- 디지털경제 등과 같이 전문 분야의 사회 재진출을 위해서는 관련 경력이 있는 대상이 보다 적합함.
- 하지만 지역 내 경력이 단절된 고경력·고학력 여성과학기술인을 발굴하는 것은 쉽지 않아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고, 숨어 있는 인력 발굴 및 참여 확대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필요함.
- 또한 경력을 유지해나갈 수 있도록 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수요조사가 이뤄져야 하며, 재직자의 업무지속 및 효율성을 위한 커리어 테크 지원 및 재교육프로그램 개발도 뒷받침 되어야 할 것임.
- 한편, 사회적경제, 반려동물산업 등 해당 사업에서도 적합한 인력 양성을 위해 교육 및 자격증 취득이 이뤄지며, 일자리로 연결되기까지 일정 시간이 소요됨. 즉각적으로 취·창업으로 연계되지 못할 경우 지속적인 인력양성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닌 추후 수요에 적합한 인력이 연계될 수 있도록 관련 데이터 베이스도 함께 구축되어야 함.

- 다음으로 디지털경제, 사회적경제 반려동물산업 분야 등에서 협동조합의 형태로 창업하는 사례가 많이 포착됨.
- 이들은 지자체나 국비의 지원 없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자립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기반 구축이 중요하며, 주민주도(Bottom-Up) 방식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양적성장(고용률 등)이 아닌 마을주민 자체적으로 지속가능한 운영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함.
- 운영 초기에 금전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닌, 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와 청사진을 그릴 수 있어야하며, 정책수요를 기반으로 한 사업은 공공에서 다양한 기회(공공시장 개척, 지자체 차원의 비용 지원 등)를 줄 수 있어야 함.
- 나아가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사업운영 지원 및 컨설팅, 내부 구성원 및 리더 역량강화 지원 등 주체적으로 유지 가능한 창업생태계 및 사업모델 개발이 필요함.
- 한편, 대부분의 사업은 여성에 의해 움직이고 있으나, 사업의 방향을 결정하는 대표 등은 대부분 남성으로 구성되어 있음. 여성이 목소리를 내고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였을 때 여성들에게 보다 필요하고 친화적인 일자리로 만들어 나갈 수 있음. 이에 여성의 적극적인 참여 및 리더십으로 끌어올릴 수 있어야 함.

3) 울산형 뉴딜에서의 기존 노동시장과의 연계 및 활성화 방안 마련

- 본 연구에서는 울산형 뉴딜 안에서의 진출 가능한 분야를 살펴보았으며, 여성이 구인·구직 활동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은 부재한 것으로 나타남. 즉, 기존 노동시장과의 연계가 미흡함.
- 변화하는 산업의 흐름에 따라 일자리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하나, 지역 내 여성 일자리 플랫폼은 현저하게 적으며 그 역시도 이러한 변화에 맞춰 움직이고 있지 못해 일자리 플랫폼은 확장될 필요가 있음.

- 새로운 전달체계 구축을 제안하는 것이 아닌 지역주력산업 분야에 따른 일거리·일자리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아우를 수 있는 컨트롤 타워로서 역할이 필요함.
- 또한 지속가능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어야 함. 이에, 해당 분야별로 공통된 일자리는 교육과 연계되어 강사양성이 필요함. 뿐만 아니라 해당 분야의 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갈 수 있는 전문가 양성(마을코디네이터, 여성의 고용유지를 위한 커리어개발 컨설턴트 등)이 반드시 이뤄져야 함.
- 한편, 울산형 뉴딜 '사회적경제 분야'에서의 여성 일자리 창출 및 취·창업 지원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단계별 정책과제 추진전략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① 단기과제

- 사회적경제 분야의 마을뉴딜사업이 안정되기 위해서는 마을운영 및 인력활용방안에 대한 고민이 동시에 이뤄져야 함. 이에 여성 일자리 창출 및 취·창업 지원을 위한 단기과제로 '마을에 대한 점검 및 일거리 발굴'을 제안함.
- 현재 마을뉴딜 사업은 운영 중에 있으나, 마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 현실임. 이에, 마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 자원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 이를 토대로 마을 뉴딜사업에서 여성에게 경험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일거리를 발굴하여 여성친화적 및 진입 가능한 분야를 제안하고자 함.

② 중기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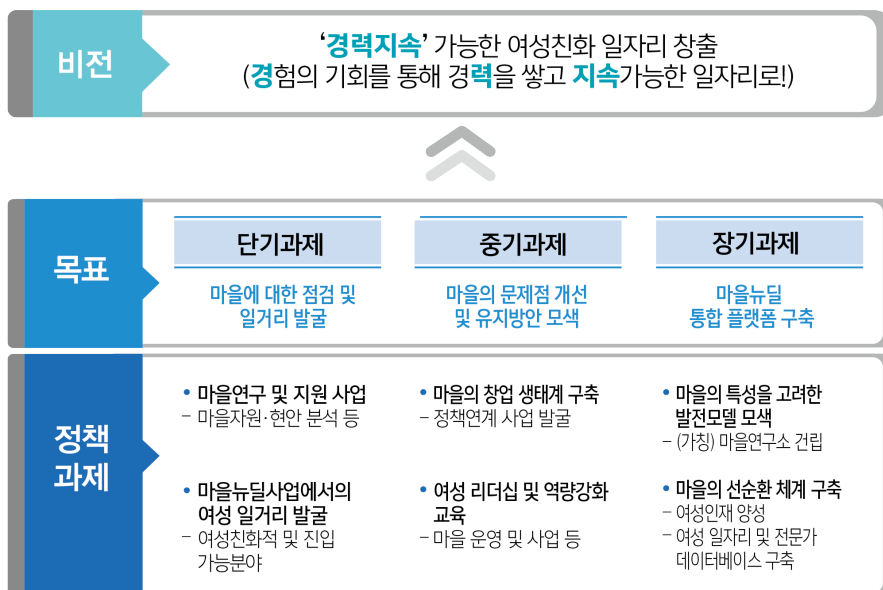
- 중기과제는 '마을의 문제점 개선 및 유지방안 모색'이 필요함.
- 현재 마을뉴딜 사업은 마을 주민의 분석에 의해 사업을 제안하였음.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단기과제에서 제시한 마을에 대한 현안 분석을 기반으로 하여 이윤을 낼 수 있는 방향을 다각도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이를테면 지역 내 유희공간 및 앵커시설을 통한 마을의 창업 생태계 구축 및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정책사업과 연계를 들 수 있음.

- 현재 마을은 공공의 기회 및 자원 등을 활용하여 성장할 필요가 있음.
- 나아가 사업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마을의 인력의 역량강화가 반드시 이뤄져야 함. 이에, 여성의 대표성 제고를 위한 리더십 교육 뿐 아니라 마을 운영 및 사업 전반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③ 장기과제

- 성공적인 마을뉴딜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마을에 대한 이해 및 사업의 선순환 생태계 구축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마을뉴딜 통합 플랫폼 구축’을 제안함.
- 이에, 마을의 지속가능한 기반 마련을 위해서는 마을을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고 특성을 고려한 발전모델을 제시할 수 있는 (가칭) 마을연구소가 필요함.
- 또한 마을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갈 수 있는 전문가 양성(마을코디네이터 등)이 반드시 뒷받침 되어야 함.
- 한편, 울산형 뉴딜에서 진행되는 사업과 기존 노동시장을 아우를 수 있는 플랫폼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이에 기존 노동시장과의 연계가 필요하므로 마을에 어떠한 일거리와 일자리가 있는지 등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그림V-2〉 울산형 뉴딜에서의 여성 일자리 추진전략 : 사회적경제 분야



3. 핵심전략

- 울산형 뉴딜에서 여성 일자리 창출 가능 분야는 상이하였으나,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공통된 전략은 다음과 같음.

1) 인력 데이터베이스 구축

- 울산형 뉴딜에서 여성 일자리를 논할 때 공통적인 문제로 지적된 사항은 일할 사람의 부족(재)하다는 것임.
- 하지만 많은 여성들은 취·창업을 위해 역량강화를 하거나 구직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음.
- 이는 일할 사람이 부족하다는 것이 아닌, 일할 사람을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는 인력 데이터베이스가 부족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또한 한 분야에서의 지속적으로 경력을 쌓아야 전문가로 양성될 수 있으나, 관리가 미흡하다 보니 인적자원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임.
- 이에, 울산형 뉴딜에서의 다양한 사업은 앞으로 확대될 것이므로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고, 숨어 있는 경력단절(보유) 고경력·고학력 여성 뿐 아니라 관련 분야의 교육 등으로 자격을 갖춘 지역 내 인력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인력 데이터베이스 구축 시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근거해 합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안 모색도 함께 이뤄져야 함.

2) 온라인 플랫폼 구축

- 교육 관련 수요자와 공급자 중간에 공적인 매개체(플랫폼)에 대한 수요가 도출됨. 이를테면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강의활동을 할 경우 정기 교육 외에도 소규모 온라인 강의 등 상시 교육을 할 수 있어 교육 시간 및 범위를 확대할 수 있음.
- 또한 플랫폼 상에 강사풀을 공개 운영할 경우 수요자 입장에서는 커리큘럼에 맞는 강사를 섭외할 수 있으며 공급자 입장에서는 강사들의 교육 현장 진출이

용이하다는 장점을 기대할 수 있음.

3) 여성 대표성 제고 방안 모색

- 4차산업혁명 시대에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여성리더십이 더욱 중요한 역량으로 대두됨.
- 여성들이 각 분야에서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동등하게 일하기 위해서는 대표성 제고를 위한 리더십 개발 지원 및 역량강화 방안 모색이 이뤄져야 함.
- 또한 울산형 뉴딜에서 창출될 수 있는 일자리는 '돌봄'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나타남. 그 동안 '돌봄'과 관련된 노동은 여성들이 주로 하고, 진입장벽이 낮아 누구나 할 수 있는 편하된 노동으로 치부되어 옴.
- 여성의 대표성 제고를 위해서는 여성 노동에 대한 정당한 가치평가와 사회적 인정이 뒷받침 되어야 함. 이에 일자리에 대한 재점검 및 정당한 일자리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방안 모색이 필요함.

참고문헌

웹사이트

- 울산광역시청 <http://www.ulsan.go.kr>
- 통계청 홈페이지 <http://kosis.kr>
- 한경 경제용어사전 <http://dic.hankyung.com>

중앙·지방자치단체 계획 및 보고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19). ICT 인력동향실태조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관계부처합동(2020). 사회적경제에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
- 관계부처합동(2021). '21년 사회적경제 정책방향
- 여성가족부(2013). 여성친화적 협동조합 및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통한 여성 일자리 창출방안 연구. 여성가족부.
- 울산광역시(2019). 울산광역시 사회적경제 종합발전계획. 울산광역시.

보도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21.05.18.). 2020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 보도자료.
- 데일리경제(2020.06.12.). 서울시, 반려동물 기르는 취약계층에 의료서비스등 복지지원 사업 강화. <http://www.kdpres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5764>.
- 아시아경제(2021.08.10.). 커지는 반려동물 시장...유통업계 속도전. <https://view.asiae.co.kr/article/2021081009050138027?form=MY01SV&OCID=MY01SV>.
- IT조선(2021.05.08.). 반려동물 모시기 나선 유통업계, IT조선. http://it.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5/07/2021050701746.html.
- 여성가족부(2021.03.04.). 코로나19 여성 고용충격 회복에 중점, 여성 일자리 체질개선에도 착수. 보도자료.
- 월간마이더스(2017.11.06.) '블루오션'으로 떠오르는 반려동물 일자리. http://www.yonhapmidas.com/article/171106194611_314440.

- 한겨레(2020. 7. 27.). “한국판 뉴딜 성공하려면 ‘사람 중심’ 사회적 경제 원리 작동해야”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55325.html#csidx541fbd6c9f50104834fc6ce16532c72

□ 연구보고서

- 강현아(2015).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한 광주지역 여성친화적 일자리 확대 방안 연구. 광주여성재단
- 김명화·김재경(2014). 경북여성 사회적경제 일자리 창출실태 및 활성화 방안. 경북여성정책개발원.
- 김문연·강영훈·황진호·김상우·박재영·김상락(2017). 제4차 산업혁명과 울산의 대응 방향. 울산발전연구원.
- 선미정(2019). 제주지역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제주여성가족연구원.
- 손영훈(2014). 한국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저도적, 실증적 연구. 경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유아랑(2020). 울산광역시 취업 여성 근로 실태 및 고용 활성화 방안 연구. 울산여성가족개발원.
- 이성은(2009). 서울시 사회적 기업의 여성친화지수 분석.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정형옥(2016). 사회적경제조직의 여성고용실태와 과제.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 최금숙·김혜영(2014). 여성의 주민자치 참여 활성화를 통한 마을중심 여성일자리 확대방안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최지은·고세란·오윤석(2020). ICT 분야 경력단절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제고 방안 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최청락·박갑제·우지효(2011). 부산지역 사회서비스분야 여성고용 창출방안 연구. 부산여성가족개발원.

□ 단행본, 정기간행물, 논문

- 강이수(2018). 4차산업혁명과 디지털 성별 격차. 페미니즘 연구, 18(1), 143-179.
- 강준형(2020). 대공황과 뉴딜, 한국판 뉴딜의 시사점. 월간SW중심사회. 36-45.
- 김학실(2011). 사회적 기업 의 여성친화성 분석. 지역발전연구. 20(1). 211-244.
- 노대명(2009). 사회적경제를 강화해야 할 세가지 이유. 창작과 비평. 37(3). 73-93.
- 박천웅(2020). 디지털 경제 체제로의 전환과 관광 서비스 융합 방향. 한국관광정책. 82. 38-46.
- 신명호(2009). 한국의 '사회적 경제'개념 정립을 위한 시론. 동향과 전망. 75: 11-46.
- 전기택·배진경(2020). 코로나19의 여성 노동위기 현황과 정책과제. KWDI Brief 제58호
- 정현주(2017). 사회적경제, 새로운 여성일자리 대안이다. 부산여성가족 BRIEF. vol.32.
- 지은희(2019). 디지털 인재전쟁 시대의 여성 인력 활용. 월간SW중심사회 58호.
- 최우일(2014). 정부의 정책 및 내외환경이 마을기업의 성과와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마을기업의 지정요인을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황원경·손광표(2021). 2021 한국 반려동물보고서.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 A. Seligman(1992), The Idea of Civil Society, Princeton University Press, pp.17-21.
- World Economic Forum(2020). The Future of Jobs Survey.

UWFDI 연구보고서 2021-04

울산형 뉴딜을 통한 여성 일자리 창출 및 취·창업 지원방안

A Study on the Creation of Women's Jobs and Support for
Getting Jobs and Starting a Business through Ulsan-type
New Deal

발행인 : 이미영

발행일 : 2021년 8월 31일

발행처 : (재)울산여성가족개발원

주소 _ (44717) 울산광역시 남구 정동로20번길 24

전화 _ (052) 278-0500 팩스 _ (052) 276-8556

ISBN 979-11-91793-01-7
